

2023년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도쿄대 사료편찬소 공동학술대회

# 물품으로서의 동유라시아 공문서

- 일시: 2023년 8월 9일(수) 13:00~18:00
- 장소: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 주최: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도쿄대 사료편찬소
- 후원: 한국연구재단





2023년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도쿄대 사료편찬소 공동학술대회

# 물품으로서의 동유라시아 공문서

- 일시: 2023년 8월 9일(수) 13:00~18:00
- 장소: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 주최: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도쿄대 사료편찬소
- 후원: 한국연구재단

© 이 행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됨  
(NRF-2020S1A6A3A01054082)



공동학술대회 일정\_2023년 8월 9일(수)

- 주제: 물품으로서의 동유라시아 공문서 -

개회식	
13:00~13:10	개회사   노대환(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단장)
1부 발표	
13:10~13:40	사회   최소영(동국대) 【제1발표】 동유라시아 세계의 명칭 공문서 발표   渡辺美季(도쿄대) 토론   홍성구(경북대)
13:40~14:10	【제2발표】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소장 명대 관계 사료 발표   黒嶋敏(도쿄대)·須田牧子(도쿄대) 토론   劉序楓(대만중앙연구원)
14:10~14:40	【제3발표】 조선시대 공문서의 압인방법 - 동아시아 고문서학의 시점에서 발표   荒木和憲(규슈대) 토론   권기석(동국대)
14:40~15:00	휴식
2부 발표	
15:00~15:30	사회   이완석(동국대) 【제4발표】 「滿文原檔」에 보이는 17세기 만주 국가의 만문 사령 칙서와 그 장부 발표   中井勇人(도쿄대)·鍾周哲(도쿄대) 토론   이선애(경상국립대)
15:30~16:00	【제5발표】 시립하코다테박물관 소장 청대 고명 소개 발표   임경준(동국대) 토론   정병진(강원대)
16:00~16:30	【제6발표】 16-17세기 필리핀 총독과 명 지방 당국을 왕래한 스페인어 문서 발표   남민구(동국대) 토론   岡本真(도쿄대)
16:30~16:50	휴식
16:50~18:00	【종합토론】 좌장   서인범(동국대) 발표자·토론자·방청객



# 목 차

## 【제1발표】 와타나베 미키(도쿄대)

- 동유라시아 세계의 명칭 공문서 ..... 11
- 東ユ－ラシア世界における明清公文書 ..... 23
- 토론문 I 홍성구(경북대) ..... 33

## 【제2발표】 구로시마 사토루(도쿄대)·스다 마키코(도쿄대)

-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소장 명대 관계 사료 ..... 37
- 東京大学史料編纂所所蔵の明代関係史料 ..... 51
- 토론문 I 류쉬핑(대만중앙연구원) ..... 63

## 【제3발표】 아라키 가즈노리(규슈대)

- 조선시대 공문서의 압인방법 - 동아시아 고문서학의 시점에서 ..... 67
- 朝鮮時代公文書の押印方法-東アジア古文書学の視点から- ..... 77
- 토론문 I 권기석(동국대) ..... 85

## 【제4발표】 나카이 유토(도쿄대)·종저우쩌(도쿄대)

- 「滿文原檔」에 보이는 17세기 만주 국가의 만문 사령 칙서와 그 장부 · 95
- 「滿文原檔」にみえる17世紀マンジュ国家の滿文辞令勅書とその台帳 ... 113
- 토론문 I 이선애(경상국립대) ..... 129

## 【제5발표】 임경준(동국대)

- 시립하코다테박물관 소장 청대 고명 소개 ..... 133
- 토론문 I 정병진(강원대) ..... 149

## 【제6발표】 남민구(동국대)

- 16-17세기 필리핀 총독과 명 지방 당국을 왕래한 스페인어 문서 ..... 153
- 16-17世紀、フィリピン総督と明の地方当局を往来したスペイン諸文書 ... 163
- 토론문 I 오카모토 마코토(도쿄대) ..... 171



**【제1발표】**

## 동유라시아 세계의 명청 공문서

와타나베 미키(도쿄대)

- 
1. 「사료편찬소 소장 명청(明清) 중국 공문서 관계사료 비교연구」 프로젝트란?
  2. 조선의 '외교문서'에 관한 제문제 -류큐와의 비교-
    - (1) 조서·칙유의 수령·보관
    - (2) 청에 대한 명대조칙의 제출
    - (3) 발급문서의 차이
    - (4) 표전문(表箋文)의 형태
  3. 명청 공문서와 조선사회 -일본·류큐와의 비교-





# 동유라시아 세계의 명청(明清) 공문서

와타나베 미키(도쿄대)

## 1. 「사료편찬소 소장 명청(明清) 중국 공문서 관계사료 비교연구」 프로젝트란?

도쿄대학사료편찬소(東京大學史料編纂所)에는 명청시대(明清時代)의 중국 공문서 및 관련문서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sup>1)</sup>. 이 중 원본은 5점으로 전부 명대(明代)의 것이다 【표1】. 4점[No.①~④]은 일본과 명과의 외교관계에서 오고 간 ‘외교문서’(또는 관련 문서)이지만, 1점[No.⑤]은 일본으로 유입은 되었으나 외교와는 관계없는 ‘미술품·골동품’ 종류의 문서이다. 그 외에 일본 내에 존재하는(혹은 이전에 존재하였던) 문서의 사본이나 사진 등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또한 류큐(琉球)와 관련해서는 1879년 류큐 병합 당시 메이지정부(明治政府)가 왕성(王城, 首里城)에서 접수한 명청 황제의 조칙 목록(詔勅目錄)[No.⑥]이 소장되어 있다(조칙원본은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소실). 모두 중·근세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귀중한 사료이며, 또한 일본에서 중국 공문서가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표1】사료편찬소 소장 주요 명청 중국 공문서 관계사료

No.	양식	사료편찬소 등록명(발급·작성연대)	비고
①	咨文	蔣洲咨文(1556년)	명→일본
②	回文	明國福建巡撫許孚遠回文(1594년)	명→일본
③	檄文	明國福建巡撫許孚遠檄文(1594년)	명→일본
④	筭付	明國筭付(1595년)	명→일본
⑤	誥命	明天啓帝制誥零文(1622년)	명‘국내문서’
⑥	詔勅目錄	明清冊封詔勅目錄(1903년)	명·청→류큐

이 문서들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료 원본의 기초적 조사와 일본 국내에 남아있는 관련·유사문서와의 비교 및 분석이 이루어지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양식·형태나 작성·발급 과정에 대한 제도적 연구 및 명과 청, 두 왕조—특히 ‘내정(內政)’—에서 실제 발급한 같은 종류의 문서(이른바 ‘국내문서’)와의 비교·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2019년 4월부터 도쿄대학사료편찬소 일반 공동 연구 「사료편찬소 소장 명청 중국 공문서 관계사료의 비교연구」 프로젝트(이하, 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1]편찬소가 소장하고 있는 명청 공문서의 양식·형태·작성·발급에 관한 명칭의 제(諸) 규정<sup>2)</sup>을 파악하고, [2]해당문서와 규정의 대조 분석을 실시

1) 자세한 내용은 구로시마 사토루(黒嶋敏), 스다 마키코(須田牧子)의 보고를 참조하길 바란다.

한 후 [3]우선 타이완(臺灣) 소재의 관련·동류(同類) 문서의 원본조사를 통한 비교 검토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0년 1월 내각대고당안(內閣大庫檔案)<sup>3)</sup>을 소장하고 있는 타이페이(臺北)의 중앙연구원역사어언연구소(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이하 사어소)에서 명말청초(明末清初)의 문서를 중심으로 조서(詔書)·칙유(勅諭)·고명(誥命)·칙명(勅命)·자문(咨文)·차부(劄付)·표문(表文)·전문(箋文)·주본(奏本) 등 총 41점을 추출하여 그 원본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또한 명칭 서적(書蹟)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타이페이의 하창시서법예술기금회(何創時書法藝術基金會)에서도 임진왜란 [정유재란] 당시 명의 원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양호(楊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게 보낸 글(1597년), 임진왜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병부상서(兵部尙書) 석성(石星)의 글 등을 조사하였다. 그 성과는 조사한 모든 문서의 고화질 사진과 함께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연구성과 보고서 2021-1 명칭 중국 관계문서 비교 연구-타이완 소재 사료를 중심으로(東京大學史料編纂所研究成果報告書2021-2明清中國關係文書の比較研究-臺灣所在史料を中心に)』로 정리하였으며, 이는 도쿄대학 학술기관 리포지토리(repository,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다<sup>4)</sup>.

## 2. 조선의 ‘외교문서’에 관한 제문제 -류큐와의 비교-

사어소의 내각문고당안과 관련해서는 ‘국내문서’만이 아니라 ‘외교문서’와의 비교를 위해 조선·류큐와 명칭 사이에서 오고 간 문서【표2】도 적극적으로 추출하여 조사하였다(명칭-일본 문서는 소장되어 있지 않다).

【표2】사어소에서 조사한 조선·류큐의 ‘외교문서’

No.	양식	사어소 등록명(발급·작성연대)	비고
1	勅諭	明崇禎三年諭朝鮮國王勿媾倭款奴敕(1630)	명(崇禎)→조선
2	咨文	朝鮮國王爲補賜符驗以便朝聘事(1630)	명(崇禎)→조선
3	勅諭	賜朝鮮國王文綺銀兩等物(1634)	명(崇禎)→조선
4	表文	淸崇德二年朝鮮國王李侗上表 一卷(1637)	청(崇德 <sup>5)</sup> )→조선
5	箋文	朝鮮國王箋進元旦奉物貢(1643)	청(崇德)→조선
6	勅諭	朝鮮國王李侗違旨復用廢員敕諭(1644)	청(順治)→조선
7	表文	朝鮮國王李湜表賀萬壽聖節(1651)	청(順治)→조선

2) 주로 『대명회전(大明會典)』, 『대청회전(大清會典)』, 『대청회전사례(大清會典事例)』를 사용하였다.

3) 내각대고당안(內閣大庫檔案)은 자금성(紫禁城) 내 내각대고(內閣大庫)에 보관되어 있었던 각종 공문서(檔案)군이다. 현재는 북경의 제일역사당안관(第一歷史檔案館, 약 1000만 점)과 타이페이(臺北) 사어소(史語所, 약 31만 점)·고궁박물관문헌관(故宮博物院文獻館, 약 40만 건)에 분장(分藏)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청대 문서이다. 명대 문서는 약 7천 점(제일역사당안관 약 3천 점·사어소 약 4 천점)으로 대부분이 명대(天啓·崇禎연간)의 문서이다.

4) <http://hdl.handle.net/2261/0002001394>

8	詔書	封琉球國中山王尙質詔書(1654)	청(順治)→류큐
9	詔書稿	封琉球國王詔書稿(1654)	청(順治)→류큐
10	表文	琉球國中山王世子爲恭請新封事(1680)	청(康熙)→류큐
11	詔書稿	康熙帝詔封尙貞爲琉球國中山王[稿](1682)	청(康熙)→류큐
12	奏本	琉球國王請封副奏(1716)	청(康熙)→류큐
13	表文	朝鮮國王爲慶賀長至令節事(1717)	청(康熙)→조선
14	表文	淸乾隆二十八年朝鮮國王李吟上表 一卷(1763)	청(乾隆)→조선
15	表文	琉球國中山王進貢方物表文(1780)	청(乾隆)→류큐

이 문서들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조선·류큐의 '외교문서'에는 여러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에 따라 몇 가지 의문도 생겼다. 다음에서는 그 개요를 서술하려 한다<sup>6)</sup>.

### (1) 조서·칙유의 수령·보관

중국에서는 황제가 화이(華夷)의 구별 없이 '천하'를 지배한다는 이념에 따라 '외정(外政)'과 '내정(內政)'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외교문서'도 '국내문서'와 동일한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위치 지어져 있었다<sup>7)</sup>. 실제 명청의 제규정에도 '외교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외교문서'로부터 '국내문서'와는 다른 측면도 살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황제가 신하에게 내리는 조서·칙유는 '국내문서'로도 '외교문서'로도 사용되었다<sup>8)</sup>. '국내문서'로서 조칙원본은 선독(宣讀)하여 반포한 후(혹은 복명 시) 황제에게 반환하는 것이 의무였다<sup>9)</sup>. 반면 적어도 류큐에 발급된 조칙은 명청시대를 통틀어 나라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인가되었으며, 수리성 정전(正殿) 이층에 격납되어 있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책봉(冊封)의 조칙에 관해서는 책봉 때 마다 국왕이 조칙을 나라에 보관하며 이를 '전국의 보물[傳國의寶]'로 삼을 수 있도록 청원하고 책봉사(冊封使)가 이를 승인하는 의례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선에서도 승문원(承文院)이 조칙의 보관을 담당하였으며, 1770년 이후부터는 신설된 경봉각(敬奉閣)·흠봉각(欽奉閣)에서 조칙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sup>10)</sup> 류큐와 마찬가지로 반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명청 두 왕조가 이를 공적으로 승인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다.

5) 황태이지(皇太極) 치세 후반에 사용되었던 연호이다.  
6) 이하 별도의 주를 표기하지 않은 한 본 절의 기술은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연구성과 보고서 2021-1 명청 중국 관계문서 비교연구-타이완 소재 사료를 중심으로』에 근거한다.  
7) 荒木和憲, 「中世日本往復外交文書をめぐる様式論的研究」,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224, 2021년, 216·217쪽.  
8) 조서는 중요한 국사를 천하에 포고하기 위해, 칙유는 관리를 임명하거나 훈시를 내릴 때 사용되었던 한편, 조공국에게는 왕을 책봉할 때 조서가, 또한 왕에게 예물을 내릴 때 등에는 칙서·칙유가 사용되었다.  
9) 내각대고당안에는 '사용 후'에 반환된 '국내문서'로 조칙원본도 다수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야카기 미에코(赤城美恵子)씨는 청대 각지에 파견된 흘형관(恤刑官)이 반납한 다수의 칙유의 존재를 지적하였다. 赤城美恵子, 「清朝初期における「恤刑」(五年審録)について」,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55, 2009년, 14쪽.  
10) 洪性鳩(林慶俊 역), 「韓國所藏淸朝(滿文)文書について」, 『學習院大學國際センター年報』 5, 2019년, 72쪽.

또한 본 프로젝트에서 조사한 내각대고당안 중 조선·류큐 앞으로 발급된 조칙도 고본(稿本, No.9·11)을 제외하면, 작성 중에 상황이나 정책의 변화에 의해 철회된 것(No.1·6), 사정에 따라 미발급 된 채로 있는 것(No.8)으로, 발급 후 반환되었다고 보이는 '외교문서'로서의 조칙원본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조칙을 반환하지 않고 왕궁 내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 조선·류큐의 상황과 모순되지 않는다.

## (2) 청에 대한 명대조칙의 제출

사어소의 내각대고당안에는 조선이 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명대칙유(No.5)도 남아있다. 1636~37년 조선은 홍타이지(皇太極)에 의한 두 번째 침공(병자호란)을 경험하며 청에 항복하였다. 직후 홍타이지는 조선국왕에게 조유(詔諭)를 내려 '명이 준 고명(誥命)·책(冊, 詔勅)·인(印, 國王印)을 헌납하고 죄를 청하라(과오를 사죄하라)'고 명하였는데<sup>11)</sup>, 본 문서(No.5)는 조선이 이에 응하여 청에 제출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류큐의 경우, 명청 교체 2년 후(1646년) 순치제(順治帝)는 칙유를 내려 청에 귀순할 것을 명하며, 이와 함께 명이 준 '인(印)·칙(勅)'(국왕인과 책봉의 조칙)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 요청을 받은 국왕은 1653년 사신을 보내 청으로의 귀순을 표명한 후 '류큐에서는 국왕이 서거하면 칙도 함께 이장(理葬)한다'고 말하며, '아직 이장하지 않은'-류큐에서는 유체를 일정기간 안치한 후 세골(洗骨)을 거쳐 이장[改葬]하였다-7대 쇼네이왕(尙寧王, 1620년 서거)의 책봉조서(a)·8대 쇼호왕(尙豐王, 1640년 서거)의 책봉조서(b)·칙유(c), 총 3점의 조칙과 명인(明印)을 청에 반환하였다<sup>12)</sup>. 이 중에서 (a)의 잔간(殘簡)과 (c)는 중국제일역사당안관(中國第一歷史檔案館)·여순박물관(旅順博物館)에 남아 있다. 또한 류큐에서는 수리성에 역대 조칙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청에 대한 류큐의 설명('국왕과 함께 칙도 이장하였다')은 허위였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명이 부활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일부러 3점 밖에 반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었으나<sup>13)</sup>, 후술할 내용이지만 사쓰마(薩摩, 오늘날 鹿兒島縣)의 다이묘(大名) 시마즈씨(島津氏)의 침공(1609년)으로 이미 많은 명대의 조칙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반환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한편 조선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 청에 조칙을 제출하였을까? 내각대고당안의 명대 칙유(No.5)는 조선국왕 인조(仁祖, 李儉)의 재위 당시 왕세자[昭顯] 책봉(1634년)과 함께 예물을 하사한 명 의종(毅宗, 崇禎帝)의 칙유에 딸린 부속문서[頒賜品目錄]로 보이는데, 적어도 책봉의 고명·조서·칙서 등도 함께 청에 제출되었을 것이다. 그 이전 책봉의 고명·조서·칙서도 국내에 존재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 전부가 청에 제출된 것일까? 명이 부활할 가능성 내지 다른 이유로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도 있을

11) 辻大和, 「丙子の亂後朝鮮の對清貿易について」, 『朝鮮王朝の對中貿易政策と明清交替』, 汲古書院, 2018년, 154쪽. 조유는 한국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2) 徐恭生, 「崇禎二年「皇帝敕諭」についての一考察」, 『歴代寶案研究』 3·4호 합병, 1993년; 朱淑媛, 「新發現의 明代冊封琉球國王詔書原件」, 『歴史檔案』 1995년 제2기; 吳元豊, 「清朝初期に琉球國王尙質の冊封について」, 『琉球・中國交渉史に關するシンポジウム論文集』 제3회, 1996년.

13) 高瀬恭子, 「明清交替期における琉球國の對中國姿勢について」, 『お茶の水史學』 22, 1979년, 44~45쪽.

까? 또는 제출 시 정부 내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있었을까? 그리고 사어소의 칙유(No.5) 이외에 조선이 제출한 다른 조칙류는 현존하고 있을까? 이러한 점들을 알 수 있다면 류큐와의 비교 검토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3) 발급문서의 차이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2)에서 언급한 명대칙유(No.5)는 엄밀히 말하면 칙유의 부속 문서[반사품목록]이다. 이 문서 및 『동문회고(同文彙考)』에 등록(謄錄)된 이후의 칙유나 한국국립중앙도서관에 전해져 내려오는 청대의 칙유원본<sup>14)</sup> 등을 통해 유추해 보면 조선에서는 칙유와 반급품(頒給品)을 따로따로 용지에 기록하였던 것 같다.

한편 류큐의 경우, 명초를 제외하면 책봉의 칙유와 반사품(頒賜品)의 목록은 종이 한 장에 정리되어 기록되었다. 또한 국왕·왕비에게 내려진 반급품도 용지 한 장에 적혀있는데, 조선의 경우에는 이것들이 개별적으로 용지에 기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소현세자의 책봉 당시에도 책봉의 고명·조서·칙유 이외에 국왕, 왕비, 세자의 반급품을 기재한 칙유가 개별적으로 발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덧붙여 류큐의 경우에는 조선과 같이 세자나 왕비의 책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왕의 책봉만이 이루어졌다.

또한 황제가 오품 이상의 관리를 수봉(授封)할 경우에 사용되는 고명은 종종 외국의 국왕에게도 발급되었다. 조선에 대해서도 명청시대 동안 국왕만이 아니라 왕세제(王世弟)·왕세자·왕비 등 왕실에도 책봉고명(冊封誥命)이 발급되었으며, 정조(正祖) 이전에는 진장각(珍藏閣), 1785년부터는 봉안각(奉安閣)으로 옮겨져 보관되었다<sup>15)</sup>. 일본에 대해서는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국왕으로 책봉할 당시 고명이 발급되었으며, 후자는 일본의 오사카역사박물관(大阪歴史博物館)에 현존한다. 류큐에 대해서는 왕국 통일 전(中山·南山 분립기)인 1415년에 산남왕(山南王)에게 책봉고명이 발급되었다는 것이 명의 『태종실록(太宗實錄)』에 기재되어 있다[永樂13年5月己酉(13日)條]. 류큐에 대한 고명발급은 이 사례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중국이 발급한 조령문서(詔令文書)와 관련하여 조선·류큐·일본 사이에서는 여러 차이점이 존재한다. 국왕의 책봉만을 예로 들어도 조선국왕에게는 책봉의 고명·조서·칙유 및 반급품을 기재한 칙유가 발급되었으나, 류큐국왕에게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책봉의 조서·칙유만이 발급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것은 이후의 검토 과제이다.

### (4) 표전문(表箋文)의 형태

사어소에서 내각대고당안의 원본숙람(原本熟覽)<sup>\*역자주: 이하, 강조점은 원문</sup>을 통해 특별히 눈에 띄인 것 중 하나가 조선·류큐가 황제나 황후에게 제출한 표문, 전문[표전문]의 형태상의 미세한 차이점이다.

14) 洪性鳩(林慶俊 역), 「韓國所藏清朝(滿文)文書について」, 『學習院大學國際センター年報』 5, 2019년, 71~72 쪽의 「表 韓國所藏 滿文文書目錄」을 참조하였다.

15) 홍성구 전개 논문, 72쪽.

특히 조선만이 행하였던 국왕인의 보화(補畫:보필)는 류큐의 국왕인과 나란히 두고 볼 때 시각적 차이가 눈에 또렷하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인조17년(1639) 8월 14일 조에는 '표문의 안보보화(安寶補畫)가 "부정(不精)"하므로 화원(畫員)을 치죄 하도록 왕에게 요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승정원일기』 숙종12년(1686) 11월 3일 조에는 자문을 보화(補畫)하지 않은 것 때문에 승지(承旨)가 숙종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17세기 조선에서는 표전문만이 아니라 자문도 국왕인의 보화가 관습화되어 있었다고 보인다<sup>16)</sup>. 명칭 제규정에 정통한 조선이 명칭 '국내'에서도 류큐에서도 하지 않은 압인보화(押印補畫)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또한 조선과 류큐에서는 표문[折本形式]에 대하여 황침(黃籤)의 소재나 표지를 붙이는 방식 등도 달랐다. 적어도 18세기 후반 이후 현재 남아 있는 류큐의 사례를 보면, 표표지(表表紙) 및 안표지(裏表紙, 마지막 쪽)의 전면에 황지(黃紙)가 붙어있으며 그 위에 서지나 날인이 되어 있다<sup>17)</sup>. 한편 조선의 표문은 처음과 끝의 쪽 안에 황릉(黃綾)을 붙인 표지가 폴로 붙어 있으며, 언뜻 보면 류큐와 비슷하지만 형태는 다르다. 또한 두 표문의 표지도 『대청회전사례』에 규정되어 있는 형태와 다르다. 조선·류큐가 무엇을 참고하여, 어떠한 과정에서 작성하였는지, 왜 한 눈에는 '같은(것 같은) 형태의 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여러 차이점이 발생하였는지, 그 노하우나 소재(황지나 황릉 등)는 어디에서 입수하였는지 등 양국의 문서 작성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명칭 공문서와 조선사회 -일본·류큐와의 비교-

다음으로 명칭 공문서가 일본·류큐·조선 각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sup>18)</sup>. 명칭시대 내내 중국의 조공국이었던 조선·류큐에서 황제의 하사품은 황제와 국왕의 군신관계의 '증거'이며, 또한 국왕의 국내적 권위를 보강하는 도구였다. 이 때문에 적어도 조령문서[고명·조서·칙서]는 왕성에 엄중히 보관되었다. 또한 그 외 '외교문서'도 정부 내 담당기관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명칭시대 중에서 명대에만 단속적(斷續的)으로 중화왕조에 조공한(때로는 책봉도 받은) 일본에서는<sup>19)</sup> 상대적으로 다양한 주체가 '외교문서'의 수신자였다. 또한 명말 이후 중화왕조와의 공적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외교문서'는 종종 향간(巷間)에 유통되었다. 예를 들면 사료편찬소가 소장하고 있는 원본 중 No.①은 쓰시마(對馬)의 다

16) 보고서 101쪽, 쓰지 야마토(辻大和)씨의 Ⅲ-[1]-2의 해설문.

17) 사어소에서 원본을 속람한 것 외 中國第一歷史檔案館 편, 『清代琉球國王表奏文書選錄』, 黃山書社, 1997년 도 참조하였다.

18) 이하 별도의 주를 표기하지 않은 한 본 절의 기술은 渡辺美季, 「琉球・日本關係における冠服と詔勅」, 『東國史學』69, 2020년에 근거한다.

19) 그 외에도 한대(漢代)부터 당대(唐代)에 걸쳐서도 단속적으로 중화왕조에 조공하고 있었다.

이묘 소씨(宗氏), No.②·③은 사쓰마의 다이묘 시마즈씨, No.④는 교토(京都)의 다이묘 마에다씨(前田氏)가 수령(受領) 주체이며, No.④는 훗날 어느 시점에 후손의 손을 떠난 것이다(편찬소는 1926년에 한 수집가로부터 구입하였다). 또한 편찬소의 소장문서는 아니지만, 1596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으로부터 책봉 받을 당시의 고명(오사카역사박물관 소장)은 히데요시의 신하 호리오 요시하루(堀尾吉晴)가 소장하다가 카메야마(龜山)의 다이묘 이시카와씨(石川氏)에게 전해진 것이다<sup>20</sup>).

이처럼 명대의 '외교문서'는 근세·근대를 통하여 자손이나 사사(寺社)·다이묘·학자 등에 의하여 귀중한 보물로서 소중하게 간직되었으며, 때로는 필사되었다(명초의 칙유가 간행된 적도 있다)<sup>21</sup>). 게다가 중국 국내에서 발급된, 일본과는 관계없는 명청 시대의 고명·칙명도 다수 일본으로 유입되어 진귀하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었다<sup>22</sup>). 당물(唐物)이나 한적(漢籍)을 왕성하게 수입하여 중국문화의 저작(咀嚼)에 열심이었던 근세 일본사회에서는 발급처를 불문하고 명청 공문서의 가치를 찾아내고, 관심을 기울이는 문화적 토양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토양은 근대에도 어느 정도 계승되었다. 사료편찬소가 소장하고 있는 명대고명 No.⑤도 그러한 토양 가운데 전래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일본사회의 문화적 토양은 류큐가 수령한 명청 공문서의 존재형태에도 영향을 끼쳤다. 류큐는 1609년 사쓰마의 시마즈씨에 의해 군사침공을 당하며, 중국(명청)과의 군신관계를 유지한 채로 일본(시마즈씨-막부)의 지배 하에도 편입되었는데, 시마즈씨가 류큐를 침공했을 당시 수리성의 많은 보물과 함께 명대조칙 대부분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1650년 류큐의 섭정(攝政, 宰相) 쇼쇼켄(向象賢)은 정사(正史) 『중산세감(中山世鑑)』에서 '생각해보니 초대 샷토왕(察度王)이 대명에 조공한 이래〔명과의〕 왕래 조칙이나 표문이 있었는데, 상녕의 난(尙寧の亂, 시마즈씨의 군사침공)으로 없어졌을 것이다. 현존하는 것을 적는다. 훗날 다시 발견될 것을 기다린다<sup>23</sup>』고 기록하며 명대의 칙유 3점(1449·1450·1532년)과 조서 1점(1532년)을 등록(謄錄) 하였다.

현재 류큐국왕 앞으로 내려진 명대칙유는 2점(1454년·1487년)만이 남아 있는데<sup>24</sup>), 둘 다 모두 20세기 어느 시점에 일본 본토에 '출현'하여 입수된 것이다. 또한 원본의 소재는 명확하지 않지만 교토의 저명한 유학자 이토 도가이(伊藤東涯, 1670~1736년)의 장서에는 1719년에 다나카 쇼샤(田中勝舍)라고 하는 인물[미상]에게서 빌려 옮겨 적었다고 하는 1455년 칙유의 사본이 포함되어 있다<sup>25</sup>). 게다가 18세기 중엽의 기록에 따르면 한 류큐인이 사쓰마에 갔었을 때 1455년의 조서를 발견해 다시 구입하여 국왕에게 헌납하였다고 한다<sup>26</sup>). 이 칙유·조서는 모두 1609년 침공에 의

20) 외에 명초 명일관계에서 발급된 칙유가 적어도 3점, 양호한 상태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小島浩之, 「誥命・勅諭」, 村井章介 외 편 『日明關係史研究入門-アジアのなかの遣明船-』, 勉誠出版, 2015년, 477쪽.  
 21) 자세한 내용은 구로시마, 스다의 보고를 참조하길 바란다.  
 22) 大庭脩, 「豊臣秀吉を日本國王に封ずる誥命について」,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紀要』4, 1971년 및 고지마(小島)의 전개 논문.  
 23) 「中山世鑑」, 横山重 편 『琉球史料叢書』5, 東京美術, 1972년, 47쪽.  
 24) 개인 소장 및 오키나와현립박물관·미술관 소장.  
 25) 古義堂文庫207-10-15호, 일본 덴리대학(天理大學) 부속 덴리도서관(天理圖書館) 소장.  
 26) 『新參陳姓家譜』, 一世康元, 那覇市歴史博物館 소장 영인본.

해 일본 본토로 유출된 '외교문서'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명청 공문서에 대한 일본 사회의 문화적 토양 때문에 귀중히 여겨지면서 매매되고 필사되면서 전해져 내려오며 존재하였던 것이다. 또한 사료편찬소가 소장하고 있는 『명청책봉조칙목록(明清冊封詔勅目錄)』(왕국 멸망 시 수리성에 보관되어 있었던 조칙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명대 조칙은 2점(1455·1494년) 뿐이고, 『중산세감』에 기재된 조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 중 1455년의 것은 아마 18세기 중엽에 가고시마에서 다시 구입해 온 것일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시마즈씨의 침공 후 조칙이 없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아마 왕성의 화재가 원인이었을 것이다).

한편 『명청책봉조칙목록』에 기재된 청대조칙은 167점이며, 실제 발급된 전체 수보다 약간 적지만 청대조칙 대부분은 왕국의 종언까지 왕성에 보관되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메이지정부에 일괄 접수되어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되는 사태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현재 류큐에 발급된 청대조칙은 1점도 남아 있지 않았다. 다만 국왕 앞으로 발급된 청대칙유(1689년)의 정교한 사본이 궁내청(宮內廳) 서릉부(書陵部)에 보관되어 있다<sup>27)</sup>. 이는 류큐에서 작성되어 사쓰마를 경유하며 막부에 헌상된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류큐에 발급된 청대조칙의 '실물'을 현재까지 전해주고 있는 귀중한 사본이다.

이 사본은 칙유의 본체만이 아니라 외통(外筒) 등 포장도 원본의 형태를 정확히 모방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정교한 사본을 제작한 배경에는 류큐[首里王府]가 청과의 관계나 그 가운데 스스로의 지위를 일본에 어필하려 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또한 중국문물에 대한 일본사회의 관심이나 수요를 배경으로 이러한 칙유사본이라면 막부가 소중히 여길 것이라는 증답의 효과도 나뉠 계산되었을 것이다. 류큐에게 청대칙유란 중국과의 군신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류큐의 자의식, 자존심을 지명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일본·류큐사회에서는 중국(발급주체)-조공국(수용주체)라고 하는 이국(二國) 관계의 틀에 머무르지 않은 명청 공문서의 수용·이용·소비의 다양한 실태가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 조선사회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홍성구씨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에는 국가기관 몇 곳에 얼마 안 되는 청대 공문서가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sup>28)</sup>. 그는 '청에서 보낸 외교문서가 조선왕조에 의해 고의로 훼손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며 이어서 오늘날 남아 있는 청대 공문서가 적은 이유로 ①청에 대한 자주독립을 주장한 대한제국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 ②한국전쟁 중 문화재 소개지(疏開地)였던 부산에서 발생한 대화재에 의해 소실되었을 가능성, ③한국전쟁 중 서울에서 소실되었거나 북한군에 의해 노획되었을 가능성 등을 꼽고 있다.

그렇다면 명대 공문서는 어떠한가? 임진왜란 등에 의해 소실된 것들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는 홍무연간에 발급된 부험(符驗, 명 국내에서 역 이용

27) 臼井和樹, 「圖書寮紅葉山御文庫目錄(二)-史部-」, 『書陵部紀要』69, 2018년; 渡辺美季, 「琉日関係における明清詔勅」, 沖縄縣教育廳文化財課史料編集班 편『第十二回琉球・中國交渉史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論文集』, 沖縄縣教育委員會, 2020년.

28) 홍성구, 전계논문, 70~71쪽.



을 위해 아문에 급부된 문서)이 소장되어 있으며<sup>29)</sup>, 앞으로 다른 문서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왕조시대에 왕성에서 유출되어 항간에 전해지며 남겨진 것일까? 혹은 명대의 것도 포함하여, 명칭 공문서는 모두 왕성에 보관되어 있었을까? 또한 『동문회고』와 같이 국가가 작성한 등록(謄錄) 이외에 관인 등 개인이 명칭 공문서를 필사하여 그 정보를 서로 전달하려한 현상은 없었을까? 이러한 여러 사항들을 검토함으로써 명칭 공문서가 조선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혹은 그렇지 않는지), 일본·류큐와의 차이점(내지는 공통점)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 \* \*

본 프로젝트에서는 앞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서울대학교규장각 및 도서관·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선과 청 사이에서 오고 간 칙유·고명·자문·표문 등의 원본을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본 조사를 비롯하여 한국 연구자와의 학술교류의 진전을 통해 본 보고에서 언급한 여러 과제와 의문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 이것이 동유라시아 세계의 명칭 공문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로 이어지는 것을 바란다.

---

29) 辻大和, 「朝鮮の對明朝貢使節が携帶した文書-符驗と勘合-」, 『韓國朝鮮文化研究』16, 2017년.



【제1발표】

## 東ユーラシア世界における明清公文書

渡辺美季（東京大学）

- 
1. 「史料編纂所所蔵明清中国公文書関係史料の比較研究」プロジェクトとは
  2. 朝鮮の「外交文書」に関わる諸問題 - 琉球との比較から -
    - (1) 詔書・勅諭の受領・保管
    - (2) 清に対する明代詔勅の提出
    - (3) 発給文書の相違
    - (4) 表箋文の形態
  3. 明清公文書と朝鮮社会 - 日本・琉球との比較から -



# 東ユーラシア世界における明清公文書

渡辺美季（東京大学）

## 1. 「史料編纂所所蔵明清中国公文書関係史料の比較研究」プロジェクトとは

東京大学史料編纂所には、明清時代中国の公文書ならびにその関連文書が複数所蔵されている<sup>1)</sup>。このうち原本は5点で、すべて明代のものである（表1）。4点〔No.①～④〕は日本と明との外交関係のなかでもたらされた「外交文書」（またはその関連文書）であるが、1点は「美術品・骨董品」の類として日本に流入した、外交とは無関係な文書〔No.⑤〕である。ほかに国内に存在する（あるいはかつて存在していた）文書の写本や写真なども複数所蔵されている。また琉球に関しては、1879年の日本への併合の過程で王城（首里城）から明治政府が接收した明清皇帝の詔勅目録〔No.⑥〕が所蔵されている（詔勅原本は1923年の関東大震災にて焼失した）。いずれも中近世東アジアの国際関係を読み解くための貴重な史料であり、また日本における中国公文書の社会的価値を具体的に検討し得る好素材である。

【表1】史料編纂所所蔵の主な明清中国公文書関係史料

No.	様式	史料編纂所登録名（発給・作成年代）	備考
①	咨文	蔣洲咨文（1556年）	明→日本
②	回文	明国福建巡撫許孚遠回文（1594年）	明→日本
③	檄文	明国福建巡撫許孚遠檄文（1594年）	明→日本
④	劄付	明国劄付（1595年）	明→日本
⑤	誥命	明天啓帝制誥零文（1622年）	明「国内文書」
⑥	詔勅目録	明清冊封詔勅目録（1903年）	明清→琉球

これらの文書に関しては、すでに史料原本の基礎的調査や日本国内に残存する関連・類似文書との比較分析が進められ、一定の成果が出されている。しかし、その様式・形態や作成・発給過程についての制度的研究、および明清両朝——特にその「内政」——において実際に発給された同類文書（いわゆる「国内文書」）との比較検討は、十分とは言えない状況にあった。こうした状況を鑑み、2019年4月より東京大学史料編纂所一般共同研究「史料編纂所所蔵明清中国公文書関係史料の比較研究」プロジェクト（以下、本プロジェクト）が開始された。

本プロジェクトでは、〔1〕編纂所が所蔵する明清公文書の様式・形態・作成・発給に関わる明清の諸規定<sup>2)</sup>を把握し、〔2〕当該文書と規定との対照分析を行った上で、〔3〕まず台湾所在の関連・同類文書の原本調査に基づく比較検討を実施することにした。このため2020年1月、内閣大庫檔案<sup>3)</sup>を所蔵する台北の中央研究院歴史語言研究所

1) 詳しくは黒嶋・須田報告を参照されたい。

2) 主に『大明会典』『大清会典』『大清会典事例』を用いた。

(以下、史語所)にて、明末清初の文書を中心に詔書・勅諭・誥命・勅命・咨文・劄付・表文・箋文・奏本など計41点を抽出し、その原本を精査した。また多くの明清書蹟を所蔵する台北の何創時書法芸術基金会においても、慶長の役(丁酉再乱)の際に明の援軍を指揮していた楊鎬による豊臣秀吉宛の書(1597年)のほか、壬辰戦争に関わる内容を持つ兵部尚書石星の書などを調査することができた。その成果は、調査を行ったすべての文書の高精細画像とともに『東京大学史料編纂所研究成果報告書2021-2明清中国関係文書の比較研究-台湾所在史料を中心に』としてまとめ、東京大学学術機関リポジトリ(オンライン)にて公開している<sup>4)</sup>。

## 2. 朝鮮の「外交文書」に関わる諸問題 - 琉球との比較から -

史語所の内閣大庫檔案については、「国内文書」のみならず、「外交文書」間の比較を行うために朝鮮・琉球と明清の間でやりとりされた文書(表2)も積極的に抽出・調査した(明清-日本の文書は所蔵されていなかった)。

【表2】史語所において調査した朝鮮・琉球の「外交文書」

No.	様式	史語所登録名(発給・作成年代)	備考
1	勅諭	明崇禎三年諭朝鮮國王勿媾倭款奴敕(1630)	明(崇禎)→朝鮮
2	咨文	朝鮮國王為補賜符驗以便朝聘事(1630)	明(崇禎)→朝鮮
3	勅諭	賜朝鮮國王文綺銀兩等物(1634)	明(崇禎)→朝鮮
4	表文	清崇徳二年朝鮮國王李倬上表 一卷(1637)	清(崇徳 <sup>5)</sup> )→朝鮮
5	箋文	朝鮮國王箋進元旦奉物貢表(1643)	清(崇徳)→朝鮮
6	勅諭	朝鮮國王李倬違旨復用廢員敕諭(1644)	清(順治)→朝鮮
7	表文	朝鮮國王李溥表賀萬壽聖節(1651)	清(順治)→朝鮮
8	詔書	封琉球國中山王尚質詔書(1654年)	清(順治)→琉球
9	詔書稿	封琉球國王詔書稿(1654年)	清(順治)→琉球
10	表文	琉球國中山王世子為恭請新封事(1680)	清(康熙)→琉球
11	詔書稿	康熙帝詔封尚貞為琉球國中山王[稿](1682)	清(康熙)→琉球
12	奏本	琉球國王請封副奏(1716)	清(康熙)→琉球
13	表文	朝鮮國王為慶賀長至令節事(1717)	清(康熙)→朝鮮
14	表文	清乾隆二十八年朝鮮國王李吟上表 一卷(176)	清(乾隆)→朝鮮

3) 内閣大庫檔案は、紫禁城内の内閣大庫に保管されてきた各種公文書(檔案)群である。現在は北京の第一歴史檔案館(約1000万点)と台北の史語所(約31万点)・故宮博物院文献館(約40万件)に分蔵されており、大半は清代の文書である。明代の文書は約7千点(第一歴史檔案館に約3千点・史語所に約4千点)で、多くが明末(天啓・崇禎年間)の文書である。

4) <http://hdl.handle.net/2261/0002001394>

		3)	
15	表文	琉球國中山王進貢方物表文(1780)	清(乾隆)→琉球

これらの文書の調査・分析から、朝鮮・琉球の「外交文書」には様々な相違点があることが確認できた。またそれに伴い幾つかの疑問も生じてきた。以下にその概要を述べたい6)。

### (1) 詔書・勅諭の受領・保管

中国においては、皇帝が華夷の別なく「天下」を支配するという理念上、「外政」と「内政」は区別されず、「外交文書」も「国内文書」と同一の次元で処理されるものと位置づけられていた7)。実際、明清諸規定においても「外交文書」は存在しない。一方で、「外交文書」には「国内文書」とは異なる側面もまた看取できる。

例えば、皇帝から臣下へ与える詔書・勅諭は「国内文書」としても「外交文書」としても用いられたが8)、国内文書としての詔勅原本は、宣読による頒布後(あるいは復命の際に)皇帝への返還が義務づけられる一方で9)、少なくとも琉球に発給された詔勅は、明清時代を通じて国に留め置くことが認可されており、それらは首里城正殿の二階に格納されていた。とりわけ最も重要な冊封の詔勅に関しては、冊封のたびに、国王が詔勅を国に留めて「伝国の宝」とすることを請願し、冊封使がこれを承認するという儀礼的なやりとりがなされている。朝鮮でも承文院が詔勅の保管を担当し、1770年以降は新設の敬奉閣・欽奉閣に保管しているので10)、琉球同様、返還はしていなかったようであるが、明清両王朝がこれを公的に承認していたのかどうかは不明である。

なお本プロジェクトで調査した内閣大庫檔案のなかの朝鮮・琉球宛の詔勅も、稿本(No.9・11)を除くと、用意されながら状況や政策の変化により撤回されたもの(No.1・6)、事情により未発給のままとなったもの(No.8)であり、発給後に返還されたとみられる「外交文書」としての詔勅原本は見いだせなかった。このことは、詔勅を返還せずに王宮内で保管してきたとする朝鮮・琉球の状況と矛盾しない。

### (2) 清に対する明代詔勅の提出

5) ホンタイジの治世後半に用いられた元号である。

6) 以下、特に注記のない限り、本節の記述は『東京大学史料編纂所研究成果報告書2021-2明清中国関係文書の比較研究—台湾所在史料を中心に』に拠る。

7) 荒木和憲「中世日本往復外交文書をめぐる様式論的研究」『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224、2021年、P.216-217。

8) 詔書は重要な国事を天下に布告するために、勅諭は官吏に対する任命や訓示の際に用いられる一方、朝貢国に対しては、その国の王を冊封する際に詔書が、また王に対する礼物賞賜などの際には勅書・勅諭が用いられた。

9) 内閣大庫檔案には「使用後」に返還された「国内文書」としての詔勅原本も複数残存している。例えば赤城美恵子氏は、清代に各地に派遣された恤刑官が返却した複数の勅諭の存在を指摘している(赤城美恵子「清朝初期における「恤刑」(五年審録)について」『東洋文化研究所紀要』155、2009年、P.14)。

10) 洪性鳩(林慶俊訳)「韓国所蔵清朝(満文)文書について」『学習院大学国際センター年報』5、2019年、P.72。

史語所の内閣大庫檔案には、朝鮮から清に提出したとみられる明代勅諭(No.5)も残存している。1636-37年、朝鮮はホンタイジによる二度目の侵攻(丙子の乱)を経て清に降伏したが、その直後、ホンタイジは朝鮮国王に詔諭を下して「明が与えた誥命・冊(詔勅)・印(国王印)を献納して罪を請え(過ちを詫びよ)」と命じており<sup>11)</sup>、本文書はこれに応じて清へ提出されたものと推定できる。

一方、琉球に関しては、明清交替の二年後(1646年)に順治帝が勅諭を発し、清への帰順を命じるとともに、明が与えた「印・勅(国王印と冊封の詔勅)の返還を求めている。この要請を受けた国王は、1653年、遣使して清への帰順を表明した上で、「琉球では国王の死去に伴い勅もともに埋葬する」と述べて、「未だ埋葬していない」—琉球では遺体は一定期間安置した後、洗骨を経て埋葬(改葬)した—7代尚寧王(1620年死去)の冊封詔書(a)と8代尚豊王(1640年死去)の冊封詔書(b)・勅諭(c)の計三点の詔勅と明印を清に返還した<sup>12)</sup>。この内(a)の残簡と(c)は中国第一歴史檔案館・旅順博物館に現存している。なお琉球では首里城に歴代の詔勅を保管しており、清に対する琉球の説明(「国王とともに勅も埋葬する」)は虚偽である。先学においては明復活の可能性などを考慮して敢えて三点しか返還しなかった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が<sup>13)</sup>、後述するように、薩摩(現在の鹿児島県)の大名島津氏の侵攻(1609年)の影響により、すでに明代の詔勅の多くが失われており、全面的な返還が不可能だったことが理由として大きかっ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翻って朝鮮の場合、清への詔勅の提出はどのような形で行われたのだろうか。内閣大庫檔案の明代勅諭(No.5)は、朝鮮国王仁祖(李倧)の王世子(昭顯)の冊封(1634年)にともない礼物を下賜する明毅宗(崇禎帝)の勅諭の付属文書(頒賜品目録)とみられるが、少なくとも冊封の誥命・詔書・勅書なども合わせて清に提出されたであろう。それ以前の冊封の誥命・詔書・勅書も国内に存在したと考えられるが、それらは全て清に提出されたのであろうか。明復活の可能性ないしは別の理由により、一部を故意に提出しないということがあったのだろうか。あるいは提出の際に、政府内でどのような議論が行われたのであろうか。また史語所の勅諭(No.5)以外に、朝鮮から提出された他の詔勅類は現存しているのであろうか。こうした諸点を知り得るのであれば、琉球との比較検討を試みることも可能になると思われる。

### (3) 発給文書の相違

先述したように(2)で取り上げた明代勅諭(No.5)は、厳密に言えば勅諭の付属文書(頒賜品目録)である。この文書、および『同文彙考』に謄録された後年の勅諭や、韓国国立中央図書館に伝存する清代の勅諭原本<sup>14)</sup>などから類推するに、朝鮮では勅諭と頒

11) 辻大和「丙子の乱後朝鮮の対清貿易について」『朝鮮王朝の対中貿易政策と明清交替』汲古書院、2018年、P.154。詔諭は韓国国立中央図書館蔵。

12) 徐恭生「崇禎二年」皇帝敕諭」についての一考察」(『歴代宝案研究』3・4号合併、1993年)、朱淑媛「新発見の明代冊封琉球国王詔書原件」(『歴史檔案』1995年第2期)、呉元豊「清朝初期における琉球国王尚質の冊封について」(『琉球・中国交渉史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論文集』第3回、1996年)。

13) 高瀬恭子「明清交替期における琉球国の対中国姿勢について」『お茶の水史学』22、1979年、P.44-45。



給品は別々の用紙に記されていたようである。

一方、琉球の場合は、明初を除いて冊封の勅諭と頒賜品の目録は一紙にまとめて記されていた。また国王・王妃に対する頒給品も一紙に記されたが、朝鮮ではこれらは別々の用紙に記されている。こうした状況から、世子昭顕の冊封の際にも冊封の誥命・詔書・勅諭以外に、国王・王妃・世子の頒給品を記載する勅諭が別個に発給された可能性が高い。ちなみに琉球に対しては、朝鮮のように世子や王妃の冊封は行われず、国王冊封のみである。

また皇帝が五品以上の官吏を授封する場合に用いる誥命は、しばしば外国国王に対しても発給された。朝鮮に対しては、明清時代を通じて国王のみならず王世弟・王世子・王妃など王室に対する冊封誥命が発給され、正祖以前には珍蔵閣に、1785年からは奉安閣に移して保管されている<sup>15)</sup>。日本に対しては、足利義満・豊臣秀吉を日本国王に冊封する際に誥命が発給され、後者は大阪歴史博物館に現存している。琉球に対しては、王国統一前(中山・南山の分立期)の1415年に山南王に対する冊封誥命が発給されたことが、明『太宗実録』に記載されている(永楽13年5月己酉[13日]条)。琉球への誥命発給はこの事例のみしか確認できない。

このように朝鮮・琉球・日本では中国から発給される詔令文書には様々な相違が存在した。例えば国王の冊封だけを例に取っても、朝鮮国王には冊封の誥命・詔書・勅諭および頒給品を記載する勅諭が発給されたが、琉球国王はごくわずかな例外を除き、冊封の詔書・勅諭のみが発給された。こうした違いがなぜ、どのように生じたのかは不明であり、今後の検討課題であると言える。

#### (4) 表箋文の形態

史語所における内閣大庫檔案の<sup>〇</sup>原本熟覽を通じて得られた大きな気づきの一つが、朝鮮・琉球が皇帝や皇后に提出した表文・箋文(表箋文)の形態上の細かな相違点である。

特に朝鮮のみが行う国王印の補画(補筆)は、琉球国王印と並べて見た時、視覚的差異が目に見えやかであった。『承政院日記』仁祖17年(1639)8月14日条には「表文の安宝補画が『不精』であるため、画員を治罪することが王に允された」とあり、『承政院日記』肅宗12年(1686)11月3日条には咨文への補画がなされていないことで承旨が肅宗から叱責された記事がある。このため17世紀の朝鮮では、表箋文のみならず、咨文についても、国王印への補画が慣習化していたとみられる<sup>16)</sup>。明清諸規定に精通していたはずの朝鮮が、明清「国内」でも琉球でも行われていなかった押印補画を、なぜ行うことになったのか、興味深いところである。

また朝鮮と琉球では、表文(折本形式)に対する黄籤の素材や表紙の付け方なども異

14) 洪性鳩(林慶俊訳)「韓国所蔵清朝(満文)文書について」(『学習院大学国際センター年報』5、2019年、P.71-72)の「表 韓国所蔵満文文書目録」を参照した。

15) 洪性鳩前掲論文、P.72。

16) 報告書101頁(辻大和氏によるⅢ-[1]-2の解説文)。

なっている。少なくとも18世紀後半以降の琉球の表文の現存例を見ると、表表紙ならびに裏表紙（最後の幅）には全面に黄紙が貼られ、その上に書字や押印がなされている<sup>17)</sup>。一方、朝鮮表文は、最初と最後の幅の裏に黄綾を貼った表紙が糊付けされており、琉球とは似て非なる形態である。またいずれの表文の表紙も『大清会典事例』で規定された形態とは異なっている。朝鮮・琉球が何を参考にどのような過程で作成していたのか、なぜ一見すると「同じ（ような）形態の文書」を作成したにもかかわらず、細部に様々な相違が生じたのか、そのノウハウや素材（黄紙や黄綾など）はどこから入手したのか。両国の文書作成過程に遡って検討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

### 3. 明清公文書と朝鮮社会 - 日本・琉球との比較から -

次に明清公文書が日本・琉球・朝鮮社会においてどのような意味を有していたのかを考えたい<sup>18)</sup>。明清時代を通じて中国の朝貢国であり続けた朝鮮・琉球では、皇帝による下賜品は皇帝と国王の君臣関係の「証し」であり、また国王の国内的権威を補強するツールであった。このため少なくとも詔令文書（誥命・詔書・勅書）は王城で厳重に保管されていた。またその他の「外交文書」も政府内の担当機関にて保管されていたものと考えられる。

一方、明清時代のうち、明代のみ断続的に中華王朝に朝貢した（時に冊封も受けた）日本では<sup>19)</sup>、相対的に多様な主体が「外交文書」の受け手となった。また明末以降、中華王朝との公的關係が途絶えるなかで「外交文書」はしばしば巷間に流出した。例えば史料編纂所が所蔵する原本のうち、No.①は対馬の大名宗氏、No.②・③は薩摩の大名島津氏、No.④は京都の大名前田氏が受領主体であり、No.④は後のいずれかの段階で子孫の手を離れている（編纂所は1926年にある収集家から購入した）。また編纂所の所蔵文書ではないが、1596年に豊臣秀吉が明から冊封を受けた際の誥命（大阪歴史博物館蔵）は、秀吉の臣下堀尾吉晴の所蔵を経て、亀山の大名石川氏へ伝えられたものである<sup>20)</sup>。

これらの明代の「外交文書」は、近世・近代を通じて子孫や寺社・大名・学者などによって重宝・珍藏され、しばしば書写された（明初の勅諭が版行されることすらあった）<sup>21)</sup>。さらに中国国内で発給された日本とは無関係な明清時代の誥命・勅命も日本に複数輸入され珍重されていた<sup>22)</sup>。唐物や漢籍を盛んに輸入し、中国文化の咀嚼に熱心であっ

17) 史語所における原本熟覧のほか、中国第一歴史檔案館編『清代琉球国王表奏文書選録』（黄山書社、1997年）も参照した。

18) 以下、特に注記のない限り、本節の記述は渡辺美季「琉球・日本関係における冠服と詔勅」（『東国史学』69、2020年）に拠る。

19) そのほかに漢代から唐代にかけても断続的に中華王朝に朝貢していた。

20) ほかに明初の日明関係のなかでに発給された勅諭が少なくとも三点、良好な状態で現存している（小島浩之「誥命・勅諭」村井章介ほか編『日明関係史研究入門—アジアのなかの遣明船—』勉誠出版、2015年、P.477）。

21) 詳しくは黒嶋・須田報告を参照されたい。

22) 大庭脩「豊臣秀吉を日本国王に封ずる誥命について」（『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紀要』4、1971年）および小

た近世の日本社会においては、発給先を問わず明清の公文書に価値を見出し、関心を寄せる文化的土壌が存在し、その土壌は近代にもある程度継承されていたのである。史料編纂所所蔵の明代誥命（No.⑤）もこうした土壌のなかで伝来したものと推定される。

日本社会の文化的土壌は、琉球が受領した明清公文書の在り方にも影響を及ぼした。琉球は1609年に薩摩の島津氏による軍事侵攻を被り、中国（明清）との君臣関係を維持したまま、日本（島津氏 - 幕府）の支配下にも組み込まれたが、島津氏の侵攻の際に、首里城内の数多の宝物とともに明代詔勅の大半が持ち去られたとみられる。1650年、琉球の摂政（宰相）の尙象賢は、正史『中山世鑑』において「思うに、初代の蔡度王が大明へ朝貢して以来、〔明との〕往来の詔勅や表文があったが、尚學の乱（島津氏の軍事侵攻）で失却したのだろう。現存するものを記す。後日また出てくることを待つ」<sup>23)</sup>と記し、明代の勅諭三点（1449・1450・1532年）と詔書一点（1532年）を謄録している。

現在、琉球国王宛の明代勅諭は2点（1454年・1487年）のみ残存しているが<sup>24)</sup>、それらはいずれも20世紀のある時点で日本本土に「出現」し、入手されたものである。また原本の所在は不明ながら、京都の著名な儒者伊藤東涯（1670～1736年）の蔵書には、1719年に田中勝舎という人物（不詳）から借り写したという1455年の勅諭の写本が含まれている<sup>25)</sup>。さらに18世紀中葉の記録によれば、ある琉球人が薩摩に赴いた際に1455年の詔書を発見し、買い戻して国王に献納したという<sup>26)</sup>。これらの勅諭・詔書はいずれも、1609年の侵攻によって日本本土に流出した「外交文書」の一部である可能性がある。明清公文書に対する日本社会の文化的土壌ゆえに、珍重・売買・書写され、伝存し続けたのであろう。なお史料編纂所が所蔵する『明清冊封詔勅目録』（王国滅亡時に首里城に保管されていた詔勅の目録）に記載されている明代詔勅は2点（1455・1494年）のみで、『中山世鑑』に掲載された詔勅は含まれていない（このうち1455年のものは、恐らく18世紀中葉に鹿児島で買い戻されたものであろう）。このことから島津氏の侵攻後もさらに詔勅が失われたことが推測できる（恐らくは王城の火災が原因であろう）。

一方、『明清冊封詔勅目録』に記載されている清代詔勅は167点あり、実際の発給総数よりはやや少ないものの、清代詔勅の大半は王国終焉まで王城に保管されていたことがうかがえる。しかしそれゆえに明治政府に一括して接收され、1923年の関東大震災にて焼失する事態となったため、現在、琉球に発給された清代詔勅は一点も残存していない。ただし国王宛の清代勅諭（1689年）の精巧な写本が宮内庁書陵部に所蔵されている<sup>27)</sup>。琉球で作成され、薩摩を経由して幕府に献上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琉球に発給さ

島前掲論文。

23) 「中山世鑑」横山重編『琉球史料叢書』5、東京美術、1972年、P.47。

24) 個人蔵および沖縄県立博物館・美術館蔵。

25) 古義堂文庫207-10-15号（天理大学附属天理図書館蔵）。

26) 『新参陳姓家譜』一世康元、那覇市歴史博物館蔵影印本。

27) 臼井和樹「図書寮紅葉山御文庫目録（二）一史部一」（『書陵部紀要』69、2018年）、渡辺美季「琉日関係における明清詔勅」（沖縄県教育庁文化財課史料編集班編『第十二回琉球・中国交渉史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論文

れた清代詔勅の「実物」の姿を今に伝える貴重な写本である。

この写本は勅諭の本体のみならず外筒など包装についても原本の在り方を正確に模倣して作成された可能性が高い。こうした作成姿勢からは、琉球と清との関係やその中における自らの地位を、日本に対してアピールしようとする琉球（首里王府）の政治的意図が感じられる。また中国文物に対する日本社会の関心や需要を背景に、このような勅諭写本であれば幕府に珍重されるであろうという贈答の効果もそれなりに計算されていたことであろう。琉球にとって清代勅諭とは、中国との君臣関係を支えるだけではなく、日本に対する琉球の自意識・自尊心を支えるモノでもあっ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に日本・琉球社会においては、中国（発給主体）- 朝貢国（受容主体）という二国関係の枠組みに留まらない、明清公文書の受容・利用・消費の多様な実態が存在していた。他方、朝鮮社会はどのような状況だったのだろうか。洪性鳩氏によると、現在、韓国には幾つかの国家機関を中心に若干の清代公文書が所蔵されているだけであるという<sup>28)</sup>。洪氏は「清から送られた外交文書が朝鮮王朝によって故意に毀損された可能性は非常に低い」とした上で、①清に対して自主独立を主張した大韓帝国政府が何らかの措置を取った可能性、②朝鮮戦争中の文化財の疎開先であった釜山の大火災によって焼失した可能性、③朝鮮戦争の渦中にソウルで紛失したり北朝鮮によって鹵獲されたりした可能性などを挙げている。

では明代公文書についてはどうであろうか。壬辰戦争などにより失われたものも多いと考えられるが、韓国国立中央博物館には洪武年間に朝鮮に発給された符驗（明国内で駅利用のために衙門に給付された文書）が所蔵されており<sup>29)</sup>、今後ほかの文書が「発見」される可能性もあるだろう。それらは王朝時代に王城から流出し、巷間に伝存したのだろうか。あるいは明代のものも含め、明清公文書は全て王城に保管されていたのだろうか。また王朝時代には『同文彙考』のような国家による謄録以外に、官人などの個人が明清公文書を書写し、その情報を伝達し合うような現象はなかったのだろうか。こうした諸点を検討することで、明清公文書が朝鮮社会のなかでどのような意味を持ったのか（あるいは持たなかったのか）が、日本・琉球との相違点（ないしは共通点）とともに見えてくることであろう。

\* \* \*

本プロジェクトでは、これから韓国学中央研究院蔵書閣・ソウル大学校奎章閣および図書館・韓国中央博物館において、朝鮮と清の間でやりとりされた勅諭・誥命・咨文・表文などの原本の熟覧調査を行う予定である。本調査を通じて、また韓国の研究者との学術交流の進展によって、本報告で述べた諸般の課題や疑問についての議論と検討が進

集』沖縄県教育委員会、2020年）。

28) 洪性鳩、前掲論文、70-71頁。

29) 辻大和「朝鮮の対明朝貢使節が携帯した文書—符驗と勘合—」『韓国朝鮮文化研究』16、2017年。

み、東ユーラシア世界における明清公文書の、より深い理解へと結び付くことを願う次第である。



**【토론문1】**

**별쇄 참조**





【제2발표】

##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소장 명대 관계 사료

스다 마키코(도쿄대)  
구로시마 사토루(도쿄대)

- 
- 1) 도쿄대 사료편찬소에 대하여
  - 2) 디지털화와 인터넷 공개 방안
  - 3) 사료편찬소 소장 명조(明朝) 발급문서
    - ① 장주자문(蔣洲咨文)
    - ② 명나라 차부(明國劄付)
    - ③ 시마즈 가문 문서 내의 명나라 발급 문서
    - ④ 영락제 칙유(永樂帝勅諭)
    - ⑤ 천계제 고명(天啓帝誥命)



## 도쿄대 사료(史料)편찬소에 소장된 명나라 관련 사료

스다 마키코(도쿄대)  
구로시마 사토루(도쿄대)

### 1) 도쿄대 사료편찬소에 대하여

도쿄 대학교의 사료편찬소는 '일본에 관한 사료와 편찬에 관한 연구 및 연구 성과에 따른 사료집 출판'을 하는 도쿄대 부설 연구소이다. 약 50명의 교원 외에도 직원이나 비상근 직원 등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약 200명 규모의 조직이다. 국내외에 전해지는 고대부터 메이지 유신기까지의 사료를 조사, 수집하고 사료 연구를 더해서 각종 사료집을 간행하고 있다. 그 수는 1901년 최초의 사료집을 간행한 이후 현재까지 1,200권이 넘는다.

동시에 사료편찬소는 사료 보존 이용 기관으로서도 기능하고 있으며 100년 넘게 집적된 각종 사료를 관리하여 연구자나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소장 사료는 크게 ① 복사본과 ② 원본이 있다.

① 복사본은 사료편찬소가 사료를 복사해서 수집해 두는 것이 기본 방침으로 방대한 양의 복사 사료를 소장하고 있다. 그중에는 재해 등으로 원본이 손실되어 복사본만으로 전달되는 것도 있으며 복사본 자체가 귀중한 문화 자원이 된 것도 적지 않다.

② 원본은 공가(公家, 조정을 섬기는 귀족이나 관리)나 무가(武家)에 전해지던 사료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러 경위를 통해 사료편찬소 소장되었다. 약 20만 점에 이르는 원본 사료 중에는 국보·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귀중한 사료들이 있으며, 국보 1건(시마즈 가문 문서(島津家文書)···헤이안 시대부터 에도 시대에 이르는 사쓰마 번(薩摩藩) 시마즈 가문의 문서 군), 중요문화재 20건(공가 후지와라노 요리나가(藤原頼長, 1120-56)의 일기 「다이키(台記)」 혹은 대불(大仏) 재건에 힘쓴 승려 조겐(重源, 1121-1206)의 사원 및 불상 건축 기록인 「나무아미타불 작선집(南無阿彌陀仏作善集)」 등)이 있다.



동경대 사료편찬소 홈페이지 ( <https://www.hi.u-tokyo.ac.jp/> )

## 2) 디지털화와 인터넷 공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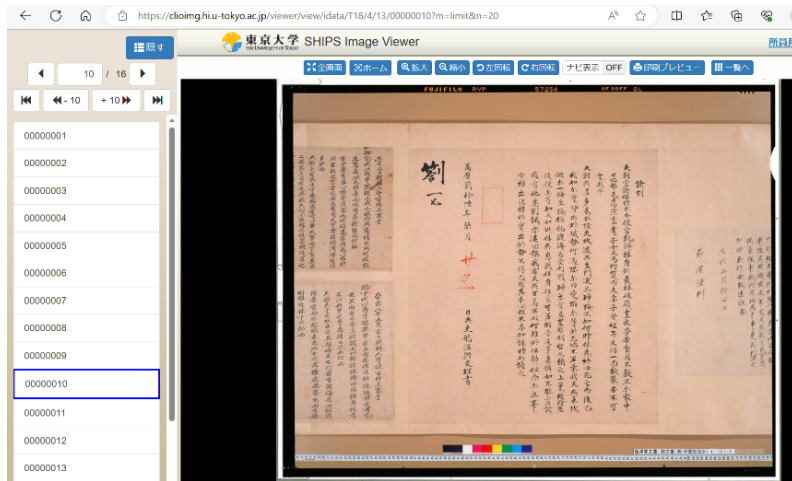
사료 편찬소에서는 방대한 사료 정보의 정리와 연구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1980년 대 이후 디지털화에 힘써 왔다. 그중에서도 역사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약 30 종류)의 개발과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인문계 연구소로서는 국내 최대 데이터량(2,022만 건 이상)과 접속 수(전 세계에서 월간 약 442만건)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소장 사료 목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료 편찬소가 소장한 원본을 중심으로 사료 이미지를 다수 공개하고 있다.

일례로 시마즈 가문 문서에 남아 있는 명나라 시대의 사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시마즈 가문 문서는 미나미 규슈(南九州)의 영주로서 중·근세에 걸쳐 살았던 시마즈 가문에 남겨진 거대 문서 군으로 국보로 지정되어있다. 그중 「어문서 명·오란다·조선·섬라(御文書 明・阿蘭陀・朝鮮・暹羅)」라는 제목의 두루마리에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전기에 걸쳐 시마즈 가문이 받은 외국문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임진왜란 당시 명군이 진중(陣中)에 보낸 문서 원본과 정교한 사본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소장 사료 목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지를, 고문서 플렉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설문을 공개하고 있다.

· 차부(箭付)

<https://clioimg.hi.u-tokyo.ac.jp/viewer/view/idata/T18/4/13/00000010?m=all&n=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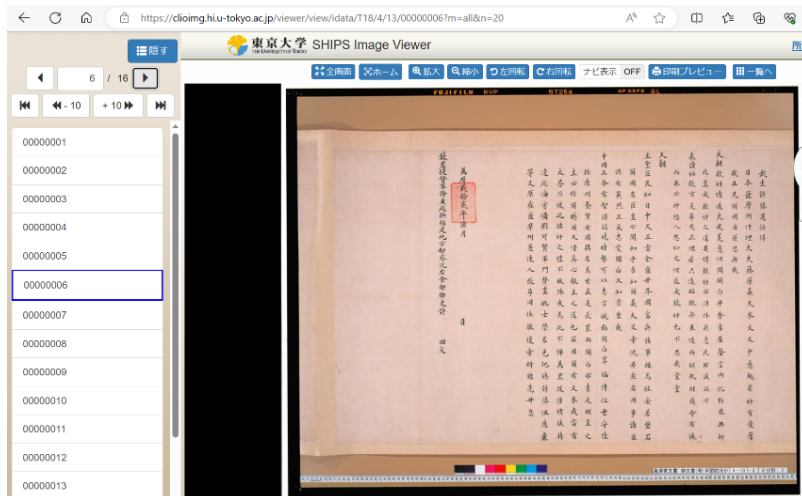
0



· 푸젠 총감 회문·격문(福建總督回文·檄文)

<https://cliomg.hi.u-tokyo.ac.jp/viewer/view/idata/T18/4/13/00000005?m=all&n=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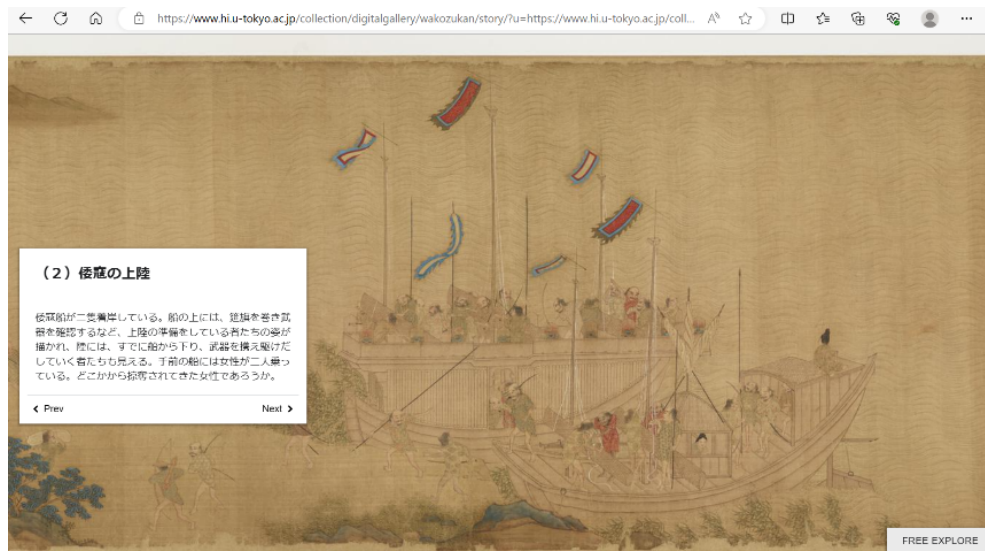
0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진보로 인해 새로운 화상 공개 방법도 가능해졌다. 「왜구 도권 디지털 아카이브(倭寇図巻デジタルアーカイブ)」는 장면을 설명하는 문장이 없는 「왜구도권」의 화상에 주석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사쿠겐 슈로 문집(策彦周良文集)」 역시 화상과 인쇄판을 병렬로 표시할 뿐만 아니라 인쇄판에 주석 표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쇼호 류큐국 그림도 디지털 아카이브(正保琉球国絵図デジタルアーカイブ)」에서는 대형 그림도의 고정밀 화상을 공개하는 것과 동시에 현대 지도와의 중첩 등의 각종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이제까지 화상만을 공개하는 방법과는 달리 데이터를 화상 위에 구축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량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연구자에게는 새로운 분석 시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초보자나 학교 교육 현장 등에서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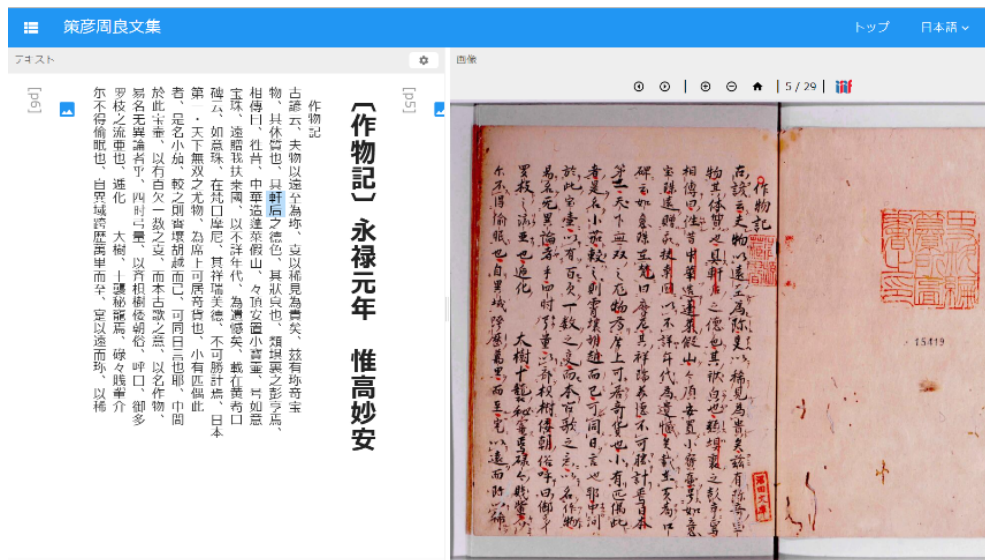
・ 왜구 도권 디지털 아카이브(倭寇図巻デジタルアーカイブ)

<https://www.hi.u-tokyo.ac.jp/collection/digitalgallery/wakozuk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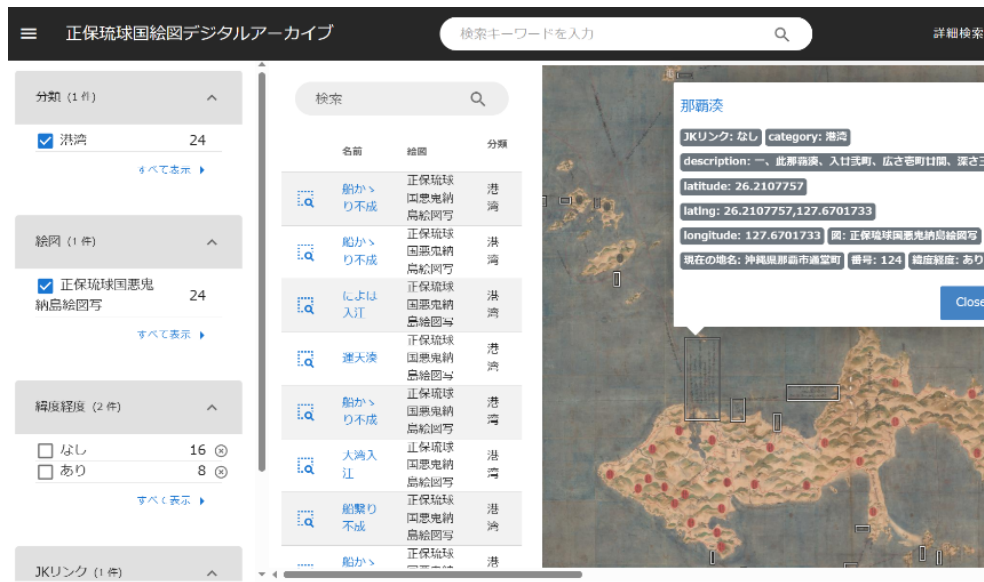
・ 사쿠겐 슈로 문집(策彦周良文集)

<https://www.hi.u-tokyo.ac.jp/collection/digitalgallery/sakugenbunshu/>



・ 쇼호 류큐국 그림도 디지털 아카이브(正保琉球国絵図デジタルアーカイブ)

<https://www.hi.u-tokyo.ac.jp/collection/digitalgallery/ryuk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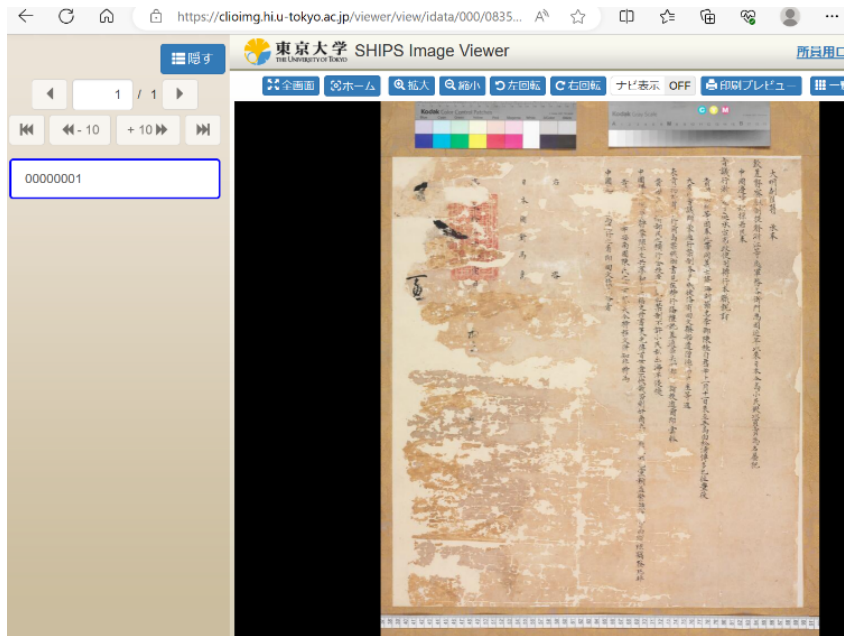
앞으로도 사료 편찬소 소장품을 중심으로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화상 공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3) 사료편찬소 소장 명조(明朝) 발급문서

이하 사료편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명조 발급 문서를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 ① 장주자문(蔣洲咨文)

<https://clioimg.hi.u-tokyo.ac.jp/viewer/view/idata/000/0835/10/00000001?m=limit&n=20>



가정(嘉靖) 35년(고지(弘治) 2년, 1556) 11월 명나라 사자 장주(蔣洲)가 '대마도' 앞으로 왜구 금압을 요구한 문서이다. 발신인 장주는 Ningbo(寧波) 출신으로 통번(通番)의 혐의로 인해 관에 구속되어 있다가 저장순무호종헌(浙江順武胡宗憲)에 기용되어 일본에 파견된 인물이다. 본문에 '작년 11월 11일 도착하는 대로 고토(五島)에 이르고, 마쓰우라(松浦)·하카타(博多)를 거쳐 이미 분고(豊後)의 오토모씨(大友氏)와 회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듯이, 1555년 11월 고토에 도착하여 마쓰우라·하카타를 거쳐 분고의 오토모씨에게 이르렀다. 당시 오토모씨의 당주인 요시시게(義鎮)는 왜구 금압을 약속하고, 사자를 명나라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성과에 따라 대마도도 왜구를 단속하라고 요구한 것이 본 문서의 취지이다. 그러나 대마도의 소씨(宗氏)가 이 요구에 응답한 흔적은 없다. 다만 조선왕조에 이러한 문서가 왔음을 보고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다.<sup>1)</sup> 가정왜구(嘉靖倭寇)의 한가운데에서 명나라 관료들이 일본의 지역 권력과 직접 왜구 금압 협상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왜구에 대한 명군의 승리를 그린 『왜구도권』과도 매우 관련이 깊은 사료이다. 전술한 「왜구도권 갤러리」 속에 원문·일본어 번역·일본어 역주·인명주를 달아두었다.<sup>2)</sup>

본 사료는 에도시대에 걸쳐 대마도의 소씨가 가지고 있었다. 메이지 11년(1878) 도쿄로 이송되어 1926년 서울로 보내져 조선사 편수회(朝鮮史編修會)가 소장하였다. 그 후의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고서점이 입수함에 따라 1977년 본소가 구입하여 소장하게 되었다. 구입 당시부터 개폐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심해 복구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 채 미정리 사료로 시간이 지났다. 2007~08년 본소의 복원실에서 습기를 머금고 진흙 상태로 있던 본 사료를 예전에 덧붙여뒀던 뒷받침 종이 등을 제거하고, 유

1) 『明宗實錄』 12年 3月 庚午條

2) <https://www.hi.u-tokyo.ac.jp/collection/digitalgallery/wakozukan/tei/>



실된 곳은 이 책의 종지와 유사한 보수용 종지로 수선하고 균열이 있는 곳은 시접 처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뒷면에 종이를 덧붙이는 등의 처리를 하여 새롭게 족자로 만들었다.<sup>3)</sup> 이를 통해 점차 관람하는 것이 가능해져 조사·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2016년에는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얼핏 보면 알 수 있듯이 본 사료는 특히 왼쪽 부분의 훼손이 심하다. ‘쫘’자가 파손된 곳에서 왼쪽 부분, 또 문자가 채워진 상태로부터 윗부분도 재단(裁断)되어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 한국 국사 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 볼 수 있는 조선사 편수회가 촬영한 사진건판의 사진<sup>4)</sup>과 현상과의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 이 재단은 그 이전의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최근 소씨 문서에서 관련 사료가 발견되면서 덴메이(天明) 5년(1785)에 일어난 수리 결과로 판명되었다.<sup>5)</sup> 즉, 본 사료는 족자로 만들어서 나무상자에 넣은 다음 소씨의 중요한 문서와 함께 궤에 넣어서 대마도 번의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몇 년간 관리하지 않은 사이에 그 궤의 나무 바닥이 썩고 그 부식 안에까지 침투해서 보관되어 있던 문서들까지 썩어 버린 것이다. 본 사료도 상당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뒷 종이를 대고 다시 표구한 결과 폭이 조금 좁아지고 말았다는 것이다.<sup>6)</sup>

부패로 인한 손상은 유감이지만 부패와 손상·수리의 경위를 알고, 수리하면서 문서의 형태가 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씨 문서라는 근세 다이묘 가문의 사료군이 갖는 강점이다. 또한 에도 후기에 편찬된 외교 문서집인 『강운수필(江雲隨筆)』이나 『속 선린국보기(續善隣國寶記)』에 수록되어 있는 본 사료의 사본에서는 현재 썩어 종이가 없어진 부분의 문자를 읽을 수 있는데, 이는 손상되기 전에 사본이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 ② 명나라 차부(明國劄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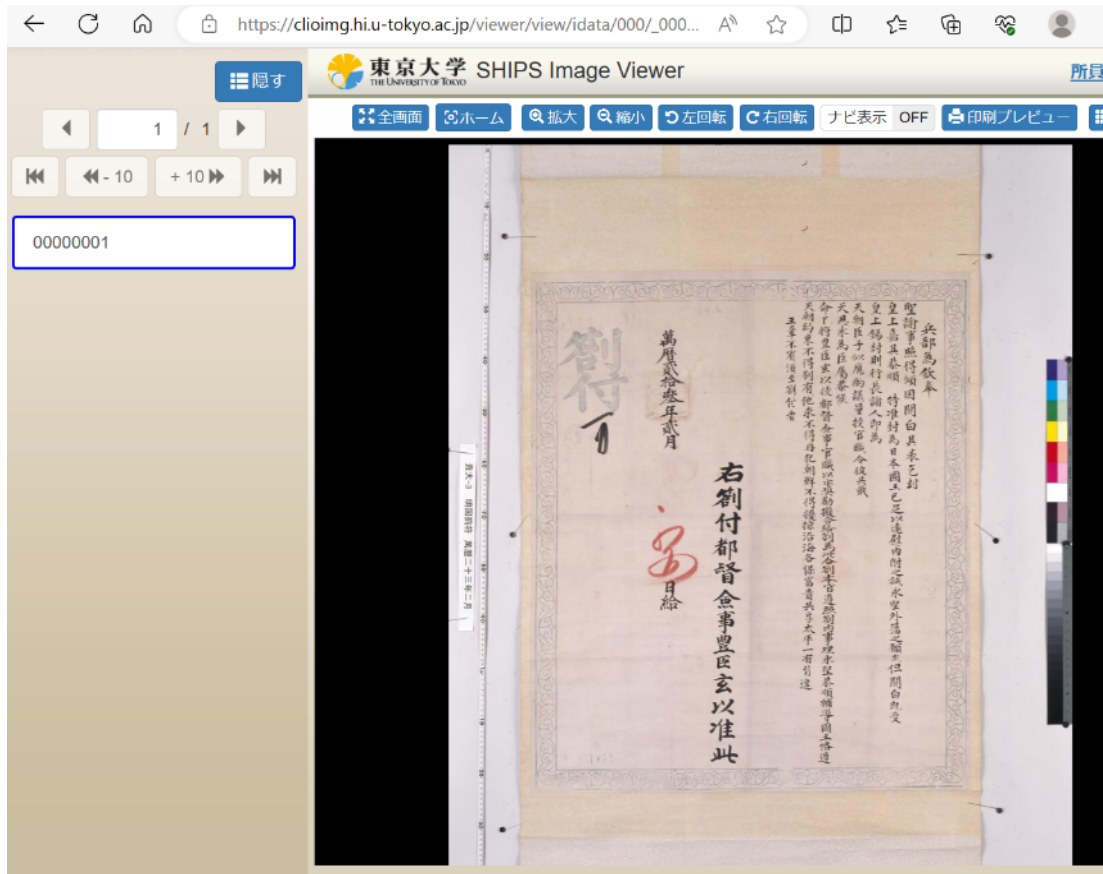
[https://clioimg.hi.u-tokyo.ac.jp/viewer/view/idata/000/\\_000kidai\\_/3/00000001?m=limit&n=20](https://clioimg.hi.u-tokyo.ac.jp/viewer/view/idata/000/_000kidai_/3/00000001?m=limit&n=20)

3) 須田牧子「蔣洲咨文について」(『東京大学史料編纂所紀要』23、2013年) <https://www.hi.u-tokyo.ac.jp/publication/kiyo/23/kiyo0023-17.pdf>

4) <https://library.history.go.kr/library-services/search/all-collections/142698?index=1>

5) 須田牧子・古川祐貴「蔣洲咨文の来歴」(『古文書研究』94、2022年)

6) 『年寄中預御書物長持入日記』(長崎県立対馬歴史センター所蔵宗家文庫史料・記録類所収)



만력(万曆) 23년(분로쿠(文祿) 4년, 1595) 2월 명나라 병부가 도요토미 겐이(豊臣玄以)(마에다 겐이, 前田玄以)에게 도독 첨사(都督僉事)로 임명한다는 뜻을 통지한 문서이다. 수집가로 알려진 간다 다카히라(神田孝平, 1830-1898)의 옛 창고에서 1926년 구입해서 본소에 소장되었다. 마에다 겐이의 혈통은 겐이의 아들 대에서 끊겼다. 셋째 아들의 집안이 에도 막부의 하타모토(旗本, 쇼군 가문의 직속 가신단 중 하나)로서 이어졌으나 혈통이 끊어진 이후 본 문서가 어떠한 변전을 거쳐 간다 다카히라의 소장이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본 문서는 임진왜란/정유재란의 시기에 발급되었다. 만력 22년(1594) 12월, 나이토 조안(内藤如安)이 베이징에 도착하면서 명나라와 도요토미(豊臣) 정권과의 평화 교섭이 본격화된다. 이때 나이토 조안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일본의 국왕으로 할 것과 도요토미 정권 하의 무장들에게 직함을 내리고 및 공명차부(空名劄付)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명나라는 다음 해인 23년 정월 7일, 영락제(永樂帝)의 선례를 따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어 12일에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마시타 나가모리(増田長盛)·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오타니 요시쓰구(大谷吉継)·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하시바 히데야스(羽柴秀保, 이후 도요토미 히데야스豊臣秀保)를 도독 첨사로, 나이토 조안을 도 지휘사로 임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본 문서는 만력 23

년 2월 4일자로 이 결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베이징을 출발한 책봉사는 서울과 부산을 거쳐 바다를 건너, 분로쿠 5년(1596) 9월 1일 오사카 성(大坂城)에서 히데요시를 만났다. 여러 장군에게 직함을 내린 것도 이때 행해졌으며, 현재 본 문서 외에 모리 데루모토·우에스기 가게카쓰(上杉景勝)를 도독 동지(都督同知)로 임명한 차부의 원본이 전존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모리 데루모토·우에스기 가게카쓰에게 보낸 차부는 본 사료와 마찬가지로 당초문(唐草文)을 섞은 장식의 테두리와 ‘箭符’의 글자를 파랗게 찍어낸 용지에 묵서한 것으로, 찍힌 자국을 관찰해본 결과 세 통은 모두 동일한 판목을 이용해 찍은 용지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구에 적힌 일자(日付)도 거의 동일하지만 관직명은 다르다. 모리 데루모토·우에스기 가게카쓰는 ‘도독 동지’(중앙 무관의 이등관, 종1품)이지만, 본소가 소장한 마에다 겐이 앞으로 온 차부는 ‘도독 첨사’(중앙 무관의 3등관, 정2품)이다. 마에다 겐이는 도요토미 정권의 이료(吏僚, 하급관리)로 단바 가메야마(丹波龜山)에 약 5만 석의 영지를 부여받았지만, 모리나 우에스기와 같은 다이묘와는 격이 달랐다. 따라서 이 격차는 이상하지 않지만, 실은 모리와 우에스기의 차부에는 고친 흔적이 있다. 모리의 「동지」, 우에스기의 「독동지」의 글자는 용지의 일부를 도려낸 후, 나중에 덧붙인 종이 조각에 써 있다. 심지어 모리의 것과 우에스기의 것은 나중에 덧붙인 종이 조각의 지질도 다르다.

원본 조사의 관찰로부터 밖에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태를 추측할 수 있다. 즉, 명나라는 『명실록(明實錄)』에서 볼 수 있듯이 모리 데루모토들에게는 도독첨사 벼슬을 주기로 하고 사령장(=차부)을 작성해 주었다. 아울러 공명차부 하사 요구에도 응하여 ‘도독첨사’ 및 도독첨사와 동격인 ‘도 지휘사’(지방 무관의 일등관, 정2품)의 공명차부를 주었다. 일본 측은 이 공명차부에 적절한 이름을 기입하여 사령서를 작성하고 데루모토와 겐이가 동격이 되지 않도록 데루모토의 차부에 세공한 것이다. 우에스기 가게카쓰는 명나라 측이 정한 관직 부여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일본 내 정권 내 질서에 따라 ‘도 지휘사’의 공명차부에 이름을 적었으나, 후에 데루모토와 동격인 ‘도독 동지’로 만들기 위해 해당 문서를 한 번 더 세공하였다. 분로쿠 5년 명나라의 신하로 직함을 부여하는 일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종의 허구 위에 성립된 것으로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까지 현존하는 세 통의 차부이다.<sup>8)</sup>

차부는 상급관에서 하급관에게 내리는 하행문서의 하나로, 관직을 수여하는 사령서로도 사용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이상과 같은 차부의 존재는 명나라 내에서 혹은 주변국에서 특수한 것인가. 애초에 사령서로서 기능하는 차부는 어떤 형태로 신청되어 발급되고 남는 것인가. 본소가 소장하는 마에다 겐이의 차부의 사료적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더욱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비교 검토 성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로 여기서는 생략할 수밖에 없으나 이것이

7) 『明實錄』 万曆 23年 正月 庚辰·乙酉条.

8) 須田牧子 「原本調査から見る豊臣秀吉の冊封と陪臣への授職」(黒嶋敏・屋良健一郎 『琉球史科学の船出』 勉誠出版、2017年)、同「豊臣秀吉冊封関係史料に紙質から迫る」(『アジア遊学』 262、2021年)

타이베이(台北) 중앙연구원에서 많은 차부 원본을 조사한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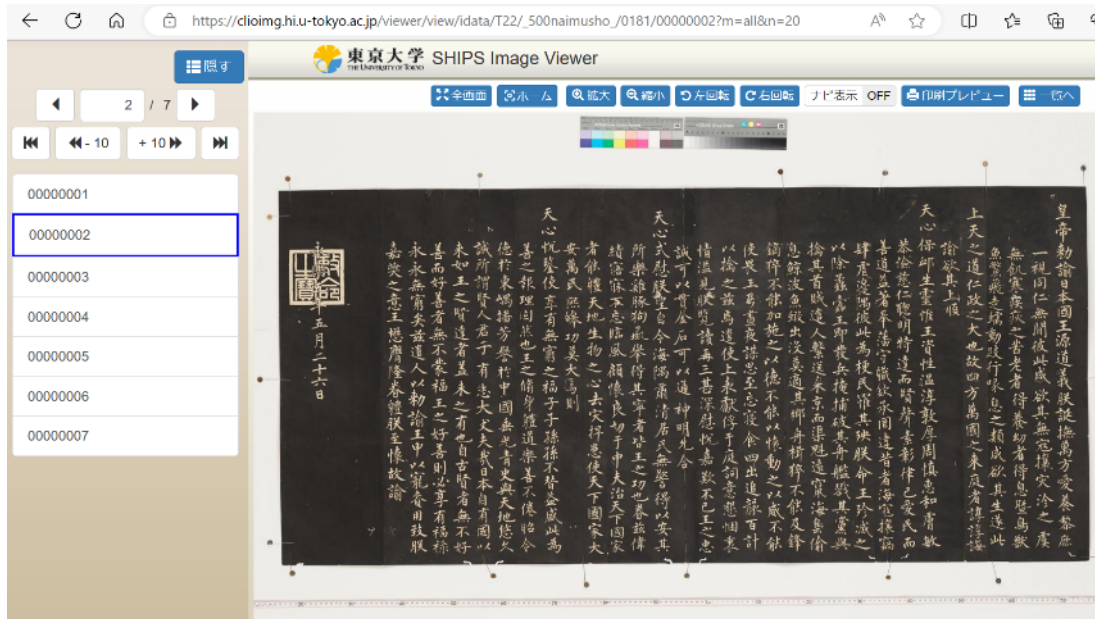
이 다음부터는 내용은 깊이 파고들지 않고 대략적으로 소장 사료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 ③ 시마즈 가문 문서 내의 명나라 발급 문서

본소가 소장하는 시마즈 가문 문서 중에는 임진왜란과 관련된 명나라의 발급 문서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다. 상세한 것은 전술하였으니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이들은 시마즈 씨가 당사자로서 원본을 받고, 문서 원본 혹은 시마즈 씨가 작성한 사본이 남은 형태인데 다음 영락제 칙유(永樂帝勅諭)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

### ④ 영락제 칙유(永樂帝勅諭)

[https://clioimg.hi.u-tokyo.ac.jp/viewer/view/idata/T22/\\_500naimusho\\_/0181/00000002?m=limit&n=20](https://clioimg.hi.u-tokyo.ac.jp/viewer/view/idata/T22/_500naimusho_/0181/00000002?m=limit&n=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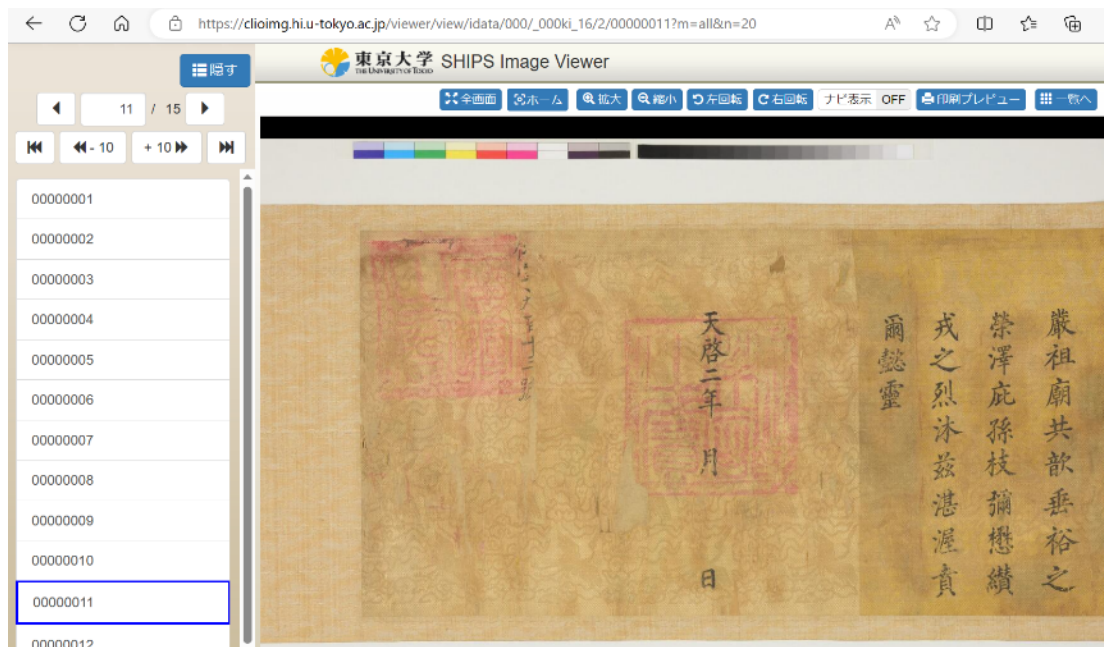
1406년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가 관리를 파견하여 왜구를 진상한 것에 대해 영락제가 이를 칭찬한 칙유의 실제 크기를 복제한 것이다. 실제 크기라고 추측하는 것은 '칙명지보(勅命之寶)'에 표시된 법량(法量)이 약 11cm×11cm로 동종 표시와 같은 법량이기 때문이다. 목판쇄로 아마 원본에서 베낀 것을 목판에 옮긴 후 음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내무성 지리국에 의해 수집되어 소장되었던 것으로, 현재는 사료편찬소가 지리국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류(주로 지도)를 일괄한 '내무성 인계 지도' 속에 분류된다. 이 영락제 칙유 판본은 그 밖에 마쓰우라 사료박물관(松浦史料博物館)·고가 역사박물관(古河歴史博物館) 등에도 소장된 것이 확인된다. 전자는 마쓰우라 세이잔(松浦静山), 후자는 콘도 주조(近藤重蔵)의 옛 창고에 있었으며 에도 후기의 호사가 네트워크 내에서의 유통·소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가 번(伊賀藩)이 영락제

칙유의 판각을 작성했다는 기록이 있으나,<sup>9)</sup> 현재로서는 그 이가 번에서 작성한 판각과 이 판본이 동일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칙유 원본은 현재 소재 불명이지만, 약 200년 전 외교문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보관되어 온 복제 덕분에 우리는 잃어버린 15세기 초의 일·명 관계의 중요 사료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은 일본에 남아 있게 된 문서들이지만, 일본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아마도 근대에 골동품으로 일본에 유입되어 온 것들도 소장되어 있다.

### ⑤ 천계제 고명(天啓帝誥命)

[https://cliomg.hi.u-tokyo.ac.jp/viewer/view/idata/000/\\_000ki\\_16/2/00000007?m=all&n=20](https://cliomg.hi.u-tokyo.ac.jp/viewer/view/idata/000/_000ki_16/2/00000007?m=all&n=20)



천계(天啓) 2년의 연기(年紀)를 지닌 고명의 원본이다. 회전(會典)의 규정대로 문서 첫머리에는 승강룡(昇降龍) 사이에 둘러싸인 '봉천고명(奉天誥命)'이라는 글자를 짜서 넣었는데, 앞부분의 승룡에 손상된 부분이 보이고 뒷부분은 이어지는 '우(友)'로 시작하는 본문이 적힌 천과는 계속된 천의 짜임새가 연속되지 않으므로 '봉천고명'의 전후가 모두 파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간중간 파손되어 있다. 따라서 이 고명이 모 씨에게 일품 부인을 유증한 문서임을 문면에서 알 수 있지만, 모 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문서의 수신처에 관한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할 부분의 파손이 의도적인 재단의 결과라는 것은 재단한 단면이 깨끗하게 꺾맨 것임을 현미경 사진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골동품으로 취급하려 한 결과일까. 본 사료는 1928년에 오사카의 실업가 도미타 센스케(富田仙助)로부터 본소 소장되었던 쓰지 센노스케(辻善之助)에게 기증되었고, 그것을 쓰지가 편찬소에 기증한 것이다. 도미타가 어디서 본 사료를 입수

9) 田中健夫編 『善隣国宝記 新訂続善隣国宝記』(集英社、1995年) p. 123.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sup>10)</sup> 또한, 명나라 발급의 칙명은 도쿄대 종합도서관(모이오가이 구장(森鷗外旧蔵))<sup>11)</sup> 등에도 남아 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사료 편찬소가 소장한 명나라 발급 문서를 소개하였다. 개별 사료 소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본 조사에서 끌어낼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많으며, 비슷한 형식의 문서와의 비교를 통해 고찰할 수 있는 내용도 풍부하다. 우리 프로젝트가 원본 조사에 기초한 명·청 공문서 비교 연구에 뜻을 둔 것은 이 때문이며 그러한 식견을 축적함으로써 개별 사료에 대해 사료가 갖는 의의를 보다 깊게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상

---

10) 이상, 상세히는 『東京大学史料編纂所研究成果報告書2021-2明清中国関係文書の比較研究—台湾所在史料を中心に』(<https://repository.dl.itc.u-tokyo.ac.jp/records/2001394>) pp. 82-83.

11) <https://iiif.dl.itc.u-tokyo.ac.jp/repo/s/chokumei/document/43f80fa0-cc5d-45fe-9dee-152196995b92#?c=0&m=0&s=0&cv=0&xywh=-679%2C11%2C3700%2C1777>

【제2발표】

## 東京大学史料編纂所所蔵の明代関係史料

須田牧子(東京大学史料編纂所准教授)

黒嶋 敏(東京大学史料編纂所准教授)

- 
- 1) 東京大学史料編纂所について
  - 2) デジタル化とWEB公開への取り組み
  - 3) 史料編纂所所蔵明朝発給文書
    - ① 蔣洲咨文
    - ② 明国笥付
    - ③ 島津家文書内の明朝発給文書
    - ④ 永楽帝勅諭
    - ⑤ 天啓帝誥命





## 「東京大学史料編纂所所蔵の明代関係史料」

須田牧子（東京大学史料編纂所准教授）

黒嶋 敏（東京大学史料編纂所准教授）

### 1) 東京大学史料編纂所について

東京大学史料編纂所は、「日本に関する史料及びその編纂の研究、ならびに研究成果による史料集出版」を行っている東京大学の附置研究所である。約50名からの教員のほか、職員や非常勤のスタッフなどを加え全体で約200名の組織である。国内外に伝わる古代から明治維新期までの史料を調査・蒐集し、史料研究を加えて、各種の史料集を刊行している。その数は、1901年に最初の史料集を刊行して以来、現在までに1200冊を超える。

史料編纂所は同時に史料保存利用機関としての機能も持っており、100年以上に亘って集積した各種史料を管理し、研究者や一般の利用者に公開している。所蔵している史料には、大きく分けて①複写本と、②原本とがある。

複写本は、史料編纂所が複写による史料蒐集を基本方針としてきたため、膨大な量の複写史料を所蔵している。その中には、災害等で原本が失われ複写本でしか伝わらないものもあり、複写本自体が貴重な文化資源になっているものも少なくない。

原本は、公家や武家に伝えられていた史料群が中核を占めており、さまざまな経緯で史料編纂所の所蔵となった。約20万点に及ぶ原本史料の中には、国宝・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貴重な史料があり、国宝1件（島津家文書…平安時代より江戸時代に至る薩摩藩島津家の文書群）、重要文化財20件（公家藤原頼長（1120-56）の日記「台記」や、大仏再建に尽力した僧重源（1121-1206）の造寺・造仏記録である「南無阿弥陀仏作善集」など）となっ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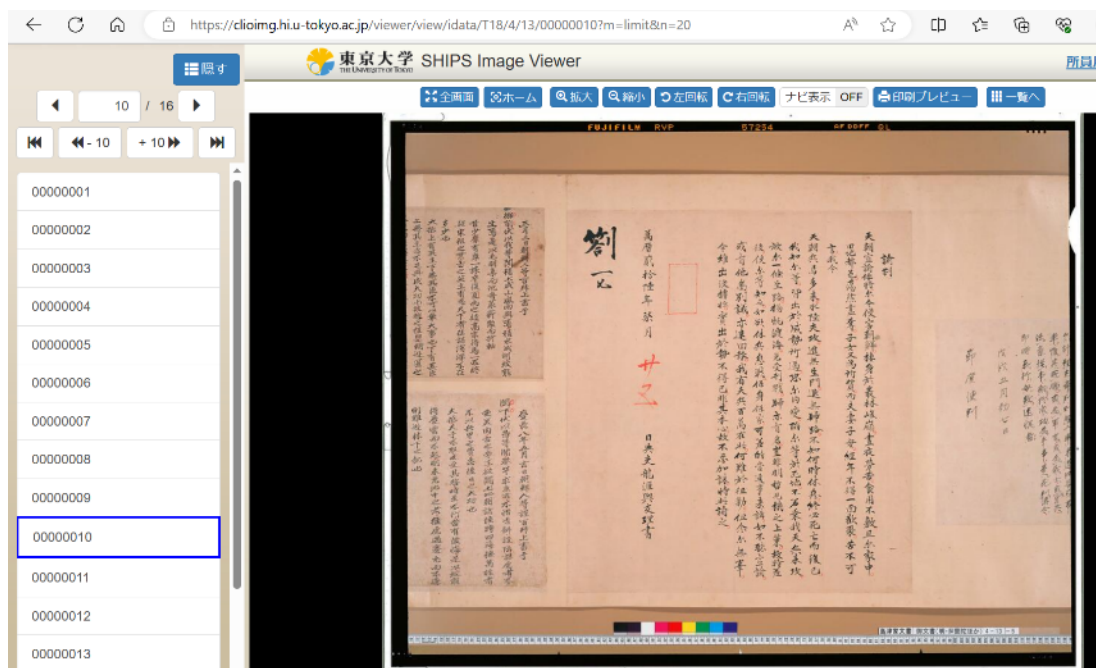
## 2) デジタル化とWEB公開への取り組み

史料編纂所では膨大な史料情報の整理と研究利用という観点から、1980年代以来、デジタル化に取り組んできた。なかでも、歴史情報システムとデータベース(約30種類)の開発と充実を進めており、現在のところ、人文系の研究所としては国内最大のデータ量(2022万件以上)・アクセス数(全世界から月間約442万件)となっている。とくに所蔵史料目録データベースでは、史料編纂所の所蔵する原本を中心に、史料画像を数多く公開している。

その一例として、島津家文書に残る明代史料を紹介したい。島津家文書は南九州の領主として中近世を生き延びた島津家に残された巨大文書群で、国宝に指定されている。そのうち、「御文書 明・阿蘭陀・朝鮮・暹羅」と題する卷子には、16世紀末から17世紀前期にかけて島津家が受け取った外国文書が入っており、壬辰丁酉倭乱の際に明軍から陣中に送られた文書の原本や精巧な写しも含まれている。これらは所蔵史料目録データベースから画像を、古文書フル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から釈文を公開し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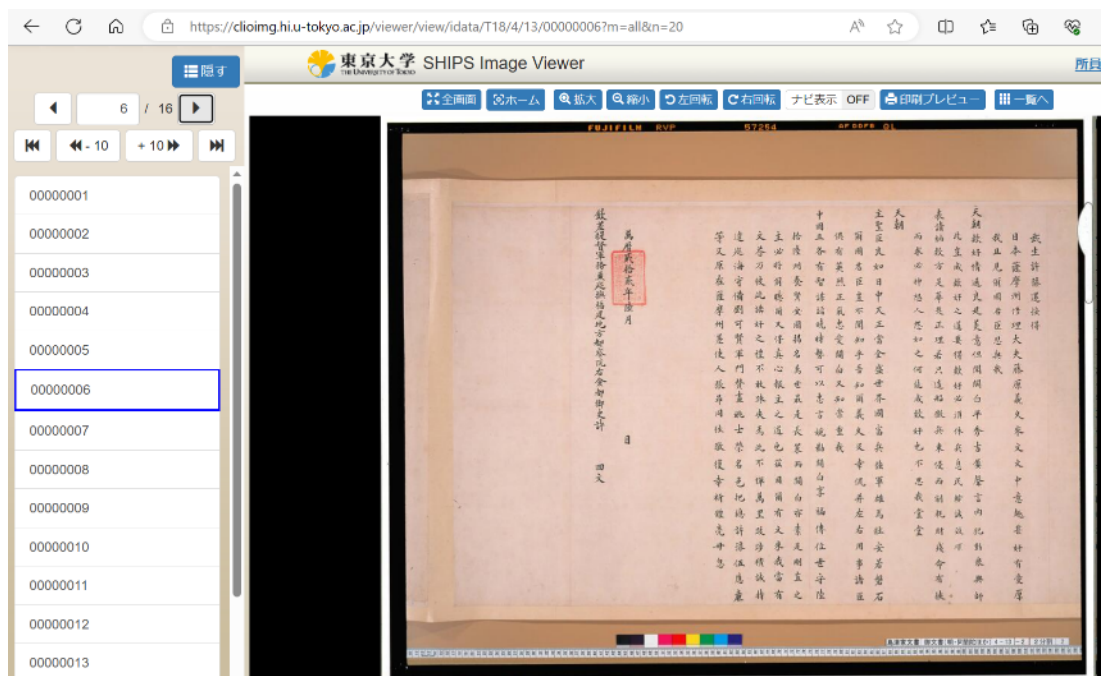
・ 箭付

<https://cliomg.hi.u-tokyo.ac.jp/viewer/view/idata/T18/4/13/00000010?m=all&n=20>



・ 福建総督回文・檄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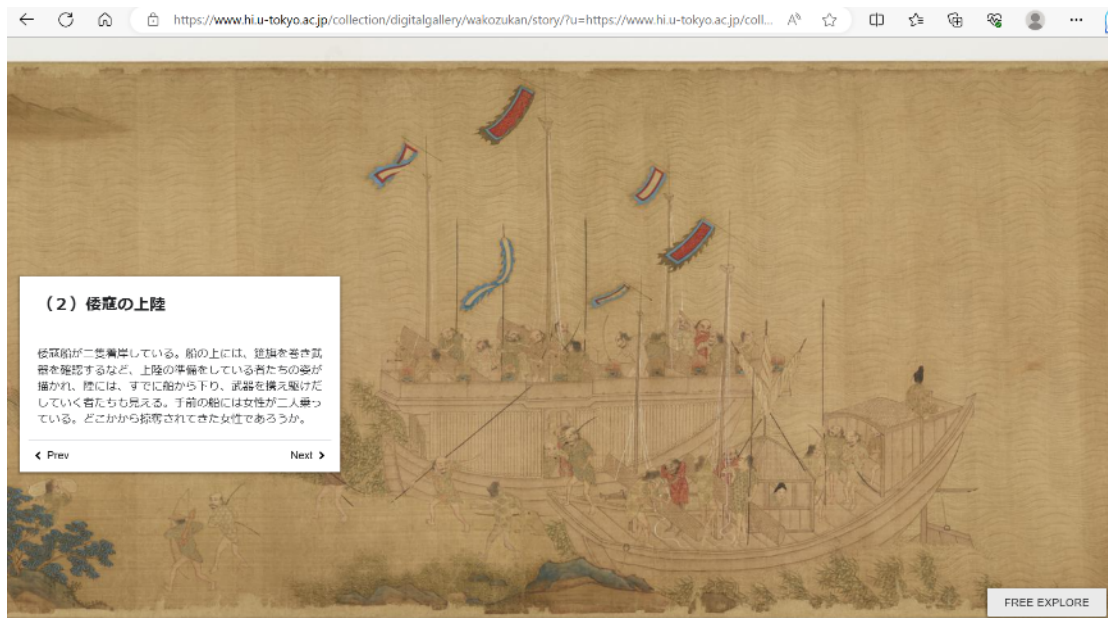
<https://cliomg.hi.u-tokyo.ac.jp/viewer/view/idata/T18/4/13/00000005?m=all&n=20>



また近年では、デジタル技術の進歩により、新たな画像公開の方法も可能となった。「倭寇図巻デジタルアーカイブ」では、場面を説明する文章が無い「倭寇図巻」に対し、画像上にアノテーションでテキストを表示できるようになった。「策彦周良文集」についても、画像と翻刻を並列表示するだけでなく、翻刻に傍注の表示機能を盛り込んでいる。さらに「正保琉球国絵図デジタルアーカイブ」では、大型絵図の高精細画像を公開するとともに、現代地図との重ね合わせなどの各種機能を搭載している。いずれも従来の画像だけを公開する方法とは異なり、データを画像上に構築することで、より多くの情報量を利用者に提供できるようになり、研究者には新たな分析視角を提供するだけでなく、初心者や学校教育の場などでの幅広い利用も期待されるものになっ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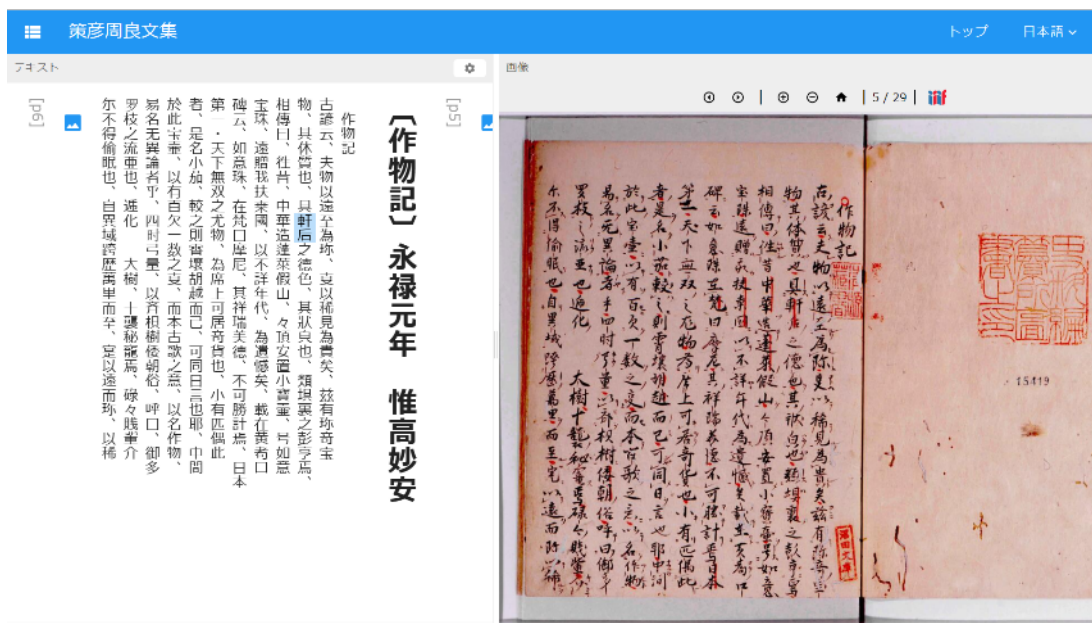
・ 倭寇図巻デジタルアーカイブ

<https://www.hi.u-tokyo.ac.jp/collection/digitalgallery/wakozukan/>



・ 策彦周良文集

<https://www.hi.u-tokyo.ac.jp/collection/digitalgallery/sakugunbunshu/>



・ 正保琉球国絵図デジタルアーカイブ

<https://www.hi.u-tokyo.ac.jp/collection/digitalgallery/ryuk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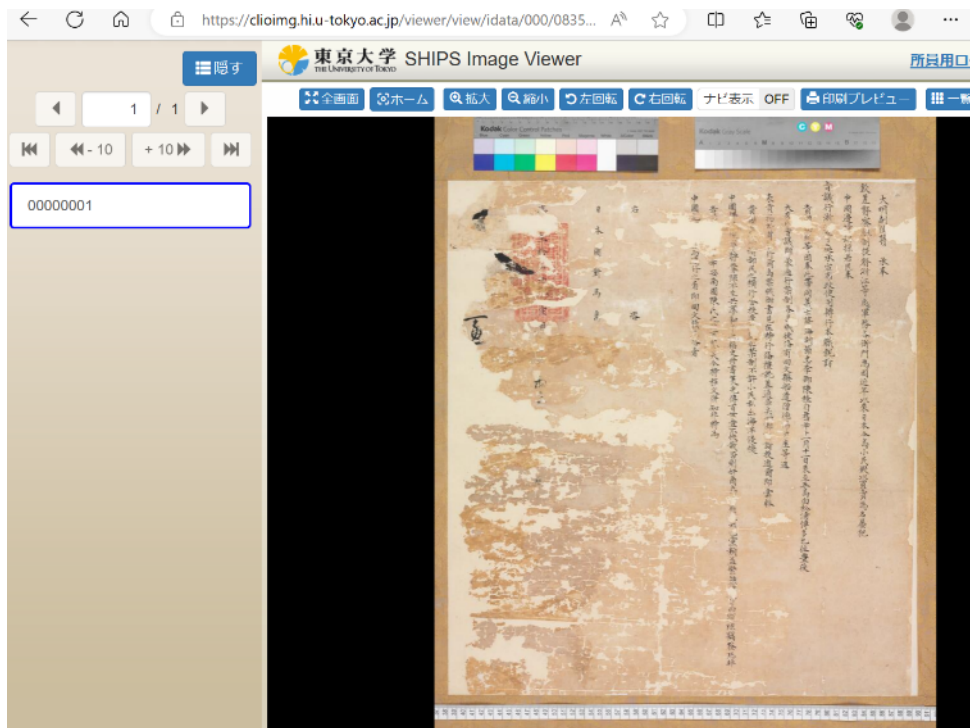
今後も、史料編纂所の所蔵品を中心に、この新しい方法での画像公開を進めていく予定である。

### 3) 史料編纂所所蔵明朝発給文書

以下、史料編纂所が所蔵する明朝発給文書をいくつか簡単に紹介していくことにしたい。

#### ① 蔣洲咨文

<https://clioimg.hi.u-tokyo.ac.jp/viewer/view/idata/000/0835/10/00000001?m=limit&n=20>



嘉靖35年（弘治2、1556）11月、明朝の使者蔣洲が「対馬島」に宛てて、倭寇禁圧を求めた文書。差出人の蔣洲は寧波出身で、通番の疑いにより官に拘束されていたところを浙江巡撫胡宗憲に起用され、日本に派遣された人物である。本文に「旧年十一月十一日、来たりて五島に至り、松浦・博多に由り、すでに豊後大友氏に往きて会議す」とあるように、1555年11月、五島に到着し、松浦・博多を経て豊後大友氏のもとに至った。当時の大友氏当主義鎮は倭寇禁圧を約束し、使者を明朝に派遣することに決した。この成果をうけ、対馬島としても倭寇を取り締まるようにと要求したのが、本文書の主旨である。しかし対馬宗氏がこの要求に応答した形跡はない。ただ朝鮮王朝にこのような文書が来た旨、報告したことが『朝鮮王朝実録』に見えている<sup>1)</sup>。嘉靖倭寇のさなかに明朝官僚が日本の地域権力と直接、倭寇禁圧交渉を試みたことを示すもので、倭寇に対する明軍の勝利を描いた『倭寇図巻』とも大変関わりの深い史料である。前述の「倭寇図巻ギャラリー」の中に原文・読み下し・日本語訳を語注・人名注を付して収めている<sup>2)</sup>。

本史料は江戸時代を通じて対馬の宗家のもとにあった。明治11年（1878）東京に移送され、1926年にはソウルに送られ、朝鮮史編修会の所蔵を経て、その後経緯は不明ながら古書店の入手するところとなり、1977年購入により本所の所蔵となった。購入当時から開閉困難なほどに痛みがひどく、修復のめどが立たないままに未整理史料として歳月を重ねた。2007～08年にかけて本所修復室において、湿気を吸って泥状を呈していた本紙から旧裏打紙等を除去し、欠失箇所は本紙に近い補修紙で繕い、亀裂箇所には折伏

1) 『明宗実録』12年 3月 庚午条

2) <https://www.hi.u-tokyo.ac.jp/collection/digitalgallery/wakozukan/tei/>

(おりぶせ)を施し、全体に裏打ちするなどの処理が行われ、新たに軸装された<sup>3)</sup>。これにより漸く展観可能となって調査・研究が進み、2016年には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た。

一見して分かる通り、本史料は特に左部分の痛みが酷い。「咨」の文字が欠損しているところから左部分、また文字の詰まり具合から天部も裁断されている可能性が想定される。韓国国史編纂委員会のデータベースに見られる朝鮮史編修会撮影のガラス乾板の写真<sup>4)</sup>と現状との差がないことから、この裁断はそれ以前のものであると考えていたが、近年宗家文書の中から関連史料が見出され、天明5年(1785)に行なわれた修理の結果であることが判明した<sup>5)</sup>。すなわち、本史料は軸装され木箱に入れられ、宗家にとって重要な文書とともに長持に入れられ、対馬島の藩の蔵で保管されていたが、数年虫干しをしないでいる間にその長持の底が朽損し、その腐食が中まで及んで、保管されていた文書類が腐ってしまった、本史料もだいぶ損害を受けていたため、裏打・表装をやり直し、その結果幅が少し狭く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のである<sup>6)</sup>。腐損は残念であるが、腐損・修理の経緯がわかり、修理の際に文書の形が改変されてしまったことが確認できるのは、宗家文書という近世大名家史料群が持つ強みである。なお江戸後期に編纂された外交文書集である『江雲隨筆』や『続善隣国宝記』に所収されている本史料の写は、現在、朽ちて紙がなくなっている部分の文字が読まれているが、これは腐損する前に写が作成されたためである。

## ②明国筋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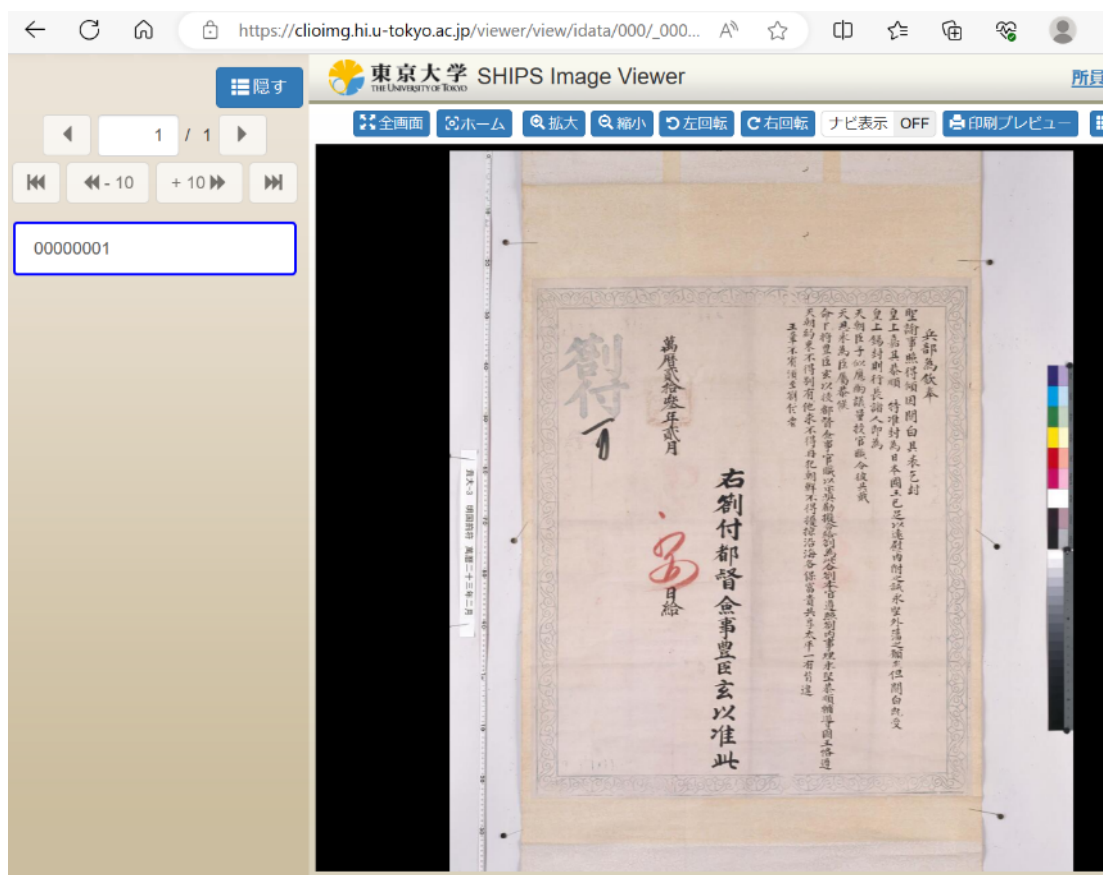
[https://clioimg.hi.u-tokyo.ac.jp/viewer/view/idata/000/\\_000kidai\\_/3/00000001?m=limit&n=20](https://clioimg.hi.u-tokyo.ac.jp/viewer/view/idata/000/_000kidai_/3/00000001?m=limit&n=20)

3) 須田牧子「蔣洲咨文について」(『東京大学史料編纂所紀要』23、2013年) <https://www.hi.u-tokyo.ac.jp/publication/kiyo/23/kiyo0023-17.pdf>

4) <https://library.history.go.kr/library-services/search/all-collections/142698?index=1>

5) 須田牧子・古川祐貴「蔣洲咨文の来歴」(『古文書研究』94、2022年)

6) 『年寄中預御書物長持入日記』(長崎県立対馬歴史センター所蔵宗家文庫史料・記録類所収)



万曆23年（文禄4、1595）2月、明朝兵部が豊臣玄以（前田玄以）に宛て、都督僉事に任じる旨を通達した文書。収集家として知られる神田孝平（1830-1898）旧蔵で、1926年、購入により本所の所蔵となった。前田玄以の嫡流は玄以の子の代で絶え、三男の家系が江戸幕府の旗本として続いたが、嫡流家が絶えてから、本文書がどのような変転を経て神田孝平の所蔵となったのかは不明である。

本文書が発給されたのは、文禄慶長の役/壬辰丁酉倭乱のはざまの時期である。万曆22年（1594）12月、内藤如安が北京に到着し、明朝と豊臣政権による和平交渉が本格化する。この際、内藤如安は、豊臣秀吉を日本国王にすること・豊臣政権下の武将への授職および空名箭付の交付を要求した。これをうけて明朝は、翌23年正月7日永楽帝の先例に倣い豊臣秀吉を日本国王とする決定を下し、ついで12日には小西行長・宇喜多秀家・増田長盛・石田三成・大谷吉継・徳川家康・毛利輝元・羽柴秀保を都督僉事に、内藤如安を都指揮使に任じる決定を下した<sup>7)</sup>。本文書は万曆23年2月4日付であり、この決定を受けていることがわかる。北京を出立した冊封使はソウル・釜山を経由して渡海し、文禄5年（1596）9月1日に大坂城で秀吉と会見した。諸将への授職もこの時に行なわれ、現在、本文書のほか、毛利輝元・上杉景勝を都督同知に任じた箭付の原本の伝存が確認されている。

7) 『明実録』万曆23年 正月 庚辰・乙酉条。



この毛利輝元・上杉景勝宛の笥付は本史料と同様、唐草文をあしらった飾り枠線と「笥付」の文字を青く刷りだした用紙に墨書したもので、刷り痕の観察から、3通はすべて同一の版木を用いて刷った用紙を使用しているものと推定される。文言日付もほぼ同一だが、官職名は異なる。毛利輝元・上杉景勝は「都督同知」(中央の武官の二等官、従一品)だが、本所所蔵の前田玄以宛笥付は「都督僉事」(中央の武官の三等官、正二品)である。前田玄以は豊臣政権の吏僚で、丹波亀山に約5万石の所領を与えられていたが、もちろん毛利・上杉といった大大名とは格が違う。したがってこの格差は不思議ではないのだが、実は毛利・上杉宛笥付には改変の痕がある。毛利の「同知」、上杉の「督同知」の文字は、用紙の一部を削り抜き、あとからそこに貼り付けた紙片に書かれている。しかも毛利と上杉とでは後補の紙片の紙質も異なるのである。

原本調査の観察からしか得られないこれらの情報を整理すると次のような事態が想定される。すなわち、明朝は『明実録』に見られるように、毛利輝元等には都督僉事の官職を与えることとし、辞令書(笥付)を作成して与えた。さらに空名笥付下賜要求にも応え、「都督僉事」、ならびに都督僉事と同格の「都指揮使」(地方の武官の一等官、正二品)の空名笥付を与えた。日本側はこの空名笥付に適宜名前を記入して辞令書を作成し、輝元と玄以が同格にならないよう、輝元の笥付に細工を施した。上杉景勝は明朝側が定めた官職付与の対象者ではなかったが、日本国内の政権内秩序に基づいて、「都指揮使」の空名笥付に名前を書き込んだが、のちに輝元と同格の「都督同知」にすべく、当該文書にさらに細工を施した。文禄5年の明朝の陪臣授職とは、こうして作られた、ある種の虚構のうえに成立したものであり、その実態を示すのが今に現存する3通の笥付なのである<sup>8)</sup>。

笥付は上級官から下級官にむけて出される下行文書の一つで、官職を授与する辞令書としても用いられたとされるものだが、以上のような笥付のありようは、明朝国内で、あるいは周辺諸国において特殊なのか否か、そもそも辞令書として機能する笥付は、どのような形で申請され、発給され、残るのだろうか。本所所蔵の前田玄以宛笥付の史料的意味をより深く理解していくためには、こうした点をさらに追究していく必要がある。具体的な比較検討の成果の詳細は時間の関係でここでは省略せざるをえないが、これが台北の中央研究院で多くの笥付原本を調査させていただいた所以である。

ここからはあまり内容には踏み込まず、ざっと所蔵史料の紹介をしていくことにしたい。

### ③島津家文書内の明朝発給文書

本所所蔵の島津家文書中には壬辰丁酉倭乱に係る明朝発給文書が複数含まれている。詳細は前述したのでここでは省略する。これらは島津氏が当事者として原本を受取り、文書原本、あるいは島津氏が作成した写が残った形だが、次の永楽帝勅諭は少し事情が

8) 須田牧子「原本調査から見る豊臣秀吉の冊封と陪臣への授職」(黒嶋敏・屋良健一郎『琉球史科学の船出』勉誠出版、2017年)、同「豊臣秀吉冊封関係史料に紙質から迫る」(『アジア遊学』262、2021年)

異なる。

#### ④永楽帝勅諭

[https://clioimg.hi.u-tokyo.ac.jp/viewer/view/idata/T22/\\_500naimusho\\_/0181/00000002?m=limit&n=20](https://clioimg.hi.u-tokyo.ac.jp/viewer/view/idata/T22/_500naimusho_/0181/00000002?m=limit&n=20)



1406年足利義満が遣使して倭寇を献じたのに対し、永楽帝がこれを嘉した勅諭の原寸大の複製。原寸大との想定は、「勅命之寶」印の法量が約11cm×11cmと、同種の印と同じ法量であることによる。木版刷りで、おそらく原本からの敷き写しを木版に転写、陰刻したものと想定される。もと内務省地理局により収集され所蔵されていたもので、現在は史料編纂所が同局から引継いだ資料類(主として地図)を一括した「内務省引継地図」のうちに分類される。この永楽帝勅諭の刷本は、ほかに松浦史料博物館・古河歴史博物館などにも所蔵されていることを確認している。前者は松浦静山、後者は近藤重蔵の旧蔵であり、江戸後期の好事家ネットワークのなかでの流通・所有が想定される。なお伊賀藩が永楽帝勅諭の板刻を作成していたという記録があるが<sup>9)</sup>、今のところ、その伊賀藩作成板刻とこれら刷本が同一のものかどうかは明確ではない。勅諭原本は現在所在不明であるが、約200年前、外交文書に関心を持つ人々によって作られ保管されてきた複製のお蔭で、我々は失われた15世紀初頭の日明関係の重要史料の形態を知ることが出来るのである。

以上は日本に残るべくして残った文書だが、このほかに日本とは全く関係がなく、おそらく近代に骨董品として日本に流入してきたものも所蔵されている。

9) 田中健夫編『善隣国宝記 新訂続善隣国宝記』(集英社、1995年)123頁。

### ⑤天啓帝誥命

[https://cloimg.hi.u-tokyo.ac.jp/viewer/view/idata/000/\\_000ki\\_16/2/00000007?m=all&n=20](https://cloimg.hi.u-tokyo.ac.jp/viewer/view/idata/000/_000ki_16/2/00000007?m=all&n=20)



天啓2年の年紀を持つ誥命原本。会典の規定通り、文書の冒頭には昇降龍に取り巻かれた「奉天誥命」の文字を織り出すが、前部の昇龍には欠損が見られ、後部は続く「友」から始まる本文が書かれた布地とは織目が連続しないので、「奉天誥命」の前後はともに欠損していることが知られる。また中途にも欠損がある。そのためこの誥命が某氏に一品夫人を遺贈した文書であることは文面から知ることが出来るものの、某氏が誰なのか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文書の宛先に関する情報が書き込まれているはずの部分の欠損が意図的な断裁の結果であることは、断裁した切り口を綺麗にかがった顕微鏡写真からうかがえる。骨董品として扱おうとした結果なのであろうか。本史料は1928年に大阪の実業家富田仙助より本所の所長であった辻善之助に寄贈され、それを辻が編纂所に寄贈したものである。富田がどこで本史料を入手したのかは不明である<sup>10)</sup>。なお、明朝発給の勅命は東京大学総合図書館(森鷗外旧蔵)<sup>11)</sup>などにも残されている。

以上、簡単ながら史料編纂所所蔵の明朝発給文書を紹介した。個別の史料紹介で述べたように、原本調査から引き出せる情報は非常に多く、かつ同様の形式の文書との比較から考察できる内容も豊富である。我々のプロジェクトが原本調査に基づく明清公文書の比較研究を志したのはこのためであり、またそうした知見を積み重ねることにより、個別の史料について、史料が持つ意義をより深めることができたとと言える。

10) 以上詳細は『東京大学史料編纂所研究成果報告書2021-2明清中国関係文書の比較研究—台湾所在史料を中心に』(<https://repository.dl.itc.u-tokyo.ac.jp/records/2001394>)82-83頁。

11) <https://iiif.dl.itc.u-tokyo.ac.jp/repo/s/chokumei/document/43f80fa0-cc5d-45fe-9dee-152196995b92#?c=0&m=0&s=0&cv=0&xywh=-679%2C11%2C3700%2C1777>

以上

## 【 토론문2】

### 「東京大学史料編纂所所蔵の明代関係史料」コメント

劉序楓(中央研究院)

須田先生と黒嶋先生の報告では、東京大学史料編纂所の歴史・沿革及び所蔵の史料を分かりやすく紹介してくださいました。

私は編纂所の仕事や史料の所蔵状況などはあまり詳しく知りませんが、利用者の立場から個人の感想を述べさせていただきたいです。

今日の報告の主な内容は史料編纂所の沿革、所蔵史料の紹介のほか、われわれ利用者にとって最も関心のあるのはデータベースの公開でしょう。史料編纂所は周知のように、日本屈指の資料所蔵機関で、現在約20万点に及ぶ原本史料のほか、膨大な量の複製史料を所蔵しています。編纂所では1980年代以来、資料のデジタル化に取り組んできて、現在約30種類の史料、画像、辞書のデータベースがWEBで公開されています。現在のところ、人文系の研究所としては日本国内最大のデータ量となっているようです。データベースは単なる資料の検索、画像の公開だけでなく、複数の機能を搭載していますので、利用者にとってありがたいことです。

次に今回のシンポジウムの主題の「明清公文書」に入りますと、編纂所所蔵明朝発給文書5点を取り上げ、すなわち、①嘉靖35年(1556)蔣洲咨文、②万暦23年(1595)明国劄付、③16世紀末から17世紀前期にかけて島津家が受け取った外国文書「御文書明・阿蘭陀・朝鮮・暹邏」と題する卷子に収めている福建巡撫の回文と檄文、④永楽5年(1407)の永楽帝勅諭(の木版刷りの複製)、⑤天啓2年(1622)の誥命で、それぞれの内容および編纂所入蔵の経緯を紹介くださいました。

時間の関係で繰り返して説明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が、利用者の立場から伺いたいことがあります。

#### まずは、データベース検索の問題：

例えば、④「永楽帝勅諭」、登録の題名は「永楽五年(應永十四年)明国書拓本」で、キーワード「勅諭」で検索する場合、この「永楽帝勅諭」は出て来ないです。

⑤「天啓帝誥命」の場合も同様、登録の題名は「明天啓帝制誥零文」で、「誥命」で検索する場合、この「天啓帝の誥命」はヒットしないので、利用者にとって不便になりますが、な

にか改善出来る方法があればありがたいです。

なお、箱書の題名「明天啓帝制誥零文」ですが、「零文」の意味は「残片」と解釈してよろしいでしょうか。

次に③島津家文書内の明朝発給文書ですが、巻物の表題は「御文書 明・阿蘭陀・朝鮮・暹邏 十八通」ですが、実際十通しか入っていません。ほかの八通は現存しているでしょうか。不明な部分は、別巻になり、または「天啓帝誥命」のように裁断された可能性はあるでしょうか。

なお、この巻物には原本も写本も入っていますが、明朝発給文書の「檄文」と「回文」は原本のように見えますが、発給者の許孚遠は福建「総督」ではなく、「巡撫」です。（提督軍務兼巡撫福建地方）そのうちの秀吉宛の「檄文」は実際秀吉に献上したでしょうか。

この史料は当時の島津氏が独自の外交活動を行っていたことを裏付けるものとして興味深いです。

【제3발표】

조선시대 공문서의 압인 방법  
-동아시아 고문서학의 시점에서-

아라키 가즈노리(규슈대)

---

머리말

1. 조선 초기의 국왕문서·관문서
2. 황제문서와 국왕문서의 압인 방법

맺는말





# 조선시대 공문서의 압인 방법

## -동아시아 고문서학의 시점에서-

아라키 카즈노리(규슈대)

### 머리말

2018년, 「일본의 중세 문서: 기능과 형태, 그리고 국제 비교」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그 당시 발표자는 해당 박물관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국제비교' 부분의 전시 구성을 담당했다. '물품'(실물)로서의 고문서를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그 '모양'(형태)에서 비문자 정보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가 요구되었던 것이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문서의 어디에 착안하여 비교하면 좋을지 처음에는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래저래 도판을 바라보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공문서의 공인公印을 낱자 어디에 찍느냐'라는 소박한 의문이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15세기부터 17세기 전반에 걸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문을 살펴보면 중국 명조의 연호 또는 주변 여러 나라의 독자적인 연호가 사용되고, 그 연호에 겹치는 형태로 공인이 찍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자 두 글자로 표기되는 연호 중에 어느 글자에 겹쳐 압인하는지(첫 번째 글자에 겹칠지, 두 번째 글자에 겹칠지)라는 관점에서 비교해보니 동아시아 국가마다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제1자에 찍은 것은 명의 황제문서, 류큐의 관문서(사령서), 제2자에 찍은 것은 명의 관문서, 조선의 국왕문서와 관문서, 안남 여조安南黎朝의 대일본 외교서한, 후금 홍타이지의 대명 외교서한, 일본 무로마치室町 장군의 대류큐琉球 서장 등이 있다. 사소한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호는 왕권의 이념을 표현하는 것이자 황제가 시간을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임을 표상하는 것이기에 '동아시아 고문서학'에서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조선 시대 공문서의 압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문서'와 '공인'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공문서'는 국왕문서, 관문서 및 사인私人 간의 왕복문서라는 체재를 취하는 외교서한(일본과 조선을 오간 '서계書契')을 가리키며, '공인'은 이에 찍힌 인장(관인官印과 '도서圖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조선 전기의 국왕문서와 관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조선 초기의 국왕문서·관문서

조선 시대의 국왕문서·관문서를 관찰하면,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찍힌 공인은 방인方印이며, 붉은 인니印泥를 사용하여 날짜에 겹쳐 찍혀 있다. 공인의 법량法量(크기)은 국왕인이 가장 크고, 관인은 국왕인보다 작으며, 또한 관부의 품계가 내려가면서 더 작아지는 것도 ‘당연’함에 속하는 지식일 것이다. 그러나 압인이 명의 연호의 제1자에 겹쳐져 있는지 제2자에 겹쳐져 있는지(예를 들어 ‘영락永樂’ 연호라면 ‘영’자와 ‘락’자 가운데 어느 쪽에 겹쳐져 있는지) 하는 것은 거의 의식되지 않았던 듯하다. 국왕문서와 관문서의 현존 사례 대부분이 제2자에 겹쳐 압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고문서의 비교’라는 관점을 도입하면, 그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기에 ‘왜 조선 시대 국왕문서·관문서는 명의 연호 제2자에 겹쳐 압인했는가’를 물을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한 압인 방법(압인의 위치)과 관련한 규정을 찾아보면, 『경국대전』 예전禮典 잡례雜例 문무관 4품 이상 고신식告身式(교지教旨)에 ‘연<보>월일年<寶>月日’이라고만 있을 뿐, 연호의 제1자와 제2자 중에 어디에 겹칠 것인가를 명기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조선의 문서 작성자에게도 압인 방법은 ‘당연’에 속하는 실무적 지식이기에 굳이 법문 속에 명기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국왕문서·관문서에 찍힌 인영印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중세 문서」 전시회 도록에서, 명의 황제문서에서는 제1자에 겹쳐 압인된 반면에 조선의 국왕문서·관문서에서는 제2자에 겹쳐 압인되어 있어, 조선 왕조가 명 황제를 꺼려 의도적으로 제2자에 겹쳐 압인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시하면서, 공인의 압인 방법에 대한 비교 검토의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었다.

이 제언을 받아들여 고려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공문서 압인 방법을 분석한 것이 카와니시 유야川西裕也이다. 카와니시는 2021년의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연구보고』 224호에 게재한 논문 「고려-조선 초기 공문서에서 압인의 위치에 대하여」에서 발표자의 제언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 1) 고려 시대부터 조선 건국 초기까지는 연호에 겹쳐 압인하는 것을 피하고 있었다.
- 2) 태조6(홍무洪武30, 1397)년 이후에는 연호에 겹쳐 압인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 3) 태종16(영락永樂14, 1416)년 이후, 국왕문서는 연호 제1자 또는 제2자에 겹쳐 압인하고, 관문서는 연호 제2자에 겹쳐 압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 4) 세종7(홍희洪熙원, 1425)년, 홍희제 봉어와 선덕宣德제 즉위를 계기로 세종이 명에 파견한 하등극사통사賀登極使通事 김을현金乙玄은 왕들의 표문表文 부분副本의 인영은 ‘홍희’의 ‘희’ 자에서 반쯤 나와 있다고, 즉 연호 제2자에 겹쳐 압인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발표자의 제언이 고려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문서에까지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로부터 지적받은 꼴이 되어 부끄럽지만, 제2자에 겹쳐 압인하는 방법이 조선 시대를 관통하는 ‘당연’한 것은 아니었음이 판명된 셈이며, 조선 고문서학에서도

‘동아시아 고문서학’에서도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카와니시는 상술한 것 이상은 언급하지 않고 금욕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태종대에서 세종대까지 명 연호의 제1자와 제2자 가운데 어디에 겹쳐 압인하느냐에 동요가 있었음은 해당 시기 조선 국왕의 예제禮制 상의 위상에도 동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카와니시는 2019년 『사림史林』 70호에 실린 논문 「고려 공민왕대 발급 정광도鄭光道 교서敎書의 재검토: 파스파문자 부마고려국 왕인의 압인 사례」에서 현존하는 공민왕 교서(태자묘 소장)가 〈모본模本〉이며, 소재불명의 원본은 1915년과 1933년 촬영된 유리건판사진을 통해 확인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모본의 인영이 ‘지정至正’ 연호의 ‘정’ 자와 겹쳐져 있는 반면에, 원본의 인영은 ‘지정20년’의 ‘년’자에 겹쳐 있음을 지적했다. 제2자에 겹쳐 압인한다는 조선 시대 공문서에 관한 ‘당연’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려 시대 공문서의 압인 방법은 기이하게 비쳐졌고, 〈모본〉을 작성하면서 압인의 위치를 ‘당연’한 것으로 바꾸는 작위作爲를 행하였던 것일까. 아무튼 압인 방법의 정확한 파악이 고문서의 진위 판별에 기여하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 2. 황제문서와 국왕문서의 압인 방법

애초에 명의 황제문서·관문서 압인 방법은 어떠했을까. 현존 사례를 모두 망라하는 것은 발표자의 능력을 초월하기에, 시도로서 왕홍천王宏鈞 주편 『중국국가박물관관장 문물연구 총서中國國家博物館藏文物研究叢書』 명칭안당안권明清案檔案卷 명대明代 (상해고적, 2006), 중국제1역사당안관·요녕성당안관 편찬 『중국명조당안총회中國明朝檔案總匯』1 (광서사범대학출판사, 2001), 리광타오李光濤 편찬 『명칭당안존진선집明清檔案存眞選輯』1·3 (중앙연구원역사언어연구소, 1959),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연구성과보고 2021-2 『명칭중국 관계문서의 비교 연구: 대만 소재 사료를 중심으로』(연구대표자: 와타나베 미키渡辺美季, 2021)를 참조한 결과, 【표 1】과 【표 2】의 통계를 얻었다.

【표 1】 명대 황제문서의 압인 위치

연호	제1자	제1자 아래	제2자	제2자 아래
홍무洪武			1	1
영락永樂	4			
선덕宣德	3			
정통正統	2	1		
성화成化			1	
홍치弘治	2			
정덕正德	1	1		
만력萬曆	6			
천계天啓	3			
승정崇禎	4	1		

\* 해당 문서의 양식은 고명誥命·칙서勅書·칙유勅諭이다.

**【표 2】 명대 관문서의 압인 위치**

연호	제2자	제2자 아래	연수年數 아래
영락永樂			1
가경嘉靖			1
만력萬曆	4	2	1
천계天啓	4		
승정崇禎	11		4

\* 해당 문서의 양식은 제본題本·주본奏本·제행고題行稿·당보塘報·신申·첩帖·세표稅票·청단清單이다.

홍무 연간에는 황제인의 압인 위치가 낮은 경향이 있었으나, 영락 연간 이후에는 제1자에 겹쳐 압인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리고 홍치 연간 이후에는 제1자로 거의 고정화된 것으로 보인다. 관문서에 대해서는 그 사례 수가 적고 문서 양식이 다양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홍무 연간부터 가정 연간까지는 연호를 피해 연도숫자 이하에 압인하는 사례뿐이며, 만력 연간 이후에는 제2자에 겹치는 사례와 제2자의 아래쪽을 문지르듯 겹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세부적인 검토는 앞으로의 과제이지만, 황제인과 관인의 압인 위치가 의식적으로 구별되었음은 분명하며, 그 구별이 이루어지게 된 시기가 영락 연간일 것이라는 견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조선의 국왕문서·관문서 압인 방법은 어떠한가. 이에 대해서도 현존 사례를 모두 망라하는 것은 발표자의 능력을 초월하므로, 시도로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 편찬한 『한국고문서정선韓國古文書精選』 1~6(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을 참조한 결과, 【표 3】과 【표 4】의 통계를 얻었다.

**【표 3】 조선 국왕문서의 압인 위치**

국왕	연호	제1자	제1자 아래	제2자	제2자 아래	연수年數
태조	홍무洪武				3	9
정종	건문建文			1		
태종	건문 홍무洪武 영락永樂	1	1	1 8	1	1 1 4
세종	영락 홍희洪熙 선덕宣德 정통正統	1		1 9 7	2	1
문종	경태景泰	1		1		
단종	경태			3		
세조	경태天順 천순天順 성화成化	2	1	2 14 6		
예종	성화	1		2		
성종	성화 홍치弘治			36 8	2 1	2
연산군	홍치			4		
중종	정덕正德 가경嘉靖			2 4		

선조	만력萬曆			12		
광해군	만력 천계天啓	1	1	10		1
인조	천계 송정崇禎		1	9 2		

\* 해당 문서의 양식은 고신告身·왕지王旨·교지教旨·영지令旨·홍패紅牌·백패白牌·교서教書·유서諭  
書이다.

【표 4】조선 관문서의 압인 위치

국왕	연호	제1자	제1자 아래	제2자	제2자 아래	연수年數
세종	영락永樂			3		5
	홍희洪熙			1		
	선덕宣德			2	2	1
	경태景泰			1		
문종	경태		1	2	1	
단종	경태			5		1
세조	경태			1		1
	천순天順			10		1
	성화成化			1		
예종	성화			1		
성종	성화			5	1	1
	홍치弘治			1	2	1
중종	가경嘉靖			2		
인종	가경	1				
선조	용경隆慶			1		
	만력萬曆		1	11		
광해군	만력		1	5		2
인조	천계天啓		1	4		
	송정崇禎	2				

\* 해당 문서의 양식은 조사문서朝謝文書·5품 이하 고신五品以下告身·녹패祿牌·유지有  
旨·유령有令·첩정牒문·관關·첩帖이다.

조선 초기 국왕문서에 대해 카와니시의 지적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태조대(홍무 연간)에는 제2자 아래 또는 연도숫자에 겹쳐 압인하는 사례뿐이다.
- 2) 정종대(건문 연간)에 제2자에 겹쳐 압인한 사례가 나타난다.
- 3) 태종대 최초 시기(건문 연간)에는 제1자, 제1자 아래, 제2자, 연도숫자에 겹친  
압인 사례가 나타나, 압인 위치(높이)의 변동이 크다.
- 4) 태종대 대부분(영락 연간)에서는 제2자, 제2자 아래, 연도숫자와 같이 압인의  
위치가 하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제2자에 겹친 압인 사례가 가장 많다.
- 5) 세종대 이후에는 제1자에서부터 연도숫자까지 변동이 있지만, 제2자에 겹친 압인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제1자 4.0%, 제1자 아래 2.0%, 제2자 88.0%, 제2자 아래  
3.3%, 연수 2.7%).

태조대(홍무 연간)에 제2자 아래 내지는 연도숫자에 겹친 압인 사례가 많은 것은

홍무제의 황제인이 제2자 또는 제2자 아래에 겹쳐 찍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황제와 국왕의 명분상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압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종대부터 태종대 초반 즉 건문 연간에 압인 위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정난의 변靖難之變(건문제와 연왕燕王=영락제의 권력 투쟁)으로 인한 황제 권위의 동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태종대(영락 연간)에 압인의 위치가 하강하고 그 후 제2자에 겹친 압인 사례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영락 연간 이후 황제인을 제1자에 겹쳐 찍는 것이 정착되면서 황제와 국왕의 명분상 차이를 재정의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카와니시의 지적을 감안한다면,

- 1) 영락제 치하에서 압인과 관련한 예제禮制 정비가 진행되면서 황제인은 연호 제1자에 겹치고 왕인王印들은 제2자에 겹쳐 찍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 2) 해당 예제는 이를 현지에서 관찰한 견명사절遣明使節을 매개로 조선에 파급되었다.
- 3) 태종·세종대에 조선 국왕은 황제와의 명분상 차이를 고려하여 제2자에 겹쳐 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조선 국내에서 국왕과 신하의 명분상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라는 가설이 도출된다. 그 타당성 검증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지만, 압인 방법에 관한 사례를 추가하고, 나아가 명·조선의 예제禮制를 폭넓게 그리고 동태적動態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

한편 세종대(정통 연간) 이후에도 국왕문서와 관문서 모두에 제1자와 제1자 아래에 겹쳐 압인한 사례가 산견된다. 특히 광해군대에서 인조대(만력·천계·승정 연간)에 걸쳐 이러한 <예제禮制>에서 벗어난 압인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먼저 진위 판별의 레벨에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왜 <예제>를 벗어난 압인 방법이 채용되었는지, 그 정치적·이념적 배경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대명 관계에서 황제와 국왕의 명분적 관계의 동요 또는 문서 양식의 차이(국왕문서 7례 중에 3례는 유서諭書의 양식이다) 등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맺는말

발표자의 전문 분야는 어디까지나 일본 중세사이다. 일본·조선 교류사(동아시아 교류사)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조선 시대의 왕권과 예제禮制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에 본고에서 제시한 견해는 빛나간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조선 시대의 공문서를 ‘동아시아 고문서학’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문외한의 중립적인 시각에서 ‘당연’함을 의심하는 것)에는 일정한 방법론적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역사학 연구의 기본인 문자 정보(텍스트)의 실증적 분석과는 괴리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물품'으로서의 고문서가 문자 정보와 비문자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 이상, 후자를 배제하고 이해할 수는 없다. 물론 '물품'으로서의 관찰에 근거한 비문자 정보의 추출·분석은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화된다면, 무기질적인 즉물적 연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풍부한 역사상을 그려내기 위한 방법론으로 다듬어 나가야 한다. 발표자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과제이지만, 동아시아 공문서 압인 방법의 비교는 이를 위한 조그마한 시도다.

## 참고문헌

- 荒木和憲「公印を日付のどこに押すのか?」( 国立歴史民俗博物館編 『日本の中世文書』 2018年 )
- 荒木和憲「中世日本の往復外交文書」( 小島道裕・田中大喜・荒木和憲編 『古文書の様式と国際比較』( 勉誠出版、2020年 )
- 荒木和憲「中世日本往復外交文書の様式論的研究」(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224、2021年 )
- 川西裕也「高麗恭愍王代發給鄭光道教書の再検討—パクパ字駙馬高麗國王印の押印事例—」( 『史林』70、2019年、韓国語 )
- 川西裕也「高麗—朝鮮初期の公文書における押印の位置について」(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224、2021年 )
- 東京大學史料編纂所研究成果報告2021-2 『明清中國關係文書の比較研究—臺灣所在史料を中心に』( 研究代表者：渡辺美季、2021年 )



【제3발표】

朝鮮時代公文書の押印方法  
—東アジア古文書学の視点から—

荒木和憲（九州大学）

---

はじめに

1. 朝鮮初期の国王文書・官文書
2. 皇帝文書と国王文書の押印方法

おわりに



# 朝鮮時代公文書の押印方法 —東アジア古文書学の視点から—

荒木和憲（九州大学）

## はじめに

2018年、「日本の中世文書—機能と形と国際比較—」と題する展覧会が国立歴史民俗博物館で開催された。当時、報告者は同館に在職しており、「国際比較」の部分の展示構成を担当した。「モノ」（実物）としての古文書をいかに観察するか、その「形」（形態）から非文字情報をいかに抽出するかが求められたわけであるが、東アジア諸国の古文書のどこに着眼して比較すればよいのか、当初は皆目見当がつかなかった。しかし、あれこれと図版を眺めているうちに、ふと思いついたのが、「公文書の公印を日付のどこに押すのか」という素朴な疑問である。

「あたりまえ」のことではあるが、15世紀から17世紀前半にかけての東アジア諸国の公文書を見渡せば、中国明朝の年号または周辺諸国の王朝の独自の年号が使用されており、その年号に重ねるかたちで公印が押されているものが多い。しかし、漢字2字で表記される年号のどちらの文字に重ねて押印するのか（第1字に重ねるのか、第2字に重ねるのか）という観点で比較すると、東アジア諸国で違いがあることに気づいた。第1字に重ねるのは明の皇帝文書、琉球の官文書（辞令書）、第2字に重ねるのは明の官文書、朝鮮の国王文書・官文書、安南黎朝の対日本外交書簡、後金のホンタイジの対明外交書簡、日本の室町将軍の対琉球書状、といった具合である。些細な違いにすぎないと思われるかもしれないが、年号が王権の理念を表現するものであり、かつ皇帝が時間を支配する絶対的存在であることを表象するものであるからには、「東アジア古文書学」において追究すべき課題であるといえよう。

本報告においては、朝鮮時代の公文書の押印方法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公文書」と「公印」を明確に定義づけることは難しいが、ひとまず「公文書」は国王文書、官文書、および私人間の往復文書という体裁をとる外交書簡（日朝間を往復した「書契」）を指すものとし、「公印」はそれらに押された印章（官印と「図書」）を指すものとする。そのなかでも、朝鮮前期の国王文書と官文書を中心に考えていきたい。

## 1. 朝鮮初期の国王文書・官文書

朝鮮時代の国王文書・官文書を観察すると、「あたりまえ」のことではあるが、そこに

押された公印は方印であり、朱の印泥を用い、日付に重ねられている。公印の法量（サイズ）については、国王印が最大であること、官印は国王印よりも小さく、かつ官府の品階が下るにつれて小さくなることも、「あたりまえ」に属する知識であろう。しかし、押印が明年号の第一字に重ねられているのか、第二字に重ねられているのか（例えば、「永楽」年号であれば、「永」字と「楽」字のどちらに重ねられ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は、ほとんど意識されてこ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国王文書・官文書の現存事例のほとんどにおいて、第二字に重ねて押印されているため、それが「あたりまえ」のこととして疑われることはなかったであろう。しかし、「東アジア古文書の比較」という視点を導入すると、それが決して「あたりまえ」のことではなくなるのであり、「なぜ朝鮮時代の国王文書・官文書は明年号の第二字に重ねて押印するのか」を問う必要が生じるのである。

そうした押印方法（押印の位置）にかかわる規定があるのかといえ、『経国大典』礼典・雑例・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教旨）に「年〈宝〉月日」とあるのみで、年号の第一字と第二字のどちらに重ねるのかを明記した規定は見出せない。朝鮮の文書作成者にとっても、押印方法は「あたりまえ」に属する実務的知識なのであって、わざわざ法文のなかに明記するまでも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あろう。それゆえ、現存する国王文書・官文書の印影の観察が重要となる。「日本の中世文書」展の図録においては、明の皇帝文書では第一字に重ねて押印されるのに対し、朝鮮の国王文書・官文書では第二字に重ねて押印されることから、朝鮮王朝が明の皇帝に憚り、意図的に第二字に重ねて押印するという方法を採用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見通しを提示し、公印の押印方法をめぐる比較検討の必要性を提言したのである。

こうした提言を受け止め、高麗時代から朝鮮初期にかけての公文書の押印方法を分析したのが川西裕也氏である。川西氏は2021年の『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224号に掲載された論文「高麗-朝鮮初期の公文書における押印の位置について」において、報告者の提言を批判的に検証し、以下の知見を提示した。

- 1) 高麗時代から朝鮮建国当初にかけては、年号に重ねて押印することを避けていた。
- 2) 太祖6年（洪武30・1397）以降は年号に重ねて押印する事例が増加する。
- 3) 太宗16年（永楽14・1416）以降、国王文書は年号第一字または第二字に重ねて押印し、官文書は年号第二字に重ねて押印するという傾向がみられる。
- 4) 世宗7年（洪熙元・1425）、洪熙帝崩御と宣徳帝即位をうけ、世宗が明に派遣した賀登極使通事金乙亥は、諸王の表文副本の印影は「洪熙」の「熙」字から半ば出ていた、すなわち年号第二字に重ねて押印していたことを報告している。

報告者の提言が高麗時代から朝鮮初期にかけての文書にまで目配りできていないことを専門家から指摘された恰好であり、恥じ入るばかりであるが、第二字に重ねて押印する方法が朝鮮時代を通貫する「あたりまえ」でなかったことが判明したわけであり、朝鮮古文書学にとっても、「東アジア古文書学」とにとっても重要な成果といえる。川西氏は上記以上のことは述べず、禁欲的な姿勢をとるわけであるが、太宗代から世宗代にかけて

、明年号の第一字と第二字のどちらに重ねて押印するのかわかりにくいことは、当該期に朝鮮国王の礼制上の位置づけが揺らいでいたことを示唆する。

なお、川西氏は2019年に『史林』70号に掲載された論文「高麗恭愍王代発給鄭光道教書の再検討—パクパ字駙馬高麗國王印の押印事例—」において、現存する恭愍王教書（太子廟所蔵）が〈模本〉であること、所在不明の原本については1915年と1933年に撮影されたガラス乾板写真によって確認され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なかで、模本の印影が「至正」年号の「正」字に重ねられているのに対し、原本の印影は「至正二十年」の「年」字に重ねられていることを指摘した。第二字に重ねて押印するという朝鮮時代の公文書に関する「あたりまえ」の知識を有する者にとっては、高麗時代の公文書の押印方法は奇異に映り、〈模本〉を作成するにあたって、押印の位置を「あたりまえ」のものに改変するという作為を施したということであろうか。ともあれ、押印方法の正確な把握が古文書の真偽判別に資する一例といえる。

## 2. 皇帝文書と国王文書の押印方法

そもそも、明の皇帝文書・官文書の押印方法はあったのだろうか。現存事例を全て網羅することは報告者の能力を超えるので、試みに、王宏鈞主編『中国国家博物館蔵文物研究叢書』明清案檔案卷・明代（上海古籍、2006年）、中国第一歴史檔案館・遼寧省檔案館編『中国明朝檔案総匯』1（広西師範大学出版社、2001年）、李光濤編『明清檔案存真選輯』1・3（中央研究院歴史語言研究所、1959年）、東京大学史料編纂所研究成果報告2021-2『明清中国関係文書の比較研究—台湾所在史料を中心に—』（研究代表者：渡辺美季、2021年）を参照したところ、【表1】【表2】のような統計を得た。

【表1】明代皇帝文書の押印位置

年号	第一字	第一字下辺	第二字	第二字下辺
洪武			1	1
永楽	4			
宣徳	3			
正統	2	1		
成化			1	
弘治	2			
正徳	1	1		
万暦	6			
天啓	3			
崇禎	4	1		

\* 該当文書の様式は誥命・勅書・勅諭である。

【表2】明代官文書の押印位置

年号	第二字	第二字下辺	年数以下
永楽			1

嘉靖			1
万曆	4	2	1
天啓	4		
崇禎	11		4

\* 該当文書の様式は題本・奏本・題行稿・塘報・申・帖・税票・清單である。

洪武年間において、皇帝印の押印位置は低い傾向にあるが、永楽年間以降は第一字に重ねて押印する傾向が強まる。そして、弘治年間以降は第一字にほぼ固定化したとみられる。官文書については、事例数が少なく、かつ文書様式が多岐にわたる点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ので、洪武年間から嘉靖年間までは年号を避けて年数以下に押印する事例のみであり、万曆年間以降は第二字に重ねる事例、および第二字の下辺を擦るように重ねる事例もみられる。細かい検討は今後の課題であるが、皇帝印と官印の押印位置が意識的に区別されていたことは明らかであり、その区別がなされるようになった時期が永楽年間であるとの見通しが得られるのである。

一方、朝鮮の国王文書・官文書の押印方法はどうか。これについても、現存事例を全て網羅することは報告者の能力を超えるので、試みに韓国学中央研究院蔵書閣編『韓国古文書精選』1～6（韓国学中央研究院出版部、2012年）を参照したところ、【表3】【表4】のような統計を得た。

【表3】朝鮮国王文書の押印位置

国王	年号	第一字	第一字下辺	第二字	第二字下辺	年数
太祖	洪武				3	9
定宗	建文			1		
太宗	建文 洪武 永楽	1	1	1 8	1	1 1 4
世宗	永楽 洪熙 宣徳 正統	1		1 9 7	2	1
文宗	景泰	1		1		
端宗	景泰			3		
世祖	景泰 天順 成化	2	1	2 14 6		
睿宗	成化	1		2		
成宗	成化 弘治			36 8	2 1	2
燕山君	弘治			4		
中宗	正徳 嘉靖			2 4		
宣祖	万曆			12		
光海君	万曆 天啓	1	1	10		1
仁祖	天啓 崇禎		1	9 2		

\* 該当文書の様式は告身・王旨・教旨・令旨・紅牌・白牌・教書・諭書である。

【表4】朝鮮官文書の押印位置

国王	年号	第一字	第一字下辺	第二字	第二字下辺	年数
世宗	永楽			3		5
	洪熙			1		
	正統			2	2	1
	景泰			1		
文宗	景泰		1	2	1	
端宗	景泰			5		1
世祖	景泰			1		1
	天順			10		1
	成化			1		
睿宗	成化			1		
成宗	成化			5	1	1
	弘治			1	2	1
中宗	嘉靖			2		
仁宗	嘉靖	1				
宣祖	隆慶			1		
	万曆		1	11		
光海君	万曆		1	5		2
仁祖	天啓		1	4		
	崇禎	2				

\* 該当文書の様式は朝謝文書・五品以下告身・祿牌・有旨・有令・牒呈・関・帖である。

朝鮮初期の国王文書について、川西氏の指摘を踏まえつつ、より細かくみると、以下の知見が得られる。

- 1) 太祖代（洪武年間）においては、第二字下辺または年数に重ねて押印する事例のみである。
- 2) 定宗代（建文年間）において、第二字に重ねた押印事例が現れる。
- 3) 太宗代の最初期（建文年間）においては、第一字・第一字下辺・第二字・年数に重ねた押印事例がみられ、押印の位置（高さ）の揺らぎが大きい。
- 4) 太宗代の大部分（永楽年間）においては、第二字・第二字下辺・年数というように、押印の位置が下降する傾向がみられ、第二字に重ねた押印事例が最多となる。
- 5) 世宗代以降においては、第一字から年数まで揺らぎがあるものの、第二字に重ねた押印事例が圧倒的に多い（第一字：4.0%、第一字下辺：2.0%、第二字：88.0%、第二字下辺：3.3%、年数：2.7%）。

太祖代（洪武年間）において第二字下辺ないし年数に重ねた押印事例が多いのは、洪武帝の皇帝印が第二字ないし第二字下辺に重ねて押されていることを踏まえ、皇帝と国王との名分上の差異を考慮し、相対的に低い位置に押印したためであると考えられる。

定宗代から太宗代の最初期、すなわち建文年間に押印位置が上昇する傾向にあることは、靖難の役（建文帝と燕王＝永楽帝との権力闘争）による皇帝権威の動揺が影響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

太宗代（永楽年間）に押印の位置が下降し、その後、第二字に重ねた押印事例が圧倒

的多数を占めることは、永楽年間以降、皇帝印を第一字に重ねて押すことが定着していくなかで、皇帝と国王との名分上の差異を再定義した結果であると考えられる。川西氏の指摘を踏まえるならば、

- 1) 永楽帝の治下において、押印にかかわる礼制の整備が進行し、皇帝印は年号第一字に重ね、諸王印は第二字に重ねて押す事例が増加した。
- 2) 当該の礼制は、それを実地に観察してきた遣明使節を媒介として朝鮮に波及した。
- 3) 太宗・世宗代において、朝鮮国王は皇帝との名分上の差異を考慮し、第二字に重ねて押印することを基本とした(朝鮮国内における国王と臣下との名分上の差異は捨象した)。

という仮説が導かれる。その当否の検証は今後の課題とせざるを得ないが、押印方法に関する事例を追加するだけでなく、明・朝鮮の礼制を幅広く、かつ動態的に比較検討することが必要不可欠となろう。

一方、世宗代(正統年間)以降においても、国王文書・官文書ともに第一字・第一字下辺に重ねた押印事例が散見される。とくに光海君代から仁祖代(万暦・天啓・崇禎年間)にかけては、そうした<礼制>から逸脱した押印事例が増加する傾向にある。まずは真偽判別のレベルから検討する必要があるわけであるが、その上で、なぜ<礼制>を逸脱する押印方法が採用されたのか、その政治的・理念的背景を追究する必要がある。対明関係における皇帝と国王との名分的関係の揺らぎ、あるいは文書様式の相違(国王文書7例のうち3例は諭書の様式である)などの観点から検討すべきであろう。

## おわりに

報告者の専門は、あくまで日本中世史である。日朝交流史(東アジア交流史)を標榜してはいるが、朝鮮時代の王権・礼制にかかわる問題については門外漢であり、本報告で提示した見通しは的外れであ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ながら、現存する朝鮮時代の公文書を「東アジア古文書学」の観点から検討すること(門外漢ならではのニュートラルな視点から「あたりまえ」を疑うこと)には一定の方法論的な有効性が認められよう。

とはいえ、歴史学研究の基本である文字情報(テキスト)の実証的分析からは乖離しているとみる向きもあるだろう。しかし、現存する「モノ」としての古文書が文字情報と非文字情報から成り立っているからには、後者を削ぎ落として理解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もちろん、「モノ」としての観察にもとづく非文字情報の抽出・分析は、「方法」なのであって「目的」ではない。もしそれが目的化するならば、無機質な即物的研究であるとの誹りを免れまい。あくまで豊かな歴史像を紡ぐための方法論として鍛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報告者の能力を遥かに超える課題ではあるが、東アジア公文書の押印方法の比較は、そのためのささやかな試みである。



## 参考文献

- 荒木和憲「公印を日付のどこに押すのか？」(国立歴史民俗博物館編『日本の中世文書』2018年)
- 荒木和憲「中世日本の往復外交文書」(小島道裕・田中大喜・荒木和憲編『古文書の様式と国際比較』(勉誠出版、2020年)
- 荒木和憲「中世日本往復外交文書の様式論的研究」(『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224、2021年)
- 川西裕也「高麗恭愍王代発給鄭光道教書の再検討—パクパ字駙馬高麗國王印の押印事例—」(『史林』70、2019年、韓国語)
- 川西裕也「高麗—朝鮮初期の公文書における押印の位置について」(『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224、2021年)
- 東京大学史料編纂所研究成果報告2021-2『明清中国関係文書の比較研究—台湾所在史料を中心に』(研究代表者：渡辺美季、2021年)



### 【토론문3】

## 아라키 카즈노리(荒木和憲), 「조선시대 公文書의 押印 방법 -동아시아 고문서학의 관점에서-」에 대한 토론문

權奇奭(東國大學校 文化學術院)

이번 발표문은 고문서가 물품으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고 문서에 기록된 문자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그러한 ‘非文字情報’ 중 하나로서 공문서의 公印이 押印되어 있는 위치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고문서의 문자 정보만을 판독하는 기존 연구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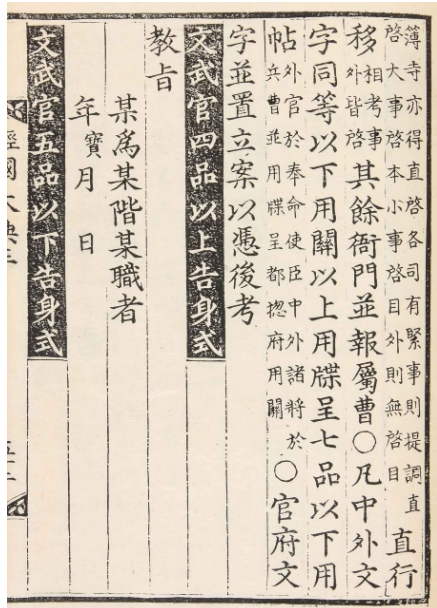
그런데 압인 위치에 대한 연구는 문자화된 정보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압인 위치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도 대표적인 어려운 점 중 하나입니다. 발표자도 지적인 것처럼 압인 방법을 상세히 明文化한 규정을 찾기 어려우며, 이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일정한 관행에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발표자의 통계 분석을 통해서 장기간 지속된 압인 방식이 있었고, 시기에 따른 변화도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압인 위치의 변화 혹은 지속 현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제관계에서 구현되는 禮制 등과 같은 역사적 주제와 연관 지어 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더해주는 것은 각국의 압인 방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朝鮮과 明은 정기적으로 使行 문서를 주고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문서의 양식이나 작성 방식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 관계가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카와니시 유야(川西裕也) 선생이 적시한 바와 같이, 1425년(世宗 7) 通事 金乙玄이 명에 다녀온 뒤 보고한 사례에서 드러나듯 조선 측에서 중국에서 통용되던 방식에 관심을 갖고 참고하려 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론자의 전공 분야는 고문서학이 아니며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문서 형식에 대해서는 더욱 문외한입니다만, 조선시대 연구자로서 발표문을 읽고 떠올린 의문점이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문에서 주로 다루는 시기는 ‘조선전기’이지만, 압인의 관행은 장기적인 연속성과 함께 시기별 차이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시기의 사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조선후기 및 대한제국 시기의 압인 사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발표문에 그림이 없어서 발표문 통계에서 제시한 압인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는지 읽는 입장에서 불분명한 면이 있다. '제1자'와 '제2자'가 연이어서 쓰여 있는 이상 '제1자 아래'는 사실상 '제2자'에 겹쳐지게 찍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2. 발표자는 조선 국왕인(또는 관인)이 명 황제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찍어 황제와 국왕의 명분상 차이를 반영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추측이 가설의 수준을 벗어나려면 압인 위치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나 지침을 찾아내거나 압인 위치에 대한 당시인의 관념을 보여주는 언급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우선 명에서 皇帝印을 제1자에 찍고, 官印은 제2자에 찍게 된 것이 '禮制'로서 규정된 것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는 조선에서 압인 위치를 정말로 '명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는지도 실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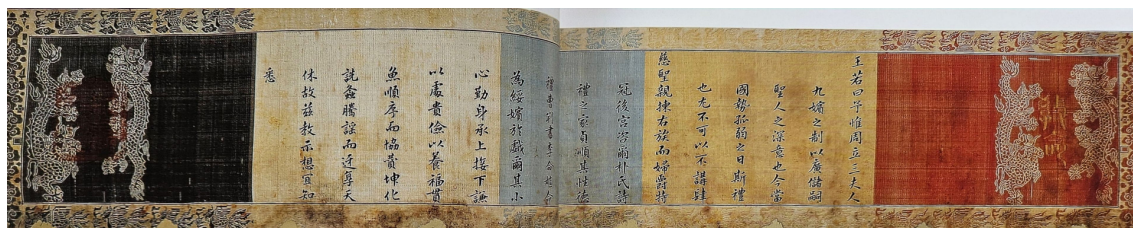
[그림 2] 『經國大典』 卷3 禮典,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 서울대학교奎章閣韓國學研究院, 奎1298

그런데 발표자가 조선에서 압인 방법(위치)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한 『經國大典』 禮典,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의 '年寶月日' 부분은 연호에 인장을 겹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은 주고 있는 규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바로 연도 부분(○○年)을 중심으로 御寶를 압인하라는 지침인 것이다. '숫자+年' 부분을 중심으로 압인할 경우 문서 작성자의 관습이나 인장의 크기에 따라 연호를 비껴갈 수도 있고 연호의 일부 글자를 가릴 수도 있을 것인지만, 『경국대전』의 편찬자들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할 필요는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쩌면 압인을 담당할 실무자도 연도에 맞추어 압인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연호를 얼마나 가리게 될지는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3. '年號' 그 자체가 尊崇의 대상이기 때문에 압인을 그보다 낮춘 것인지, 아니면 연호 유무와 관계없이 행의 시작보다 압인 위치를 낮추도록 규정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洪武 연간에 자주 보이듯 명분상 降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황제인도 연호보다 낮게 압인되는가 하면, 명분상 황제보다 하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명의 관인과 조선국왕인도 연호의 일부분(제2자)을 가린 채로 압인되었다. 연호는 황제가 시간을 지배한다는 상징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避諱 또는 極行에 올려 기재해야 할 대상이 되지 않았고, 公私文書에 별다른 금기나 규제 없이 일상적으로 기입되었다. 이

와 관련하여 다음 압인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3-1. 조선후기 敎命에서 淸의 연호 없이 干支만 기재한 경우에도 간지의 제1자보다는 제2자 쪽에 겹치게 압인하였다. 이는 압인 위치가 연호를 의식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저 연호가 있든 없든 연도 부분에만 압인 위치를 맞추려 했던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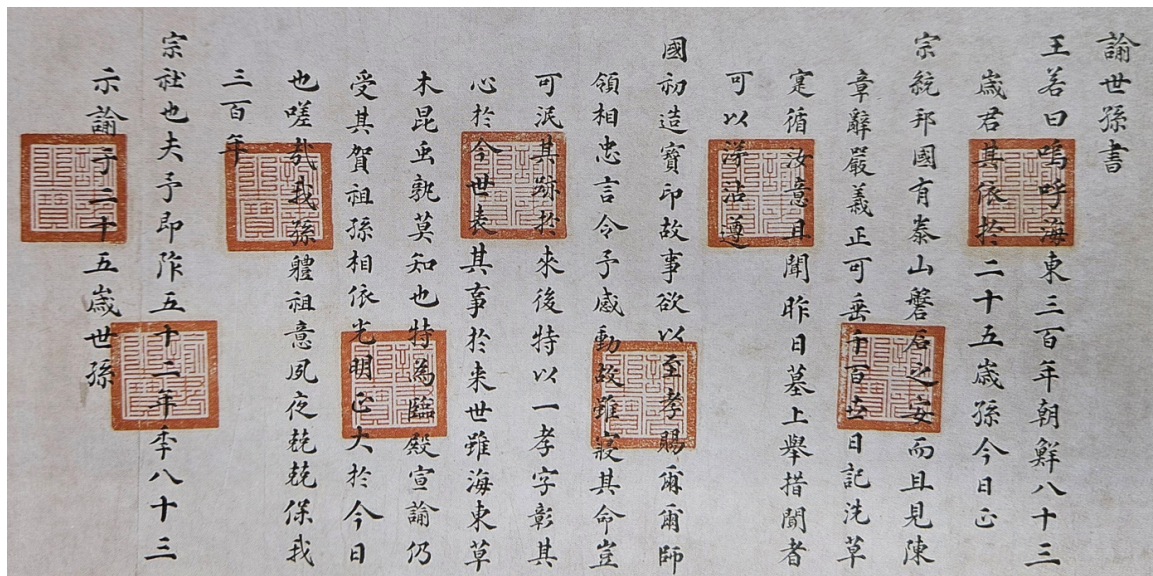
[그림 3] 綏嬪朴氏冊封敎命, 1787年(正祖 11), 國立中央博物館



[그림 4] 上同文書, 押印 부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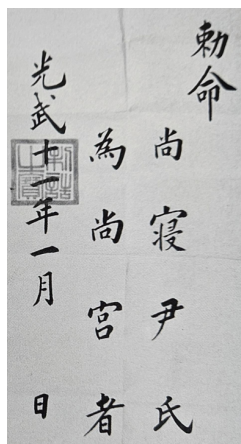
3-2. 국왕이 '予卽阡〇年'이라고 하며 국왕 본인의 在位紀年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압인 위치가 '予' 또는 '予卽阡' 부분을 침범하지 않고 연도 부분까지 하강하였다. 국왕 자신이 自稱인 '予'를 존숭의 대상으로 여길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황제의 연호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는 '予卽阡'를 피하여 의도적으로 낮은 위치('五十二年' 부분)에 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또한 압인 위치를 설정하면서 禮制 상의 명분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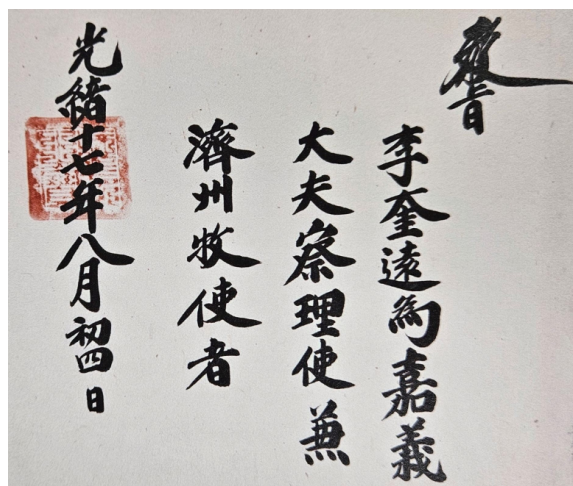


[그림 5] 1776年(英祖 52) 諭世孫書,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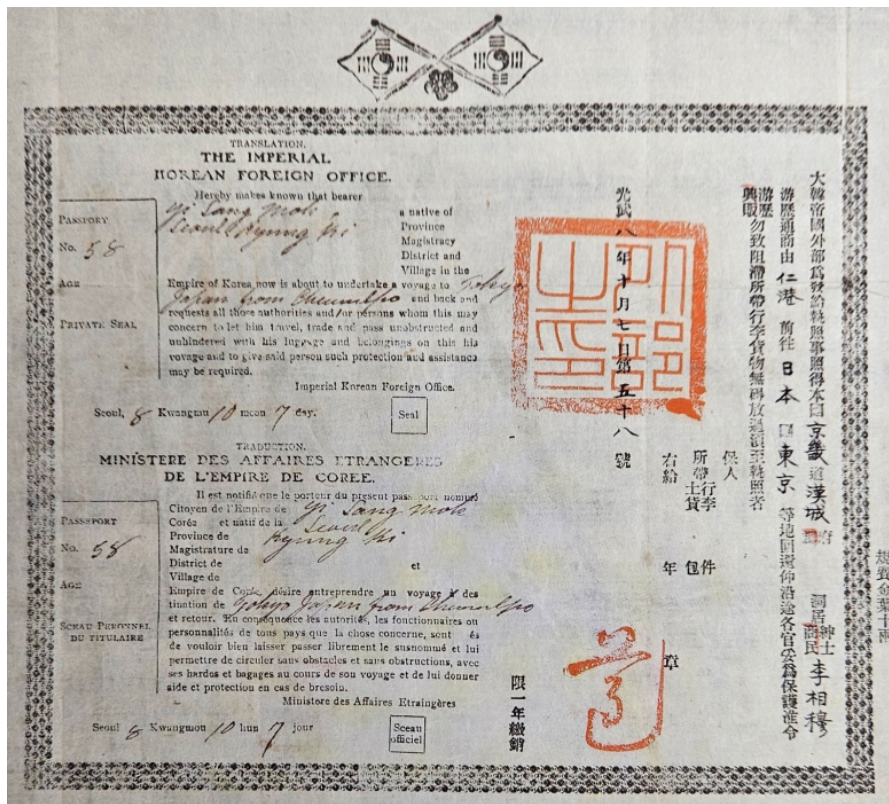
4. 조선 국왕이 淸과의 사대관계를 청산하고 대내외적으로 大朝鮮國 大君主 또는 大韓帝國 皇帝를 칭한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압인 사례와도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高宗과 純宗은 開國, 建陽, 光武, 隆熙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쓰면서도, 비슷한 시기의 淸 연호 표기와 마찬가지로 제2자 아래에 압인한 것이 확인되며, 대한제국 皇帝印과 官印의 압인 위치도 서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림 6] 1907年, (光武 11) 尹氏 勅命, 國立中央博物館



[그림 7] 1891年(高宗 28), 李奎遠 教旨, 國立濟州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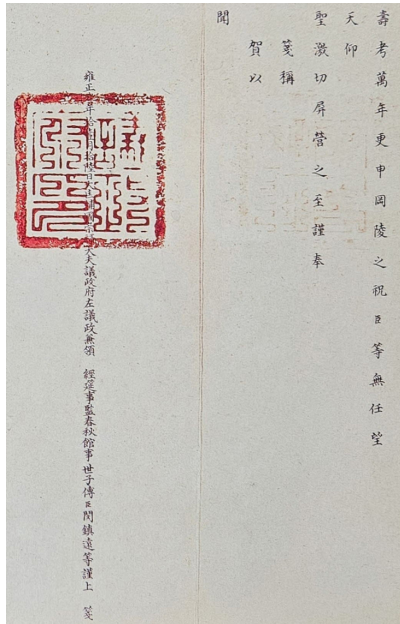


[그림 8] 1904년(光武 8), 大韓帝國旅券, 國立古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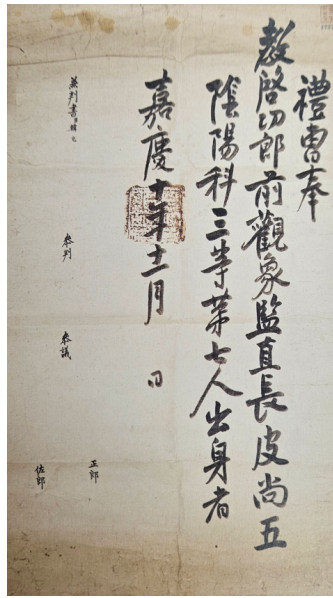
이를 통해서 제후국왕에서 황제로의 위상 변화가 압인 위치에 변화를 주지 않았고, 적어도 19세기 후반의 시점에서 연호 제2자에 겹치거나 그 보다 하강한 압인이 제후국왕이 지켜야 할 명분상의 의무로 인식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발표자의 논지대로 압인 위치가 하강하여 제2자 주변으로 정착된 조선전기 당시에는 명 황제를 의식한 것이지만, 후대의 실무자에게는 당초의 의미가 제대로 전승되지 않은 채로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인식되어 稱帝 이후로도 답습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에 19세기말의 현상을 근거로 조선전기에도 압인위치가 명분론과 무관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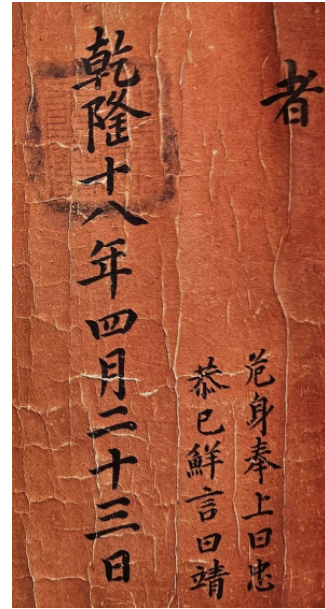
5. 발표자는 조선전기에 연호의 제2자에 압인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조선후기 관련 자료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압인 위치는 연호 제1자~제2자~연도 사이를 오르내리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압인과 연호 사이의 위치 관계가 일정한 관행으로 정착되었을지언정 절대적인 규정으로 구속 받는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림 9] 1725年(英祖 1), 英祖王世子冊命時奉箋稱賀帖,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그림 10] 1805年(純祖 5), 「皮尙五雜科白牌」, 奎章閣 韓國學研究院, 172898



[그림 11] 1753年(英祖 29), 「諡號教旨」,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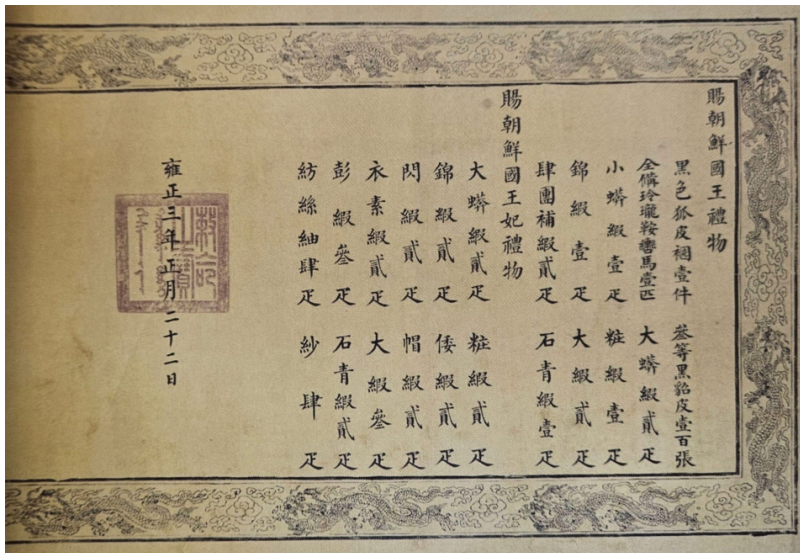


[그림 12] 1694年(肅宗 20), 二十公臣會盟軸,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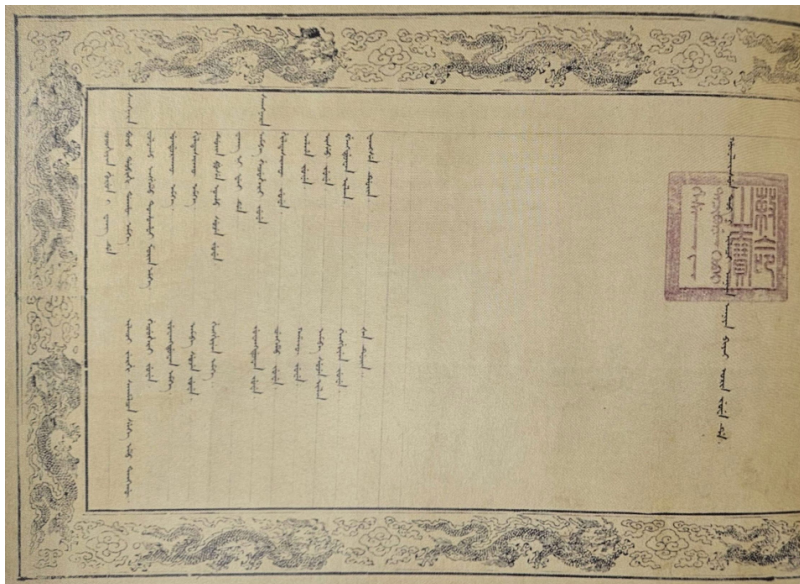
5-1. 아래에서 보이듯, 淸에서 '勅命之寶'를 찍어 발급한 문서도 제2자에 겹치도록 표기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조선의 문서와 압인 위치에 따른 명분상의 차



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진다.



[그림 13] 1725年(英祖 1), 「英祖冊封禮物單子」, 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



[그림 14] 上同文書, 滿文 부분

이상에서 제시한 토론 작성을 마무리하면서, 조선전기 특정 국가 혹은 특정 시기의 사례만으로는 압인 위치에 내포되어 있는 제도 및 관념 상의 문제를 온전히 파악하기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같은 압인 위치더라도 시기에 따른 정치·외교사적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담고 있거나 변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여러 국가의 많은 사례들이 축적되어 공문서의 비문서정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제4발표】

「滿文原檔」에 보이는 17세기 만주국가의  
만문 사령칙서와 그 대장

나카이 유토(도쿄대)

종저우찌(도쿄대)

---

I. 머리말

II. 팔기제의 위계(세직)과 사령칙서

III. 「한자당」의 사령칙서

IV. 「장자당」의 사령칙서

V. 「황자당」의 사령칙서

VI. 맺는 말



# 「만문원당」에 보이는 17세기 만주국가의 만문 사령칙서와 그 대장

나카이 유토(도쿄대)

종저우씨(도쿄대)

## I. 머리말

청조(大清國 daicing gurun, 1636~1912)는 동북아시아의 퉁구스계 수렵·농경민인 주선인 Jušen<sup>12)</sup>에 의해 수립되었다. 주선의 언어에서 유래한 만주어[滿洲語]는 청조의 공용어가 되어, 청 태조 누르하치는 몽골 문자를 바탕으로, 만주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만주 문자[滿洲文字])를 창안하게 했다. 그리고 청조의 역사를 통틀어 문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문자는 만주어·만주문자[滿文]이며, 외국 군장君長의 책봉이나 외번 통치에서도 중심적인 언어·문자로 사용되었다. 만주어·만주문자의 문서 문화는 근세 동유라시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특징·성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최초 시기에 해당하는 청초 만주국가기<sup>13)</sup>(16세기 말 누르하치 발흥 ~ 1644년 입관까지)의 문서 문화의 양태를 밝혀야 한다.

만주국가기의 만주어 사료에 대한 연구는 1905년 『만문노당滿文老檔』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만문노당』은 건륭연간에 편찬된 1607~1635년까지의 건국 초기 사적에 관한 편년사이다. 특히 1931년에는 북경 내각대고에서 『만문노당』의 원 사료가 되었다고 보이는 만주국가 시기(17세기 전반)의 당책군檔冊群이 발견되었다. 이는 오늘날의 연구자에게 일반적으로 「만문원당滿文原檔」이라 호칭된다.<sup>14)</sup> 그 후 국민당에 의해 대만으로 반출되었다가, 1960년대에 재발견되었다. 그 밖에 제1역사당안관에서 발견된 만주국가기의 편년사 당책인 「내국사원당內國史院檔」 등 20세기에는 새로운 만주어 사료의 큰 발견이 이어졌다. 그 때문에 선행연구도 이들 사료의 성질이나 그 성립·전래 경위 자체를 설명하는데 우선 주안점을 두었다<sup>15)</sup>.

12) 여진·여직. 1635년에 집단명을 만주[滿洲]로 개칭했다. 본 발표에서는 문맥에 따라 주선인, 만주인, 주선=만주인으로 구분한다.

13) 청이 대청daicing이라는 국호를 자칭한 것은 1636년 이후이다. 후금(금)이라는 국호를 대외적으로 자칭한 것은 1616년 무렵 이후로 여겨지나,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만주국manju gurun'이라는 호칭이 대내적으로 존재하였고, 16세기 말 무렵에는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이미 어느 정도 국가적 결속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기의 누르하치 정권 수립에서 입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정체政體를, 연구개념으로서 본 발표에서는 '만주국가만주國家'라 호칭한다.

14) 더구나 후술하듯이 「만문원당」은, 2005년에 타이베이 고궁박물관에 의해 『만문원당』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당책 사료로서의 「만문원당」은 홑낫표로 표기하고, 2005년에 출판된 서적으로서의 『만문원당』은 겹낫표로 표기하여 구별한다.

15) 만주어 사료군의 연구 상황 정리는 [加藤1993·2016: 제1장]을 참조. 또한 『만문노당』과 「만문원당」의 발견 경위의 개설에 대해서는 [神田1979]을 참조.

한편, 이들 사료군 속에 있는 개별 당책이나 기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그 양의 방  
 대함 때문에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중요한 것  
 이 「만문원당」의 여러 당책에 문면文面의 사본이 수록되어 있는 만주어 사령칙서군辭  
 令勅書群이다<sup>16)</sup>. 이들은 만주국가의 최초 시기에 군주인 한에 의해 발급된 사령서인  
 동시에, 면죄 등 각종 특권을 담보한 특허장이기도 했다 [杉山2008a: 111-121]. 그러  
 므로 이런 사령칙서의 문면은, 만주국가의 통치나 권력 구조와 깊이 관련되는 사료이  
 다. 이러한 사령칙서의 실물로는 도쿄대학의 「사료편찬소 소장 명칭중국 공문서 관계  
 사료 비교연구 프로젝트」 성과보고서에 컬러 영인도판이 수록되어 있는데, ‘중앙연구  
 원 역사어언연구소 소장 천명병인년의 사령칙서」(그림1) 등이 알려져 있다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일반공동연구 「사료편찬소 소장 명칭중국 공문서 관계사료 비교연구」 프  
 로젝트편 2021: 24-25]<sup>17)</sup>. 그러나 오늘날 현존하는 실물은 불과 몇 점밖에 되지 않는  
 다. 하지만 「만문원당」에는 그 문면의 사본이 다량 기재되어 있어, 오늘날 역사가들은  
 보다 많은 사령칙서의 문면을 알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태조 누르하치기(천명 연간)  
 의 이러한 사령칙서의 문면을 옮겨 적은 사료인 「만문원당」의 여러 당책(한자당寒字  
 檔·장자당藏字檔·황자당黃字檔)을 다뤄 소개한다.

본 심포지엄의 주제가 ‘물품으로서의 동유라시아 고문서’인 이상, 문서의 현물이 아  
 닌 그 문면을 베낀 당책군을 다루는 것은 일견 부적절한 주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으로서 볼 경우, 사령칙서의 문면이 베껴져 있는 당  
 책군 그 자체가 중요한 ‘현물’인 것이다. 이들 사령칙서의 복사본이 수록되어 있는 여  
 러 당책에는 만주국가 당국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말塗抹·도개塗改 등 각종 보정  
 補訂이 되어 있다. 이는 이들 칙서가 국가에 의해 인정된 공적功績·상벌에 대한 대장  
 臺帳이며, 칙서와 대장이 엄밀하게 조합되어, 상벌의 가감에 따라 이런 수정이 수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細谷1991] [杉山2008a: 114-121]. 즉 이들 칙서의 문면을 베껴  
 적은 당책군은 만주국가에서 사령칙서에 맞게 기록된 공적·상벌의 기록대장으로서 현  
 실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이러한 형태로 문면의 사본이 남아있  
 는 이유이다. 즉 사령칙서의 문면을 베낀 「만문원당」의 여러 당책은 단순한 문면의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만주국가의 통치 시스템에서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발표는 누르하치에 의해 발급된 사령칙서의 문면이 베껴 적힌 「만문원당  
 」의 세 당책(한자당·장자당·황자당) 자체를 소개하고, 사령칙서의 대장으로서 이들 당

16) 이러한 사령칙서는 선행연구에서 단순히 ‘칙서’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 문면을 분석하고 그 기능과 운용  
 실태에 대해 검토한 스기야마 키요히코杉山清彦는 이것이 사령서로서의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杉山2008a: 118-121]. 본 발표에서는 이를 근거로 사령서로서의 성질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사령칙  
 서’라고 호칭한다.

17) 해당 성과보고서에는 도판과 함께 임경준의 해제도 첨부되어 있다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일반공동연구 「사  
 료편찬소 소장 명칭중국 공문서 관계사료 비교연구」 프로젝트편 2001: 83-84]. 또한 『명칭당안존진선집』 초  
 집에도 「천명병인년노만문고명天命丙寅年老滿文誥命」이라는 제목으로 도판이 게재되어 있다 (『明清檔案存真  
 選輯』 初集, 62쪽, 圖版貳拾陸). 그 외 현존하는 사령칙서의 현물로는 스기야마杉山가 소개한 「동연천명병인  
 년칙서修延天命丙寅年勅書」(『清代檔案史料叢編』 제7집, 口繪圖版)도 들 수 있다 [杉山2008: 117].

책에 주목하는 의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 II . 팔기제의 위계(세직)과 사령칙서

만주국가를 수립한 누르하치는 자신의 국가에 복속한 주선=만주인들을 여덟 개의 '구사gūsa (旗)'라는 단위의 집단(군단)<sup>18)</sup>으로 나눠 편성해 지배했다. 이를 팔기八旗(jakūn gūsa)라고 하며, 각 구사에 편입된 자를 기인이라 한다. 팔기제 하에서 기인들은 각급 팔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나아가 세직이라 불리는 위계에 의해 그 지위가 서열화되었다.

세직世職은 글자 그대로 세습이 규정된 위계로서, 사죄死罪 및 벌속罰贖의 관면권寬免權과 그 밖의 각종 상사賞賜가 특권으로서 동시에 부여되고 있었다. 세직의 위계나 이에 따른 사죄·벌속 관면권은 공적이나 죄과에 따라 가감되었다. 세직은 만주국가 건국 초기 단계부터 점차 정비되어, 전 주선을 통합하여 요동평야로의 진출이 본격화된 1620년경에 정비되었다. 그 계급은 크게 총병관總兵官-부장副將-참장參將-유격遊擊-비어備禦의 각 급으로 이루어졌으며, 나아가 총병관~유격까지는 1등~3등으로 나뉘어져 총 13계급이 존재했다. 최초 시기의 세직은 명의 군제상의 직책명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후 태종기·순치기·건륭기에 각각 만주어·한어로 명칭 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공公·후侯·백伯의 작위가 상위에 추가되어 확립되었다. 그리고 본고에서 다룬 만주어 사령칙서의 문면은 만주국가 최초 시기에 군주인 한에 의해 발급된 세직 사령서인 동시에, 그에 따른 상술한 여러 권리에 대한 특허장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만문원당」은 『만문노당』의 원 사료가 된 17세기 전반의 당책류인데, 총40책의 당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서 설명한 경위를 거쳐 대만에서 재발견된 후, 1969년에 『구만주당』(전 10책)으로, 2003년에 『만문원당』(전 10책)으로 각각 타이베이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영인 출판되었는데, 본 발표에서는 화질이 보다 선명한 『만문원당』을 이용한다. 각 책에는 건륭 연간에 『만문노당』 편찬을 위해 당책을 정리할 때, 천자문에 의거한 자호字號가 붙여져 있다(「황자당」이나 「한자당」과 같은 식이다)<sup>19)</sup>. 이 가운데 「황자당」 등 몇 당책에 수록된 것이 바로 상술한 사령칙서 문면의 사본이다.

사령칙서 문면의 사본은 『만문노당』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문원당」의 사령칙서의 문면이 연구상 중요한 것은, 「만문원당」의 칙서에는 도말·도개가 이루어져 있고, 그 도말·도개 부분에 『만문노당』에는 담겨있지 않은 오리지널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직의 위계나 그에 따른 관면권은 공적이나 죄과에 따라 가감되었다. 이때 만주국가측 담당자에 의해 보관하고 있던 사

18) 각 기旗(gūsa)는 양황鑲黃·정황正黃·양백鑲白·정백正白·양홍鑲紅·정홍正紅·양람鑲藍·정람正藍으로 이루어진다. 각 기에는 종실(아이신 교로[愛新覺羅]씨)의 여러 왕이 분봉되고, 그 밑에 구사의 장관·대신으로서 구사어전固山額眞(도통都統)을 두고 기의 업무를 통괄했다.

19) 다만 천자문의 4번째 순서는 '현ᄃᆡ' 자인데, 강희제(현ᄃᆡᄃᆡ)를 피휘하기 위해 '현자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의 문면에 도말·도개를 한 것이다. 『만문노당』에는 도말·도개 이전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리지널한 ‘물품’으로서의 「만문원당」으로 거슬러 올라가 분석하여 도말·도개 이전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조사 연구에서 『만문노당』의 사령칙서에 선구적으로 주목한 것은 아나미 코레히로阿南惟敬[1968]인데, 이후 호소야 요시오細谷良夫[1991·1992]가 「만문원당」을 이용함으로써 입관 후에 편찬된 정서류政書類나 실록에서는 엿볼 수 없었던 누르하치기의 정치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스기야마 키요히코杉山清彦는 사령칙서의 서식과 기능을 분석하여 만주국가의 특성을 보이고 [杉山2008a], 나아가 그 인물 분석을 통해 누르하치 시대 만주국가의 핵심 간부 구성을 복원하여 청초의 국가 구조를 제시했다 [杉山2008b·2015]. 또한, 마스이 칸야増井寛也는 「황자당」 사령칙서에서 청초기 니루의 모습을 그려냈다 [増井2012·2015].

호소야나 스기야마 등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 온 것은 「황자당」의 사령칙서였다. 「황자당」에 만주국가 핵심 정권 간부에 대한 사령칙서의 문면이 수록되어 있고, 더구나 이를 통해 기인들의 당시 기속旗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령칙서라는 틀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령칙서는 「황자당」뿐만이 아니다. 누르하치기의 사령칙서 문면은 「황자당」 외에도 「한자당」과 「장자당」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한자당」과 「장자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자당」을 소개하며, 각 당책별 사령칙서의 특징에 대해 검토한다.

### Ⅲ. 「한자당」의 사령칙서

‘한蹇’ 자는 천자문 자순에서 16번째에 해당하며, 2005년 『만문원당』에서 「한자당」은 제4책에 수록되어 있다. 용지는 명대의 옛 공문지公文紙와 고려지高麗紙를 사용했으며, 만주어가 무권점無圈點 만주 문자(노만문老滿文)로 적혀 있는 당책이다 [陳捷先 1969: 23]. 「한자당」의 성질에 대해서는 이미 해제([廣祿·李學智 1965: 13] [陳捷先 1969: 23])가 있으며, 또한 마츠무라 준松村潤도 상세히 검토한 바 있다 [松村 1985: 268-272].

「한자당」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천명 9년 정월과 6월의 사건에 관한 일반 편년 기사로 공문지가 사용되었다. 다른 하나는 연대를 알 수 없는 사령칙서군의 문면이 수록된 부분이며, 사령칙서 중에도 한문 번역이 되어 있는 것(한역사령칙서)과 없는 것의 두 종류가 있다. 만주어만으로 되어 있고 한문 번역이 없는 사령칙서의 문면에는 상사賞賜가 15등급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다. 두 종류의 칙서에는 인명과 내용의 중복이 보인다. 그리고 이처럼 한문 번역이 있는 사령칙서의 문면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한자당」 칙서의 특징이다. 이들 한문 번역이 있는 사령칙서 22통에 대해서는 이미 마츠무라 준이 원문을 이록移錄하여 번역한 바 있다 [松村 1985].



『만문노당』에는 이들 사령칙서의 문면 부분도 천명 9년 정월의 것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마츠무라 시게루松浦茂는 가장 앞의 어이두에 대한 사령칙서의 논공행상이 뉴후루 씨 가보의 천명 원년의 기사 등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를 천명 원년의 것으로 간주하고, 그 때문에 「한자당」의 한역사령칙서 전체에 대해서도 천명 원년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松浦1984: 121-123].

그러나 「한자당」의 여러 한역사령칙서의 문면을 검토한 마츠무라 준은 이들 사령칙서의 문면에 언급된 논공행상의 대상이 된 전투가 1607~1613년경의 상당히 이른 시기의 전투라는 점에서, 이들 사령칙서의 문면 작성은 천명 9년보다 이전의 것이라 추정했다 [松村1985: 271-272]. 또한 「한자당」의 한역사령칙서에는 우라 멸망 후 4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있는데, 이는 1617(천명 2 / 만력 45)년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1619년 사르후 전투와 여허 멸망보다 이전의 것으로 추정하며, 본 발표에서도 후자의 마츠무라설에 의거한다.

「한자당」 한역사령칙서의 특징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한 통의 칙서 안에 여러 인물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②상사賞賜는 주로 세직·봉록·면역권免役權<sup>20)</sup>·면죄권의 네 종류이며, 상사 이외에 전장에서 공로와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③부분적으로 한문 번역이 있다. 단지 한문이 미숙하고 오자가 많으며, 인명·지명의 번역 등에서 오자惡字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호이파→廻扒, 여허→拽黑 등) [陳捷先1969:23]. ④앞서 언급했듯이 상당히 이른 시기의 칙서이며, 현재 확인된 사령칙서 중 가장 초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만주국가의 국가구조는 당초에 명의 기미위소 지배와 표리일체의 것으로, 각 급의 대신에게 신분 따라 명으로부터 부여받은 위소관의 임명칙서를 배부하고, 조공무역의 이익을 총당하는 공칙제貢勅制의 질서 아래에 있었다 [三田村1963-64]. 그러나 1606(만력 34)년 무렵 사기제四旗制가 성립되면서 공칙 질서와 기제旗制 질서가 병존하는 양축 체제가 되어, 대신들 각각의 군공에 대하여 금품이나 인축人畜를 하사하거나 각종 특권 부여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명과의 관계 악화와 천명 원년의 체제 전환을 거쳐 팔기제가 확립되었다 [增井2007]. 현존하는 사령칙서 문면에서 사기제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한자당」의 사령칙서 문면은 확인 가능한 사령칙서 중에서는 가장 초기의 것으로, 아마도 팔기제 시대에 최초로 발급된 사령칙서가 「한자당」에 수록된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

#### IV . 「장자당」의 사령칙서

「장자당」은 천자문 자순으로 23번째이며, 2005년 『만문원당』에는 제5책에 수록되어 있다<sup>21)</sup>. 명대의 공문지에 무관점 만주문자(노만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로 1620년대

20) 「한자당」 사령칙서의 면역권에 대해서는 [松村1985: 274]를 참조.

21) 「장자당」 사령칙서는 『만문노당』을 증초重抄할 때 잘못하여 천총 2년의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만문노당』

초 요동평야 정복 때 항복해 온 한인에 대하여 급부된 사령칙서의 대장으로 보이며, 「황자당」과 마찬가지로 보정補訂의 흔적이 보인다.

표지에는 sahalijan ulgiyan aniyai dangse(임해년의 당자檔子)라고 적혀 있으나, 그러한 간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서는 계해(천명 8)년의 오기라고 추정하고 있다 [廣祿·李學智1965: 14][陳捷先1969: 23]<sup>22)</sup>. 또한 「장자당」 사령칙서의 내용을 『만문원당』 「열자당列字檔」의 1623(천명 8)년 3월 25일의 상벌 기사<sup>23)</sup>에 비추어 보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이는 당시 발급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동시에 이때 「열자당列字檔」 기사의 처벌하는 대목의 내용이 「장자당」 사령칙서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보정補訂은 발급 직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본 발표에서 다루는 「장자당」 사령칙서는 다음의 【사료 1】이다. 이 사령칙서는 「장자당」 사령칙서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

【사료 1】 「장자당」, 동양성修養性에게의 사령칙서 (『만문원당』 제5책: 246-247)

[ 원문 ]<sup>24)</sup>

246쪽

1. ○ (擡頭) han hendume: tung yang sing si dade füsi hecen i hūdai niyalma
2. bihe: mini baru sain seme nikan han jafabi liodun i hecen i
3. loo de horiha bihe: looci tücike manggi: baime ukame
4. jihe güng de jui bübi hojihon obubi fujan i hergen bühe:
5. liodun be baha manggi sümingguwan i hergen bübi: baha nikan güruni
6. uile icihiya seme doro de afabuha: endeme calame uile bahade
7. sajin i tühere uile gaimbi: ere hergen be jüse omosi jalan

247쪽

1. halame efulerakū

[ 번역문 ] 한이 말하기를, “동양성이여, 너는 처음에 무순성의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나와 사이가 좋으므로 니칸 한nikan han에게 잡혀, 요동성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다. 감옥에서 나온 후, 흠모하여 도주해 온 공으로 딸을 주어 사위로 삼고 부장의 세직을 주었다. 요동을 얻은 후 총병관의 세직을 주고, 얻은 한인의 사무를 처리하라고 정치를 맡겼다. 잘못하여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상응하는 죄를 취한다. 이 세직을 자손 대대로 없애지 않는다.”

『에서는 태조기의 기사로서 삽입되어 있다. 『만문원당』에서는 출판하면서 태조기의 기사로 수정되었다.

22) 그 외 자오즈강趙志强이 천명 10년 8월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황자당」 사령칙서에서 유추한 것으로 보이며,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신뢰하기 어렵다 [趙志强2019: 33].

23) 『만문원당』 제3책, 285-289쪽.

24) 본 발표에서는 원문 전사는 뮐렌도르프식을 원칙으로 하며, waw + yodh로 표시되는 모음은 신만문의 ü에 해당하는 것은 ū로, 그 외의 것은 ü로 표기했다. 또한 정서법正書法과 현저하게 다른 철자는 텍스트에 따라 전사했다. 또한 도말·삭제는 밑줄, 판독불능은 ----, 가필은 {□□□□}, 잔결은 [□□□□], 대두는 ( )로 표시한다 (이하 동일).

【사료 1】에 등장하는 동양성은 가계로는 주선계(통가 씨) 일파의 출신인데, 그 선조가 요동에서 명조의 무관이었고, 그 이름이 한인화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주국가에 귀순한 시점에는 이미 한인의 문화나 사회 규범을 수용한 존재였다 [杉山2015: 329]. 그러나 이런 한인이나 그에 준하는 자에게 주는 사령칙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 구성은 만주인에게 수여되는 칙서의 문면과 거의 유사한 내용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장자당」 사령칙서에 의해 수여된 세직은 당시 만주인에게 수여된 것과는 다른 서열 하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사료 1】에서 동양성은 부장의 세직을 수여받았는데, 거기에는 만주인이 세직으로서 부장을 수여받는 경우와 달리 1등·2등·3등이라는 등급이 적혀 있지 않다.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 세직만을 수여하고 있으며, 만주인에게 주어지는 사죄나 벌속의 면죄권을 부여받은 경우는 드물고, 그 경우에도 다른 당책에 수록된 사령칙서와는 다른 문구로 되어 있다.

이처럼 주로 한인 관인에게 수여된 「장자당」의 사령칙서 문면은 만주인에게 수여된 것으로 보이는 그 밖의 사령칙서의 문면과는 다른 특징을 담고 있어, 이러한 관점에서 요동정복 이후 한인 지배의 한 측면을 깊이 재고할 필요가 있다.

## V . 「황자당」의 사령칙서

앞서 언급한 「한자당」이나 「장자당」의 사령칙서에 비해, 「황자당」의 사령칙서는 각 기인의 기적旗籍을 반영하고 있어 청조사 연구에서 가장 이용빈도가 높고 비교적 '유명'한 사료이다. 「황자당」 사령칙서의 문면은 『만문노당』에 「천명 11년 칙서」로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나미 코레히로에 의해 1960년대부터 이용되어 왔다 [阿南1968]. 그 후 호소야 요시오에 의해 「만문원당」 「황자당」에 좀 더 오리지널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이 밝혀진다 [細谷1991]. 서사書寫된 연대에 대하여 호소야 요시오, 스키야마 키요히코는 1625(천명 10)년 8월이라 추정하고 있다 [細谷1991: 38-40] [杉山2015: 40-43]. 또한 보정補訂 연대에 대해서 호소야는 1629(천총 3)년 8월에 이른다고 하고, 스키야마는 1635년 말에 이를 가능성을 지적했다 [杉山1998: 7]. 또한 마스이 칸야는 「황자당」 사령칙서를 마지막으로 개정改訂한 하한선을 1630(천총 4)년 6월이라고 고증하고 있다 [増井2015: 12].

「황자당」의 사령칙서는 사실 이번에 소개하는 세 당책 중에서는 (「황자당」에 수록된 부산busan에게 수여한 칙서를 제외하면) 「한자당」과 「장자당」에 비해 내용이 가장 간결한 사령칙서 당책이다. 여기서는 「황자당」 칙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잉굴다이 등에게 내린 사령칙서의 문면을 살펴 본다.

【사료 2】 「황자당」, 아시다르한, 잉굴다이 등에게의 사령칙서

(『만문원당』 제4책: 365)

[ 원문 ]

- 1.Oasidarhan be afabuha uile be mütembi: joriha jurgan be jurcerakū seme
2. üju jergi sanjan obuha: ilan {emu} jergi bücere uile be güwebumbi:
- 3.Oinggüldai be afabuha uile be mütembi: joriha jurgan be jurcerakū seme ilaci jergi
4. sanjan obuha: ilan {emu} jergi bücere uile be güwebumbi:
- 5.Osuna be yeheci baime jihe güng: jai afabuha uile be mütembi: joriha jurgan be
- 6.jurcerakū seme üju jergi sanjan obuha: duin {emu} jergi bücere uile be güwebumbi:

[ 번역문 ] 아시다르한을 맡긴 일을 능히 하고 지시를 어기지 않는다 하여 1등 참장으로 삼고, 3번{1번}의 죽을 죄를 면한다. ○잉굴다이를 맡긴 일을 능히 하고 지시를 어기지 않는다 하여 3등 참장으로 삼고, 3번{1번}의 죽을 죄를 면한다. ○수나를 여허로부터 기리어 온 공에 의해, 또 맡긴 일을 잘하고 지시를 어기지 않는다 하여 1등 참장으로 삼고, 4번{1번}의 죽을 죄를 면한다.

이처럼 「황자당」 사령칙서에서는 대부분의 인물에 대해 각 칙서의 문면이 1인당 1~2줄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극히 간단하여, 세직과 죄의 관면권만을 열거한 것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령칙서의 문면이 이만큼 짧은 것이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황자당」의 서두 부분에는 사령칙서를 수여받은 각 인물의 이름이 열거되는 대목에 앞서, 각 사령칙서에 공통적으로 적혀 있다고 보이는 정형적인 교시敎示 문구가 제시되어 있다. 「황자당」 서두 부분의 정형적 문구에 대해서는 이미 『만문노당』에 수록된 해당 부분(『만문노당』 태조4: 999-1000)이 만문노당연구회에 의해 번역이 되어 있고, 또한 사령칙서의 문면을 검토한 스키야마도 번역문을 소개하고 있으나 [杉山 2008a:116], 본 발표에서도 논지 전개에서 이 서두 부분의 정형문구 표현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하에 재차 그 번역문을 제시한다.<sup>25)</sup>

【사료 3】 「황자당」 서두 (『만문원당』 제4책: 349-350)

[ 번역문 ] ‘하늘의 명命 fulin으로 시운을 받은 한이 말하기를’에서부터 ‘결코 태만하지 말라’에 이르는 교시의 말을 총병관 이하, 비어에 이르도록 모든 칙서의 서두에 모두 썼다. ‘결코 태만하지 말라’에 이어 거듭하여 대신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공功·사죄死罪·속죄贖罪를 썼다. 하나의 동그라미(○) 아래의 글이 하나의 칙서이다. {양鑲---} 하늘의 명으로 시운을 받은 한이 말하기를, “옛날 성스러운 한이 천하를 통치함(때)에는, 역시 무위武威로 백성百姓의 민민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문文의 일

25) 만문노당연구회의 『만문노당』 역주 및 스키야마 번역을 참조하여 적절히 고쳐 번역했다.

만을 행하게 하고, 무武의 일을 익히지 않은 적은 없다. 나는 예전을 규범으로 하여 무관(의 제도)을 세웠다. 이 칙서를 받은 자는 바른 마음으로 몸을 다스려라. 선한 마음으로 여럿을 보살피라. 총명한 마음으로 사소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라. 간사한 것을 알아라. 기만하는 것을 그만두라. 결코 몸을 한가하게 두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능히 한다면 천은天恩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도 이른다. 복은 자식과 손자에게 남는다. 몸도 집도 영원히 귀하게 살 것이다. (이 말을) 받들어 결코 태만하지 말라. ...”

이처럼 「황자당」 사령칙서의 한 통 한 통에는 ‘하늘의 명으로 시운을 받은 한이 말하기를’에서부터 ‘결코 태만하지 말라’에 이르는 교시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를 「황자당」의 서두에 가져옴으로써 개별 사령칙서 사본에서는 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생략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교시 문구의 존재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황자당」 사령칙서의 중요한 특징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교시 문구는 무엇에서 유래된 것일까?

이를 시사하는 흥미로운 사료가, 동일한 「만문원당」의 「영자당盈字檔」(『만문원당』 제5책)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15세기 모련위毛麟衛 도지휘사都指揮使급 지위에 있던 와르카 영주 람부르칸에게 명이 수여한 위소관 임명칙서 문면의 만주어 번역이다. 청조 건국 이전에 명은 명목상으로 주선인 영주들에게 명 군제상의 위소관직을 수여하여 간접 지배하고 있었다. 이때 위소관직에 임명된 영주들에게는 위소관 임명칙서가 수여되었다. 그리고 이 위소관 임명칙서의 수신자 람부르칸은 누르하치기까지 이름이 알려진 와르카의 뉴후루 씨 대영주였다. 누르하치는 이 임명 칙서를 보고 격찬하여, 이에 따라 이 문면이 만주어로 번역되어 기록된 것이다.

해당 기사는 『만문노당』에 수록되어 이미 번역되어 있으며(『만문노당』 태조2: 856-857), 「영자당」의 해당 부분(『만문원당』 제4책: 93-96)에 대해서도 키청거承志에 의해 그 원문과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承志2009: 42-43, 73]. 따라서 여기서는 그 번역문의 서두【사료 4-a】와 말미【사료 4-b】만을 제시하는데, 이를 【사료 3】과 비교하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다.<sup>26)</sup>

【사료 4-a】 「영자당」, 천명 8년 7월 23일

하늘의 말씀詔 hese으로 시운을 + 적은 글. 하늘의 명을 받은 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기에, 황제란 자는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한 집이 되게 하기 위하여, 대군을 정비하여 민민을 평안하게 하고, 먼 곳 가까운 곳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대신들을 임명하여 관할하여 온 것이다. ...

【사료 4-b】 「영자당」, 천명 8년 7월 23일

...네가 큰 도리를 더욱 굳세게 잘 {삼가} 닦으며, 네가 관할하는 군민軍民을 통제하여, 변경의 땅을 지키며 평안히 하고, 사냥하고 가축을 기르며, 마음대로 온갖 것을

26) 만문노당연구회의 『만문노당』 역주 및 키청거承志 번역을 참조하여 적절히 고쳐 번역했다.

번식시켜,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산다면, 하늘이 어여삐 지켜보고, 너의 자손 대에 이르기까지 복이 미쳐 미래에도 귀하게 살 것이다. 나의 이 의羲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영永----<영락永樂 ?> 14년 정월 20.

즉 「황자당」 사령칙서의 서두 부분과 문장이 매우 유사하다. 먼저 서두 부분에서는 각각 ‘하늘의 말씀 hese / 명fulin으로 시운을 받은 한(황제)’이라는 표현이나, 또는 한(황제)이 행해온 사적事蹟으로서 즉 무위武威로서 민民을 평안하게 한 것을 공통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한 말미에도 군주의 지시를 지키면 복덕이 일족에게 미치고 자손도 귀하게 살 수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는 대목은 전적으로 일치한다.

람부르칸에게 수여된 명의 위소관 임명칙서에 보이는 ‘하늘의 말씀의 시운을 받은’이라는 표현은 명이 수여한 칙서에서 볼 수 있는 ‘봉천승운奉天承運’이라는 문구에 분명히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자당」에 수록된 문면은 위소관 칙서 실물의 한문을 충실하게 만주어로 번역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르하치가 보고 격찬했다는 기록이 있고, 한편으로 누르하치가 기인에게 발급한 「황자당」 사령칙서의 서두와 말미의 정형 문구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은 「황자당」 사령칙서가 명의 위소관 임명칙서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 Ⅵ . 맺는 말

이상과 같이, 본 발표에서는 사령칙서의 사본을 수록한 「한자당」, 「장자당」, 「황자당」의 각 당책에 대하여, 각 당책별 차이에 유의하며 그 사령칙서 문면의 특징을 소개했다. 「한자당」 사령칙서는 팔기제가 확립되어 가는 중에서도 최초 시기의 단계에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장자당」 사령칙서는 만추리아 삼림지대를 나와 한인이 많이 사는 요동 지방으로 진출한 시기에 한인계 인물에게 수여한 사령칙서였다. 그리고 「황자당」 사령칙서는 매우 심플한 내용의 칙서가 이어지는데, 사실 그 서두·말미의 정형 부분의 문면은 명의 위소관 임명칙서와 매우 흡사하다.

이미 선행연구에 의해 지적된 대로, 「한자당」, 「장자당」, 「황자당」 모두 만주국가기에 사령칙서와 서로 똑같이 상합하는 대장으로서 기능했다는 점은, 이를 보정補訂한 흔적으로 보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령칙서의 문면이 그대로 옮겨진 「만문원당」의 당책이라 해도 그 성질(시기나 수여 대상 등)은 당책별로 다양하며, 그에 따라 그 문면의 내용에도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만문원당」을 이용하여 사령칙서를 다룰 때는 당책별 성질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는 사령칙서를 연구할 때 문서 자체만이 아니라 그와 대응하는 각 당책에 대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물품’으로서의 각 당책의 성질 검토를 바탕으로 만주국가에서 사령칙서란 무엇이었는가라는 연구상의 중대한 문

제를 다뤄야 한다.

## [ 사료 ]

『滿文原檔』全十冊、臺北、故宮博物院、2005.

『滿文老檔』滿文老檔研究會譯注、全七冊、東京、東洋文庫、1955-63.

李廣濤編著『明清檔案存真選輯』(初集)、臺北、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1959.

## [ 참고문헌 ]

### 일본어

阿南惟敬 1968 「清初ニル額眞考 上・下」[阿南1980] pp. 268-331. (原載：『防衛大學校紀要』16・17)

1980 『清初軍事史研究』甲陽書房.

加藤直人 1993 「入關前清朝の法制史料」[加藤2016] pp. 17-56. (原載：滋賀秀三編『中國法制史』東京大學出版會)

2016 『清代文書史料の研究』汲古書院.

神田信夫 1979 「『滿文老檔』から『舊滿洲檔』へ」[神田1992] pp. 12-48. (原載：『明治大學人文科學研究所年報』20)

1992 『滿學五十年』刀水書房.

承 志 2009 『ダイチン・グルンとその時代』名古屋大學出版會.

杉山清彦 1998 「清初正藍旗考」『史學雜誌』107-7, pp. 1-38.

2008a 「清代マンジュ(滿洲)人の家と國家」加藤雄三ほか編『東アジア内海世界の交流史』人文書院, pp. 105-130.

2008b 「八旗制下のマンジュ氏族」細谷良夫編『清朝史研究の新たなる地平』山川出版社, pp. 22-51.

2015 『大清帝國の形成と八旗制』名古屋大學出版會.

谷井俊仁 2005 「一心一徳考」『東洋史研究』63-4, pp. 68-104.

東京大學史料編纂所一般共同研究 「史料編纂所所蔵明清中國公文書關係史料の比較研究」プロジェクト編 2021 『明清中國關係文書の比較研究』(東京大學史料編纂所研究成果報告2021-2) 弘文社.

細谷良夫 1991 「『滿文原檔』「黃字檔」について」『東洋史研究』49-4, pp. 20-46.

1992 「布山總兵官考」『神田信夫先生古稀記念論集 清朝と東アジア』山川出版社, pp. 33-48.

増井寛也 2007 「マンジュ國〈五大臣〉設置年代考」『立命館文學』601, pp. 50-75.

2012 「清初〈專管ニル〉再論」『立命館東洋史學』35, pp. 1-30.

2015 「天命後半期グサ別ニルの数量的考察」『立命館東洋史學』38, pp. 1-45.

松浦 茂 1984 「天命年間の世職制度」『東洋史研究』42-4, pp. 105-129.

松村 潤 1985 「『寒字檔』漢訳勅書」[松村2008] pp. 268-309. (原載：『内陸アジア史研究』2)

2008 『明清史論考』山川出版社.

三田村泰助 1963-64 「ムクン・タタン制の研究」[三田村1965] pp. 107-282. (原載：『明代滿



蒙史研究』京都大學文學部／『立命館文學』223 )  
1965 『清朝前史の研究』同朋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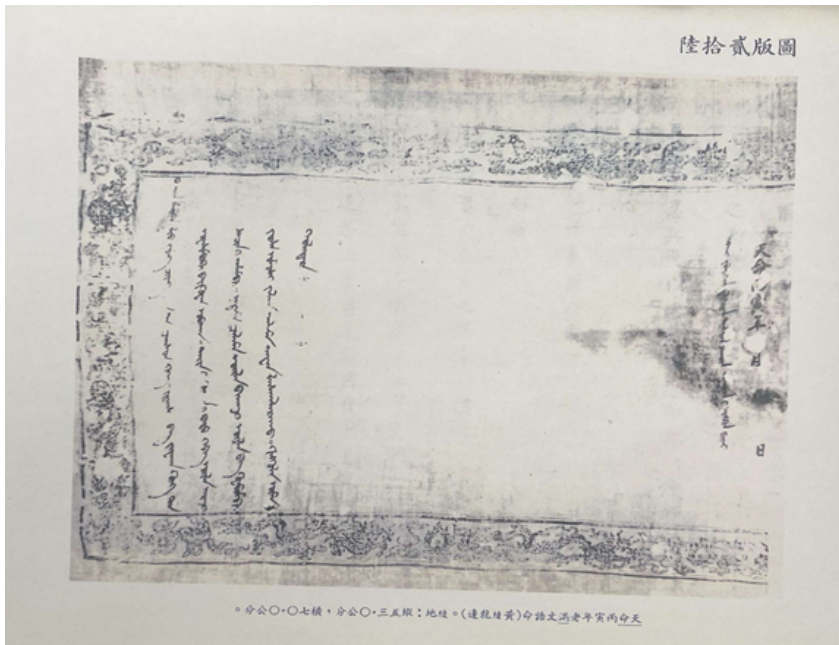
중국어

陳 捷先 1969 「『舊滿洲檔』述略」『舊滿洲檔』國立故宮博物院編, pp.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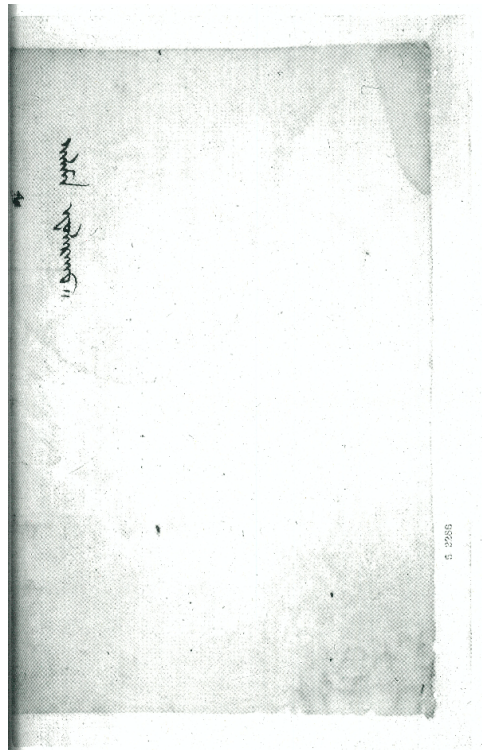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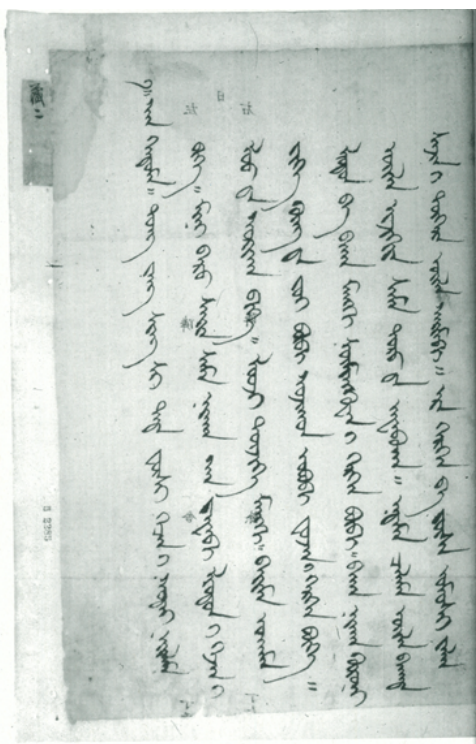
廣祿·李學智 1965 「『老滿文原檔』与『滿文老檔』之比較研究」中國東亞學術研究計劃委員會年報  
第四期.

趙 志强 2019 「論滿文『無圈点檔』」『清史研究』2019-2、pp. 2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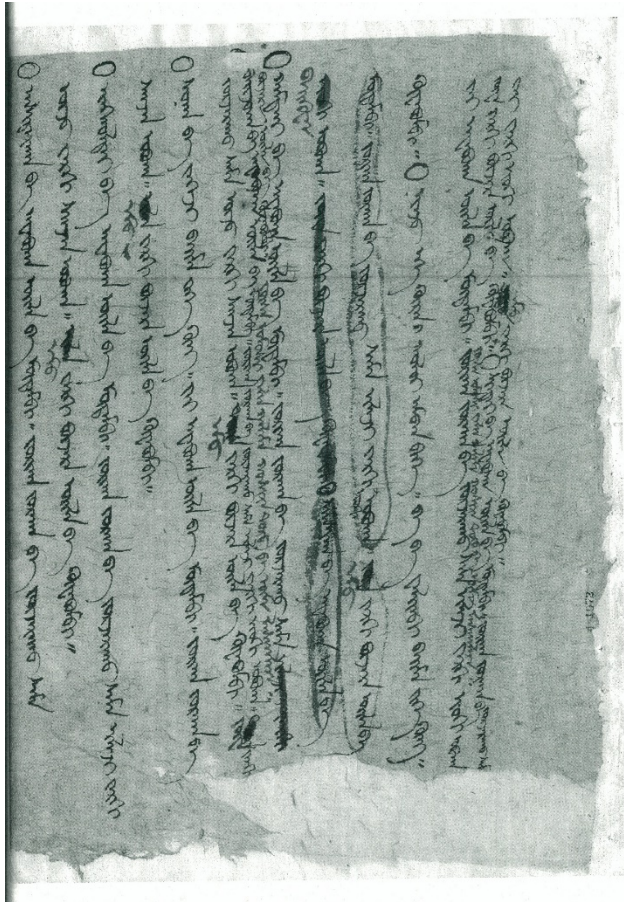
[ 그림 1 ] [東京大學史料編纂所一般共同研究「史料編纂所所蔵明清中國公文書關係史料の比較研究」プロジェクト編 2021: 24-25]



[ 그림 2 ] [사료 2] 「蔵字檔」辭令勅書、『滿文原檔』第5冊, pp. 246-247.



[ 그림 3 ] 【 사료 3 】 「 黃字檔 」 辭令勅書、 『 滿文原檔 』 第 4 冊, p. 365





【제4발표】

「満文原檔」にみえる17世紀マンジュ国家の  
満文辞令勅書とその台帳

中井勇人(東京大学博士課程)

鍾周哲(東京大学博士課程)

---

I. はじめに

II. 八旗制の位階(世職)と辞令勅書

III. 「寒字檔」勅書

IV. 「蔵字檔」勅書

V. 「黄字檔」辞令勅書

VI. おわりに



# 「満文原檔」にみえる17世紀マンジュ国家の 満文辞令勅書とその台帳

中井勇人(東京大学博士課程)  
鍾周哲(東京大学博士課程)

## I. はじめに

清朝(大清国daicing gurun、1636~1912)は、東北アジアのツングース系狩猟・農耕民であるジュシェン人Jušen<sup>27)</sup>によって樹立された。ジュシェンの言語に由来するマンジュ語(満洲語)は清朝の公用語となり、清の太祖ヌルハチは、モンゴル文字をもとにマンジュ語を書記する文字(マンジュ文字、満洲文字)を創案させた。そして清朝の歴史を通してその文書行政における最も重要な言語・文字はマンジュ語・マンジュ文字(満文)であり、外国君長の冊封や外藩統治においても中心的な言語・文字として用いられた。マンジュ語・マンジュ文字の文書文化は、近世東ユーラシアにおいて重要な意味を有しており、そしてその特徴・性質を解明するためには、その最初期にあたる清初のマンジュ国家期<sup>28)</sup>(16世紀末のヌルハチ勃興~1644年の入関まで)の文書文化の様態を解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マンジュ国家期のマンジュ語史料についての研究は、1905年の『満文老檔』の発見に始まる。『満文原檔』は、乾隆年間に編纂された1607~1636年までの建国初期の事績に関する編年史である。さらに1931年には北京の内閣大庫から、『満文老檔』の原史料になったとみられる、マンジュ国家期(17世紀前半)の檔冊群が発見された。これは、今日の研究によって一般に「満文原檔」と呼称されている<sup>29)</sup>。その後国民党によって台湾に持ち去られ、1960年代に再発見された。そのほか第一歴史檔案館で発見されたマンジュ国家期の編年史檔冊である「内国史院檔」など、20世紀には新たなマンジュ語史料群の大きな発見が相次いだ。そのため、先行研究もこれら史料群の性質やその成立・伝存の経緯自体をまずは解明することに主眼が置かれてきた<sup>30)</sup>。

27) 女真・女直。1635年に集団名をマンジュ[満洲]と改称した。本報告では文脈に応じて、ジュシェン人、マンジュ人、ジュシェン=マンジュ人と呼び分ける。

28) 清が大清daicingという国号を自称したのは1636年以降、後金(金)という国号を対外的に自称したのは1616年ごろ以降とされるが、実際にはそれ以前より「マンジュ国manju gurun」という呼称が対内的には存在し、16世紀末ごろにはヌルハチにもとで既にある程度国家的なまとまりを形成していた。そのため、初期のヌルハチの政権樹立から入関にいたるまでの一連の政体を、研究概念として本報告では「マンジュ国家」と呼称する。

29) なお、後述するように「満文原檔」は2005年に台北の故宮博物院より『満文原檔』として出版された。本報告では、檔冊史料としての「満文原檔」は一重鉤括弧でくくり、2005年に出版された書籍としての『満文原檔』は二重鉤括弧でくって区別する。

30) マンジュ語史料群の研究状況の整理については[加藤1993・2016、第1章]参照。また、『満文老檔』と「満文原檔」の発見経緯の概説については[神田1979]参照。

一方で、これら史料群内の個別の檔冊や記事の逐一については、その量の膨大さゆえに、いまだ十分な検討が及んでいないと言いき難い。特に重要なのが、「満文原檔」のいくつかの檔冊に文面の写しが収録されているマンジュ語の辞令勅書群である<sup>31)</sup>。これらは、マンジュ国家の最初期に君主たるハンによって発給された辞令書であり、同時に免罪など各種の特権を担保した特許状でもあった〔杉山2008a：111-121〕。それゆえ、こうした辞令勅書の文面は、マンジュ国家の統治や権力構造と深く結びついた史料である。今日現存する辞令勅書の実物は、わずか数点を数えるに過ぎない<sup>32)</sup>。だが、「満文原檔」にはその文面の写しが数多く記載されており、今日の歴史家はより多くの辞令勅書の文面を知ることができる。本報告では、このように太祖ヌルハチ期(天命年間)の辞令勅書の文面を書写した史料である「満文原檔」の諸檔冊(寒字檔・蔵字檔・黄字檔)を取り上げて紹介する。

本シンポジウムの主題は「モノとしての東ユーラシアの古文書」である以上、文書の現物ではなく、その文面を写した檔冊群の方を取り上げることは、一見すると不適切な主題設定に見えるかもしれない。だが、実は「モノ」として見た場合、辞令勅書の文面が書き写されている檔冊群それ自体が、重要な「現物」なのである。これらの辞令勅書の写しが収録されている諸檔冊には、マンジュ国家の当局者によるとみられる塗抹・塗改といった各種の補訂が施されている。それは、これらが国家によって認定された功績・賞罰についての台帳であり、勅書と台帳は厳密に照合され、賞罰の加減に応じてこのような書き換えが随時に頻繁に行われたからである〔細谷1991〕〔杉山2008a：114-121〕。つまり、これら勅書の文面を書き写した檔冊群は、マンジュ国家にとって、辞令勅書と照合されるべき功績・賞罰の記録台帳として現実に機能していたのであり、それこそがこのような形で文面の写しが残っている理由に他ならない。つまり、辞令勅書の文面を写した「満文原檔」の諸檔冊は、単なる文面の控えなのではなく、それ自体がマンジュ国家の統治システムの不可欠の構成要素となっていたのである。

よって本報告は、ヌルハチによって発給された辞令勅書の文面が書き写されている「満文原檔」の三つの檔冊(寒字檔・蔵字檔・黄字檔)自体を紹介し、それによって、辞令勅書の台帳としてのこれら諸檔冊に注目する意義を提起することを目指すものである。

## Ⅱ. 八旗制の位階(世職)と辞令勅書

31) こうした辞令勅書は、先行研究においては単に「勅書」と称されることもあるが、その文面を分析し、その機能と運用実態について検討した杉山清彦は、これらが辞令書としての一般的条件を満たすものであることを指摘している〔杉山2008a：118-121〕。本報告ではそれをふまえ、辞令書としての性質を強調するため、これを辞令勅書と呼称する。

32) 残存している辞令勅書の現物としては、杉山が紹介した「佟延天命丙寅年勅書」(『清代檔案史料叢編』第七輯、口絵図版)が代表的なものとして挙げられる〔杉山2008：117〕。そのほか、『明清檔案存真選輯』初集には「天命丙寅年老滿文誥命」の図版が掲載されている。(『明清檔案存真選輯』初集、62頁、図版式拾陸)〔図1〕



マンジュ国家を樹立したヌルハチは、自身の国家に服属したジュシェン＝マンジュ人  
たちを、八つの「グサgūsa(旗)」という単位の集団(軍団)<sup>33)</sup>に分けて編成し、支配し  
た。これを八旗jakūn gūsaといい、各グサに編入された者を旗人という[図1]。八旗  
制のもとで、旗人たちは各級の八旗官によって管理され、さらに世職とよばれる位階に  
よってその地位が整序された。

世職は、その名の通り世襲が規定された位階であり、死罪や罰贖の寛免権、その他各  
種の賞賜が特権として同時に付与されていた。世職の位階や、付随した死罪・罰贖の寛  
免権は、功績や罪過に応じて加減された。世職は、マンジュ国家建国初期の段階から徐  
々に整備され、全ジュシェンを統合し遼東平野への進出が本格化した1620年ごろに整備  
された。[表1]にあるように、その階級は大きく総兵官-副将-参将-遊撃-備禦の各  
級からなり、さらに総兵官～遊撃までは一等～三等に分けられ、全部で十三階級が存在  
した。最初期の世職は明の軍制上の役職名に由来したものであるが、その後太宗期・順  
治期・乾隆期にそれぞれマンジュ語・漢語での名称変更が行われたことで、最終的には  
公・侯・伯の爵位が上位に追加されて[表1]のように確立した。そして、本稿で取り  
上げるマンジュ語辞令勅書の文面は、マンジュ国家の最初期に君主たるハンによって発  
給された世職の辞令書であると同時に、それに付随する上述の諸権利についての特許状  
でもある。

上述の通り、「満文原檔」は、『満文老檔』の原史料となった17世紀前半の檔冊類であり  
、全部で四十冊の檔冊からなる。前述の経緯を経て台湾で再発見されたのち、1969年に  
『旧満洲檔』(全十冊)として、2003年に『満文原檔』(全十冊)として、それぞれ台北の  
国立故宮博物院より影印出版されており、本報告ではより画像がより鮮明な『満文原檔』  
を用いる。各冊は乾隆年間に『満文老檔』編纂のために檔冊が整理された際、千字文に基  
づいて字号が付されている(「黄字檔」や「寒字檔」といった具合である)<sup>34)</sup>。このうち「  
黄字檔」などいくつかの檔冊に収録されているのが、上記の辞令勅書文面の写しである

。辞令勅書の文面の写しは、『満文老檔』にも収録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満文原  
檔」の辞令勅書の文面が研究上重要なのは、「満文原檔」の勅書には塗抹・塗改が施され  
ており、その塗抹・塗改部分にこそ『満文原檔』のは載っていないオリジナルの情報が含  
まれているからである。先の述べた通り、世職の位階やそれに付随する寛免権は、功績  
や罪過に応じて加減された。その際、マンジュ国家側の担当者によって、保管されてい  
た写しの文面に対し塗抹・塗改が施されたのである。塗抹・塗改前の情報は『満文老檔』  
には反映されないことから、オリジナルの「モノ」としての「満文原檔」に遡って分析し、  
塗抹・塗改前の情報を抽出することが必要なのである。

清朝史研究において、『満文老檔』の辞令勅書に先駆的に着目したのは阿南惟敬[196

33)各旗(グサ)は、鑲黄・正黄・鑲白・正白・鑲紅・正紅・鑲藍・正藍からなる。各旗には宗室(アイシン=ギョ  
ロ[愛新覺羅]氏)諸王が分封され、その下にグサの長官・大臣としてグサ=エジェン(固山額真/都統)が置  
かれて旗務を統括した。

34)ただし、千字文の字順四番目の「玄」字は康熙帝(玄燁)の避諱にあたるため「玄字檔」は存在しない。

8]であるが、その後に細谷[1991・1992]が「満文原檔」を用いたことで、入関後に編纂された政書類や実録では窺うことのできないヌルハチ期の政治様態に肉薄できるようになった。さらに、杉山清彦は辞令勅書の書式や機能を分析することでマンジュ国家の特質を示すとともに([杉山2008a])、その人物の分析によってヌルハチ期のマンジュ国家の中核幹部の構成を復元し、清初の国家構造を示した[杉山2008b・2015]。また、増井寛也は「黄字檔」辞令勅書から清初期のニルの様態に肉薄した[増井2012・2015]。

細谷や杉山らの先行研究で主に取り上げられてきたのは、「黄字檔」の辞令勅書であった。それは、「黄字檔」には、マンジュ国家の中核的な政権幹部に対する辞令勅書の文面が収録されており、しかもこれによって旗人たちの当時の旗属を判明させることができたからである。だが、辞令勅書という枠組みで見たとき、重要な意味を有する辞令勅書は「黄字檔」だけではない。ヌルハチ期の辞令勅書文面は、「黄字檔」のほか、「寒字檔」と「蔵字檔」が存在する。そこで以下、「寒字檔」「蔵字檔」、そして最後に「黄字檔」を紹介し、それぞれ檔冊ごとの辞令勅書の特徴について検討する。

### Ⅲ. 「寒字檔」勅書

「寒」字は千字文の字順では16番目にあたり、2005年の『満文原檔』では「寒字檔」は第4冊に収録されている。用紙は明代の旧公文紙と高麗紙が用いられており、無圏点のマンジュ文字(老満文)によるマンジュ語が書記されている檔冊である[陳捷先1969:23]。「寒字檔」の性質については、すでに解題([広禄・李学智1965:13][陳捷先1969:23])があり、また松村潤も詳しく検討している[松村1985:268-272]。

「寒字檔」の中身は大きく二つの部分に分けられ、一つは天命9年正月と6月の出来事に関する普通の編年記事で、公文紙が用いられている。もう一つは年月不明の辞令勅書群の文面が収録された部分であり、さらに辞令勅書の中にも、漢訳がついているもの(漢訳辞令勅書)とついていないものの二種類がある。マンジュ語のみで漢訳がない辞令勅書の文面では、賞賜が十五等級にランク付けされている。両種類の勅書には、人名・内容の重複が見られる。そして、このような漢訳付き辞令勅書の文面が記載されていることは、「寒字檔」勅書の特徴である。これら漢訳付きの辞令勅書二十二通については、すでに松村潤が原文の移録と翻訳を施している[松村1985]。

『満文老檔』には、これら辞令勅書の文面の部分も天命9年正月のものとして収録されているが、[松浦1984:121-123]は冒頭のエイドゥに対する辞令勅書の論功行賞がニューフル氏家譜の天命元年の記事などと合致することから、これを天命元年のものとし、その上で「寒字檔」の漢訳辞令勅書全体についても天命元年のものとしている。

だが「寒字檔」の複数の漢訳辞令勅書の文面を検討した松村[松村1985:271-272]は、これら辞令勅書の文面に挙げられる論功行賞の対象となった戦いが、1607~1613年

ごろまでの、かなり早い時期の戦いであることから、これらの辞令勅書の文面作成は天命9年より前のものと推定した。また「寒字檔」の漢訳辞令勅書には、ウラの滅亡から四年という時間が経過したと推測されるものもあり、これは1617年（天命2年／万曆45年）のものともみられる。全体的に見れば1619年のサルフの戦いとイエヘ滅亡より以前のものと推定しており、本報告でも後者の松村説に依拠する。

「寒字檔」漢訳辞令勅書の特徴は、大きく以下の四点である。1、一通の勅書内に複数の人物に関して言及する部分があること。2、賞賜の種類として、主に世職・俸禄・免役権<sup>35)</sup>・免罪権の四種類があり、賞賜以外に、戦場での手柄や負傷を明記していること。3、部分的に漢訳が付されていること。ただし漢文としては稚拙で、誤字が多く、人名・地名の訳名などには悪字が頻繁に使われている（ホイファ→廻扒、イエヘ→拽黒など）[ 陳捷先1969：23 ]。4、先述した通り、かなり早い時期の勅書であり、今確認される辞令勅書の中ではもっとも初期のものとも推定されることである。

マンジュ国家の国家構造は当初、明の羈縻衛所支配と表裏一体であり、各級の大臣に、身分に応じて明から与えられた衛所官の任命勅書を配り、朝貢貿易の利益を充当する貢勅制の秩序のもとにあった[ 三田村1963-64 ]。だが、1606（万曆34年）ごろに四旗制が成立すると、貢勅秩序と旗制秩序が併存する両軸体制となり大臣ら個々の軍功に対して金品・人畜の賜与や各種の特権付与を実施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みられ、そして明との関係悪化と天命元年の体制転換を経て、八旗制が確立されていった[ 増井2007 ]。現存する辞令勅書の文面には、四旗制時代のものともみられるものは現時点では確認できない。【史料1】の辞令勅書の文面は、確認できる辞令勅書の中ではもっとも初期のものであり、おそらく八旗制時代の最初に発給された辞令勅書が「寒字檔」に収録されているものなのではないかと推定される。

#### IV. 「蔵字檔」勅書

「蔵字檔」は、千字文順では第23冊目にあたり、2005年の『満文原檔』では第5冊に収録されている<sup>36)</sup>。明代の公文紙に、無圈点のマンジュ文字（老満文）で書記されたものである。主に、1620年代初頭の遼東平野征服の際に降伏してきた漢人に対して給付された辞令勅書の台帳とみられ、「黄字檔」と同じく補訂の痕跡がみられる。

表紙には sahalijan ulgiyan aniyai dangse（壬亥年の檔子）と書かれているが、そのような干支は存在しない。先行研究では、癸亥（天命8年）の誤りと推測されている[ 広禄・李学智1965：14 ] [ 陳捷先1969：23 ]<sup>37)</sup>。また「蔵字檔」の辞令勅書の内容を

35) 「寒字檔」辞令勅書の免役権については[ 松村1985：274 ]を参照。

36) 「蔵字檔」勅書は、『満文老檔』重抄の際に間違って天聰二年のものとしてされたために、『満文老檔』では太宗の記事に挿入されている。『満文原檔』では出版の際に太祖期の記事として修正された。

37) そのほか趙志強が天命10年8月とする可能性を提起しているが、これは「黄字檔」の辞令勅書からの類推とみられ、明確な根拠に乏しく依拠し難い。[ 趙志強2019：33 ]

『満文原檔』「列字檔」における1623(天命8年)3月25日の賞罰記事<sup>38)</sup>に照らすと、一致するものが多く、これらはその際に発給されたものと推測できる。同時に、このときの「列字檔」記事の処罰箇所の内容が「蔵字檔」辞令勅書にも反映されていることから、その補訂は発給直後から行われていたものみられる。

本報告において、「蔵字檔」から取り上げる辞令勅書は、次の【史料1】である。この辞令勅書は、「蔵字檔」の辞令勅書の典型的な特徴を備えている。

【史料1】「蔵字檔」佟養性への辞令勅書(『満文原檔』第5冊:246-247)

[録文]<sup>39)</sup>

246頁

1. ○(擡頭) han hendume: tung yang sing si dade fūsi hecen i hūdai niyalma
2. bihe: mini baru sain seme nikan han jafabi liodun i hecen i
3. loo de horiha bihe: looci tūcike manggi: baime ukame
4. jihe güng de jui būbi hojihon obubi fujan i hergen būhe:
5. liodun be baha manggi sūmingguwan i hergen būbi: baha nikan gūruni
6. uile icihiya seme doro de afabuha: endeme calame uile bahade
7. sajin i tūhere uile gaimbi: ere hergen be jūse omosi jalan

247頁

1. halame efulerakū

[訳] ハンがいうには、「佟養性よ、汝は最初撫順城の商人であった。私の方と関係が

良いのでニカン=ハンに捕まえられ、遼東城の牢獄に監禁されていた。牢獄から出た後、慕って逃げてきた功により娘を与えて婿とし、副将の世職を与えた。遼東を得た後、総兵官の世職を与え、得た漢人の事務を処理せよと政に当たらせた。過って罪を得れば法によって該当する罪を取る。この世職を子孫代々革めない。」

【史料1】に登場する佟養性は、家系としてはジュシェン系(トゥンギャ氏)の一派の出自であるが、その祖先は遼東で明朝の武官となっており、その名前が漢人化していることからもうかがえるように、マンジュ国に帰順した時点ではすでに漢人の文化や社会

38) 『満文原檔』第3冊、285-289頁。

39) 本報告では、録文はメレンドルフ式を原則とし、waw+yodhで表示される母音は、新満文のūに対応するものはū、それ以外はüとした。また正書法と著しく異なる綴りは、テキストに従って転写した。また塗抹・削除は下線、判読不能は---、加筆は{□□□□}、残缺は[□□□□]、擡頭は( )によって示す(以下同)。

規範を受容した存在であった [ 杉山2015 : 329 ]。だが、このような漢人やそれに類する者に与える辞令勅書であっても、その内容構成はマンジュ人に授与される勅書の文面とほとんど同じような内容構成であることを看取す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蔵字檔」の辞令勅書によって授与された世職は、当時のマンジュ人に授けられたものとは異なる序列のもとにあったものと想定される。それは、たとえば【史料2】では佟養性は副将の世職を授与されているが、そこにはマンジュ人が世職として副将を授与される場合とは異なり、一等・二等・三等という等級が書かれていないのである。しかも、ほとんどの場合は世職のみを授けており、マンジュ人に対して与えられる死罪や罰贖の免罪権を与えられたケースは少なく、その場合も他の檔冊に収録されている辞令勅書とは異なる文言となっている。

このように、主に漢人官人に授与された「蔵字檔」の辞令勅書文面は、マンジュ人に授与されたとみられる他の辞令勅書の文面と異なった特徴が含まれており、この観点から遼東征服後の漢人支配の一側面を深く再考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 V . 「黄字檔」辞令勅書

前述した「寒字檔」や「蔵字檔」の辞令勅書に比して、「黄字檔」の辞令勅書は各旗人の旗籍を反映したものであることから、清朝史研究においてはもっとも利用頻度が高く、比較的「有名」な史料である。「黄字檔」辞令勅書の文面は、『満文老檔』にも「天命十一年勅書」として記載されていることから、阿南惟敬によって1960年代から利用されてきた [ 阿南1968 ]。その後、細谷良夫によって、「満文原檔」の「黄字檔」によりオリジナルな情報が記載され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 細谷1991 ]。その書写年代について、細谷良夫、杉山清彦は1625年 ( 天命10年 ) 8月と推定している [ 細谷1991 : 38-40 ] [ 杉山2015 : 40-43 ]。また補訂年代について、細谷は1629 ( 天聡3 ) 年8月に及ぶとし、杉山は1635年末に及ぶ可能性を指摘した [ 杉山1998 : 7 ]。また増井寛也は、「黄字檔」辞令勅書の改訂の下限が改訂の下限は1630年 ( 天聡4年 ) 6月であると考証している [ 増井2015 : 12 ]。

「黄字檔」の辞令勅書は、実は今回紹介する三つの檔冊の中では、ブサンbusanに授与した勅書を除けば、「寒字檔」・「蔵字檔」と比して内容がもっとも極めて簡略な辞令勅書の檔冊である。ここでは、「黄字檔」勅書の代表的な事例として、イングルダイらへの辞令勅書の文面を挙げよう。

【史料2】「黄字檔」、アシダルハン、イングルダイらへの辞令勅書

( 『満文原檔』第4冊 : 365 )

[ 録文 ]

1.Oasidarhan be afabuha uile be mütembi: joriha jurgan be jurcerakū

- seme
2. üju jergi sanjan obuha: ilan {emu} jergi bücere uile be güwebumbi:
  3. Oinggüldai be afabuha uile be mütembi: joriha jurgan be jurcerakū seme ilaci jergi
  4. sanjan obuha: ilan {emu} jergi bücere uile be güwebumbi:
  5. Osuna be yeheci baime jihe güng: jai afabuha uile be mütembi: joriha jurgan be
  6. jurcerakū seme üju jergi sanjan obuha: duin {emu} jergi bücere uile be güwebumbi:

[ 訳 ] アシダルハンを、委ねた仕事をよくし、指示に背かないので一等参将とし、三度 {一度} 死罪を免ずる。イングルダイを、委ねた仕事をよくし、指示に背かないので三等参将とし、三度 {一度} 死罪を免ずる。スナをイエへから慕ってきた功により、また委ねた仕事をよくし、指示に背かないので一等参将とし、四度 {一度} 死罪を免ずる。

このように、「黄字檔」の辞令勅書では、大半の人物について各勅書の文面は一人あたりわずか一～二行に過ぎず、その内容も極めて簡単で、世職と罪の寛免権だけを列記したものが続いている。ただし、これは彼らに与えられた辞令勅書の文面がこれだけの短いものであったということの意味するわけではない。

実は、「黄字檔」の冒頭部分には、辞令勅書を授与された各人物の名前が列記される箇所先立って、各辞令勅書に共通して書かれていたとみられる定型的な教示文言が提示されている。「黄字檔」冒頭部の定型的な文言については、すでに『満文老檔』に収録された該当箇所（『満文老檔』太祖4：999-1000）が満文老檔研究会によって翻訳されており、また辞令勅書の文面を検討した杉山も訳文を紹介している（[杉山2008a：116]）が、本報告の行論においても、この冒頭箇所の定型文言の表現内容は重要であるため、以下にあらためてその訳文を示す。<sup>40)</sup>

**【史料3】「黄字檔」冒頭（『満文原檔』第4冊：349-350）**

[ 訳 ] 「天の命もて時運を承けたハンが言うことに」から「決して怠るな」に至る教示した言葉を、総兵官より下位、備禦に至るまですべての勅書の冒頭にすべて作した。「決して怠るな」に続いて、幾重にも大臣らの名を名指し、功・死罪・贖罪を作した。一つの圈(=○)の下の方が一道の勅書である。{鑲---}天の命もて時運を承けたハンが言うことに、「古の聖なるハンが天下を統治する(時)には、まさに武の威力をもって百姓の民を安んじていた。文の

40) 満文老檔研究会の『満文老檔』訳注および杉山訳も参照しつつ適宜改訳した。

事だけを行わせ、武の事を修めなかったことはない。私は古を模範として武官(の制)を立てた。この勅書を受けた者は正しい心をもって身を処せ。善い心をもって衆を養え。聡い心をもって些細なところを詳しく調べよ。邪なことを知れ。欺くことをやめよ。決して身を暇にするな。このようなことを能くすならば天恩は父祖にも及ぶ。福は子孫らに残る。身も家もとこしえに貴く生きるのである。(この言葉を)敬い決して怠るな。…」

このように、「黄字檔」の辞令勅書の一通一通には、「天の命もて時運を承けたハンが言うことに」から「決して怠るな」に至る教示の文言が記されており、それを「黄字檔」の冒頭に持ってくることで、個々の辞令勅書の写しではそれを逐一挙げずに省略しているのである。このような教示文言の存在が明確に確認されることは、「黄字檔」辞令勅書の重要な特徴であるが、それでは、このような教示文言は何に由来するのだろうか。

それを示唆する興味深い史料が、同じ「満文原檔」の「盈字檔」(『満文原檔』第5冊)に収録されている。それは、十五世紀に毛憐衛都指揮使級の地位にあったワルカの領主ランブルカンに対して明から与えられた、衛所官任命勅書の文面のマンジュ語訳である。清朝建国以前、明朝はジュシェン人の領主たちに名目上、明の軍制上の衛所官職を授与し、間接的に支配していた。このとき、衛所官職に任命された領主たちには衛所官の任命勅書が授与された。そして、この衛所官任命勅書の受信者ランブルカンはヌルハチの時まで名の知られるワルカのニューフル氏の大領主であった。ヌルハチはこの任命勅書を見て激賞し、それによってこの文面がマンジュ語に訳され、記録されたのである。

当該記事は、『満文老檔』に収録され、すでに翻訳されている(『満文老檔』太祖2:856-857)ほか、「盈字檔」の該当箇所(『満文原檔』第4冊:93-96)についてもすでに承志によってその全文の録文と解釈が示されている[承志2009:42-43、73]。そのため、ここではその訳文<sup>41)</sup>の冒頭【史料4-a】と末尾【史料4-b】のみ挙げるが、これを【史料3】と対比すると、非常に興味深いことが判明する。

#### 【史料4-a】「盈字檔」、天命8年7月23日

天の詔の時運を書いた書。天に命を承けた皇帝が言うに『私が思うに、皇帝たる者は国を治めて天下を一家とするために、大軍を整えて民を安らかにし、遠近を区別せず、みな大臣らを設けて管理させたのである。…

#### 【史料4-b】「盈字檔」、天命8年7月23日

…汝が大道をますます固く良く{謹んで}勤め、汝が管轄する軍民を統制し、辺境の地

41) 満文老檔研究会の『満文老檔』訳注および承志訳を参照しつつ適宜改訳した。

を守り安んじ、狩猟をして家畜を養い、自由にあらゆるものを増やして、終始  
悪事を  
なさずに生きれば、天は慈しんで照覧し、汝の子孫らの世に到るまで福が及ん  
で将来  
も貴く生きるのである。我がこの義を軽んずるな。永---〈永楽?〉十四年正月二  
十。

すなわち、「黄字檔」辞令勅書の冒頭部分と極めて文言が似通っているのである。まず冒頭部分については、「天の詔の時運を承けたハン（皇帝）」という表現や、あるいは過去のハン（皇帝）の事蹟として、すなわち武威による民の安撫が共通して挙げられている。また末尾についても、君主の指示を守れば福德が一族に及び、子孫も貴く生きられるので、軽んじるな、という趣旨が述べられるという建て付けは全く一致している。

ランブルカンに授与された明の衛所官辞令勅書に見える「天の詔により時運を承けた皇帝」といった表現は明らかに、明が授与する勅書にみられる「奉天承運」という文言に相当することなどから、「盈字檔」に収録されている文面は実物の衛所官勅書の漢文を忠実にマンジュ語訳したものとみてよいだろう。そしてそれをヌルハチがみて激賞したという記録があり、片やそのヌルハチから旗人たちへ発給された「黄字檔」辞令勅書の冒頭・末尾の定型文言が極めて似通っていることは、「黄字檔」の辞令勅書が、明の衛所官任命勅書を参考にして作られたものである可能性を強く示唆しているのである。

## Ⅵ．おわりに

以上のように、本報告では辞令勅書の写しを収録した「寒字檔」、「葺字檔」、「黄字檔」の各檔冊について、それぞれの違いに留意して、その辞令勅書文面の特徴を紹介した。「寒字檔」の辞令勅書は八旗制が確立していく中で最初期の段階に発給されたものとみられる。「葺字檔」のものはマンチュリアの森林地帯を出て、漢人が多く住む遼東地方に進出した時期に、漢人系の人物に授与された辞令勅書であった。そして「黄字檔」辞令勅書は、非常にシンプルな内容の勅書が続くが、実はその冒頭・末尾の定型部分の文面は、明の衛所官任命勅書のそれと非常によく似通っているものであった。

既に先行研究によって指摘される通り、「寒字檔」「葺字檔」「黄字檔」がいずれも、マンジュ国家期には辞令勅書と照らし合わせるべき台帳として機能したことは、その補訂の痕跡からみて疑いない。だが、本報告で取り上げたように、辞令勅書の文面が写された「満文原檔」の檔冊と一口にいっても、その性質（時期や授与の対象など）は檔冊ごとに多様であり、それに応じてその文面の内容にも、異なる特徴があらわれている。「満文原檔」を用いて辞令勅書を扱う際には、檔冊ごとのこのような性質の違いに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そのことは、辞令勅書を研究する際には、文書そのものだけではな



く、それと対応する各檔冊について分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もある。このような「モノ」としての各檔冊の性質の検討を踏まえた上で、マンジュ国家にとって辞令勅書とは何であったのか、という研究上の重大問題に取り組む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

[ 史料 ]

『満文原檔』全十冊、台北、故宮博物院、2005.

『満文老檔』満文老檔研究会訳注、全七冊、東京、東洋文庫、1955-63.

李広濤編著『明清檔案存真選輯』(初集)、台北、中央研究院歴史語言研究所、1959.

[ 参考文献 ]

日本語

阿南惟敬 1968 「清初二ル額真考 上・下」[阿南1980] pp. 268-331. (原載：『防衛大学校紀要』16・17)

1980 『清初軍事史研究』甲陽書房.

加藤直人 1993 「入関前清朝の法制史料」[加藤2016] pp.17-56.

(原載：滋賀秀三編『中国法制史』東京大学出版会)

2016 『清代文書史料の研究』汲古書院.

神田信夫 1979 「『満文老檔』から『旧満洲檔』へ」[神田1992] pp. 12-48.

(原載：『明治大学人文科学研究所年報』20)

1992 『満学五十年』刀水書房.

承 志 2009 『ダイチン・グルンとその時代』名古屋大学出版会.

杉山清彦 1998 「清初正藍旗考」『史学雑誌』107-7, pp. 1-38.

2008a 「清代マンジュ(満洲)人の家と国家」加藤雄三ほか編『東アジア内海世界の交流史』人文書院, pp. 105-130.

2008b 「八旗制下のマンジュ氏族」細谷良夫編『清朝史研究の新たなる地平』山川出版社, pp. 22-51.

2015 『大清帝国の形成と八旗制』名古屋大学出版会.

谷井俊仁 2005 「一心一徳考」『東洋史研究』63-4, pp. 68-104.

細谷良夫 1991 「『満文原檔』「黄字檔」について」『東洋史研究』49-4, pp. 20-46.

1992 「布山総兵官考」『神田信夫先生古稀記念論集 清朝と東アジア』山川出版社, pp. 165-182.

増井寛也 2007 「マンジュ国〈五大臣〉設置年代考」『立命館文学』601, pp. 50-75.

2012 「清初〈専管ニル〉再論」『立命館東洋史学』35, pp. 1-30.

2015 「天命後半期グサ別ニルの数量的考察」『立命館東洋史学』38, pp. 1-45.

松浦 茂 1984 「天命年間の世職制度」『東洋史研究』42-4, pp. 105-129.

松村 潤 1985 「『寒字檔』漢訳勅書」[松村2008] pp. 268-309. (原載：『内陸アジア史研究』2)

2008 『明清史論考』山川出版社.

三田村泰助 1963-64 「ムクン・タタン制の研究」[三田村1965] pp. 107-282.

(原載：『明代満蒙史研究』京都大学文学部／『立命館文学』223)

1965 『清朝前史の研究』同朋舎.

中国語

陳 捷先 1969 「『旧滿洲檔』述略」『旧滿洲檔』國立故宮博物院編, pp.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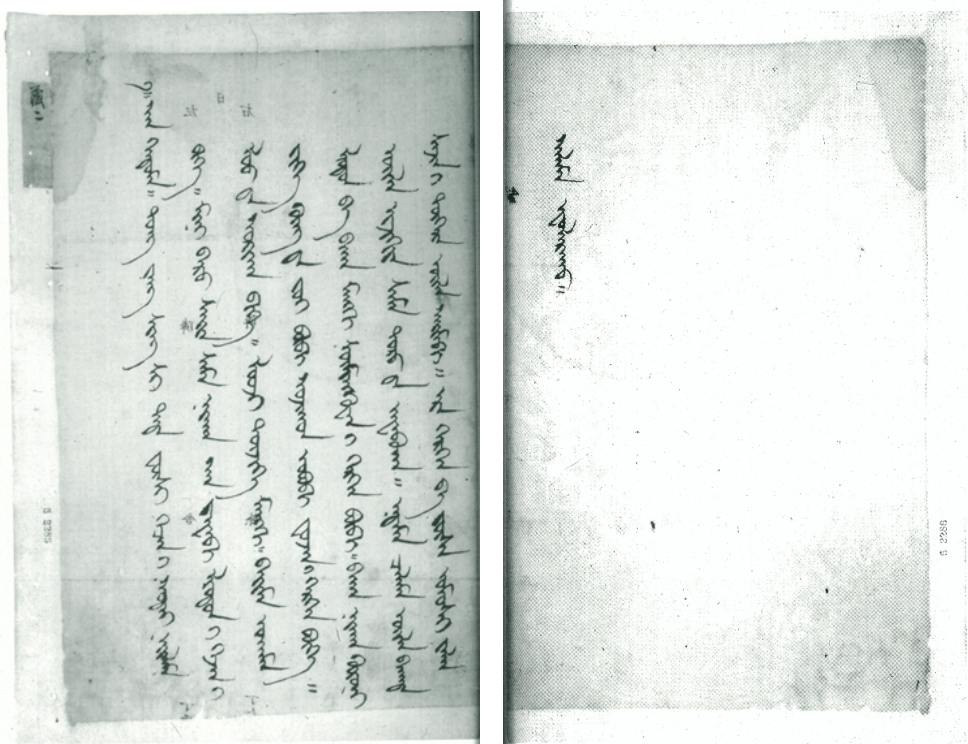
広禄・李学智 1965 「『老滿文原檔』与『滿文老檔』之比較研究」中国東亞學術研究計画委員会  
年報第四期.

趙志強 2019 「論滿文「無圈点檔」」『清史研究』2019-2、pp. 2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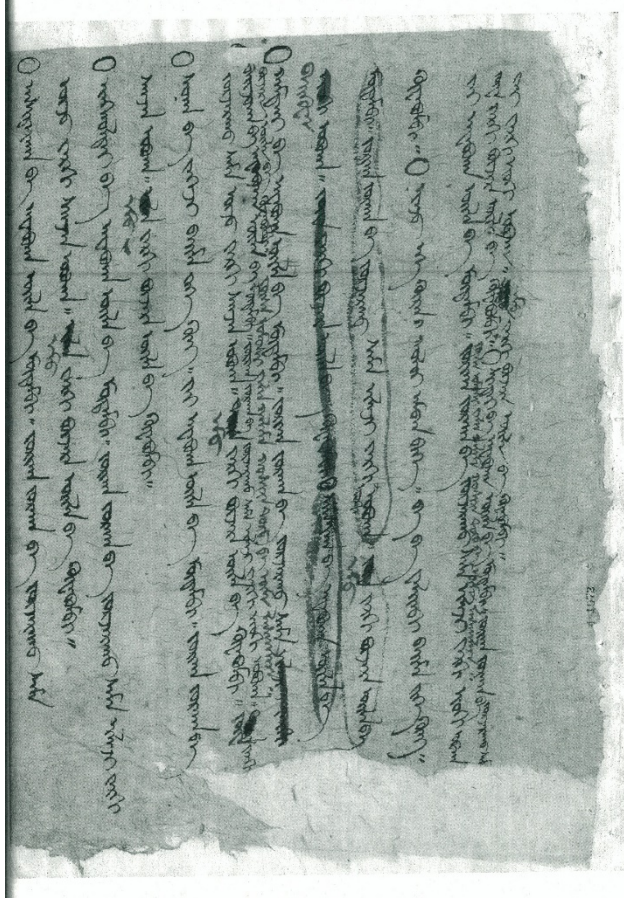
[ 図1 ] 『明清檔案存真選輯』初集、62頁、図版式拾陸



[ 図2 ] 【史料2】「蔵字檔」辞令勅書、『満文原檔』第5冊, pp. 246-247.



[ 图3 ] 【史料3】「黄字檔」辞令勅書、『滿文原檔』第4冊, p. 365





#### 【토론문4】

### “「滿文原檔」にみえる17世紀マングユ国家の 滿文辞令勅書とその台帳” 토론문

이선애(경상국립대)

이 글은 누르하치 시기 작성된 滿文 辭令 칙서 즉 'ejehe'의 양태와 성격을 분석한 글이다. 'ejehe(記錄 혹은 勅書)'는 수여 대상자들이 세운 공적과 이에 따라 수여된 世職, 각종 특권이 상세히 기록된 임명장이자 이후 대상자들에 대한 상벌과 자손이 누리는 특혜에 참고가 되는 장부로도 기능했다. 따라서 ejehe는 초기 만주 정권의 정치 관행과 특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글은 초기 만문 자료인 「滿文原檔」 중에서 ejehe를 기록한 「寒字檔」, 「藏字檔」, 「荒字檔」을 소개하고 그 양태와 성격을 분석했다. 필자들은 ejehe를 분석, 활용한 기존 연구성과를 꼼꼼히 검토하여 초기 만문 자료 중 ejehe가 갖는 사료적 가치와 의의를 충실히 소개했다. 청사를 연구하는 본 토론자도 초기 만주 정권에서 작성한 ejehe의 특징과 의미에 큰 관심이 있던 터라 필자들의 글이 매우 흥미로웠으며 토론자가 ejehe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래에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여 필자들의 견해를 청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글의 주제에 대한 토론자와 청중의 이해를 提高하고 글로 다 드러내지 못한 필자들의 생각을 듣고자 한다.

첫째, 필자 및 여러 연구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당책이 작성된 시기는 「寒字檔」→「藏字檔」→「荒字檔」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필자들은 각 당책 작성 시기와 형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여 당책의 요점을 간단명료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다만 한자당, 장자당, 황자당의 양태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성 시기가 다른 文書群이 보이는 차이와 변화가 만주 정권의 ejehe 작성 관행과 활용 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ejehe가 반영하고 있는 만주 정권의 성격과 ejehe가 국가 건설 과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둘째, 「한자당」, 「장자당」, 「황자당」을 통해 ejehe의 초기 형태가 시간이 흐르면서 표준화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도출하고 이러한 ejehe 작성 관례가 이후 시기에 미친 영향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황자당」에 공통적으로 적혀 있는 정형적인 敕示 문구가 이후 崇德 元年 책봉 문서에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누르하치

시기에 작성된 ejehe가 훙타이지 시기에는 어떤 양태로 변화 혹은 정형화되었는지도 비교 검토한다면 입관 전 만주 정권에서 작성된 ejehe의 성격과 역할, 변화상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와 관련해 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은 문제가 있다. 「황자당」의 교시 문구가 명의 위소관 임명 칙서를 모방한 것처럼 송덕 원년 책봉 문서에도 명 제도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명의 제도를 모방했다’라는 말로 일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도입 시기에 명의 관례를 받아들였지만 이것이 차츰 만주정권의 양태로 정형화되는 과정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몽골이나 만주 고유의 특징이 가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필자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여러 당책을 큰 시야에 놓고 변화의 흐름을 살피는 한편 각 당책을 보다 세 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He Bian은 「寒字檔」을 면밀히 분석해 초기 만주 정권의 성격을 논하였다(He Bian, “Of Wounded Bodies and the Old Manchu Archive: Documenting Personnel Management in the Early Manchu State”, *Saksaha*, vol.16, 2019). 「寒字檔」은 228명의 군관들이 전장에서 입은 부상의 유형과 숫자, 이에 따른 償賜를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이는 만주 정권의 군사 정권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 만문과 함께 다소 허술한 한문 기록이 병존하는 양태를 통해 당시 만주 정권의 기록 문화에 대해 논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각 ejehe 문서들이 갖는 특징을 자세하게 제시한다면 더 풍부한 이야기가 전달될 것이다.



【제5발표】

## 시립하코다테박물관 소장 청대 고명 소개

임경준(동국대)

---

문제의 소재

1. 코다마 컬렉션 H10-51-45-27
2. 코다마 컬렉션 H10-51-45-28

餘論: 코다마 컬렉션과 清代誥命



2023년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도쿄대 사료편찬소 공동학술대회

## 물품으로서의 동유라시아 공문서



## 市立函館博物館 所藏 清代 誥命 소개

임경준(동국대 문화학술원)

### 문제의 소재

#### ◇ 明清時代の 公文書, '誥命'

: 明清時代 皇帝가 臣下나 그 親族에게 爵位를 수여할 때에 內閣에서 발급하는 公文書 양식

· 誥命: 5품 이상 ↔ 勅命: 6품 이하

\* 入關前 清朝의 경우 모두 만주어로 'hese'로 표기

· 품계나 관직을 수여할 때 발급하는 임명장이라는 점에서 朝鮮의 '告身'에 상당하는 문서

; 국내만이 아니라 외국의 국왕에게도 발급되어 일종의 외교문서로서도 기능하기도 함

ex) 「萬曆二十二年封豊臣秀吉爲日本國王誥命」(1594년 / 大阪歴史博物館 소장)

「敬義君緯王世子冊封誥命」(1725년 / 藏書閣 소장)

#### ※ 明清時代 公文書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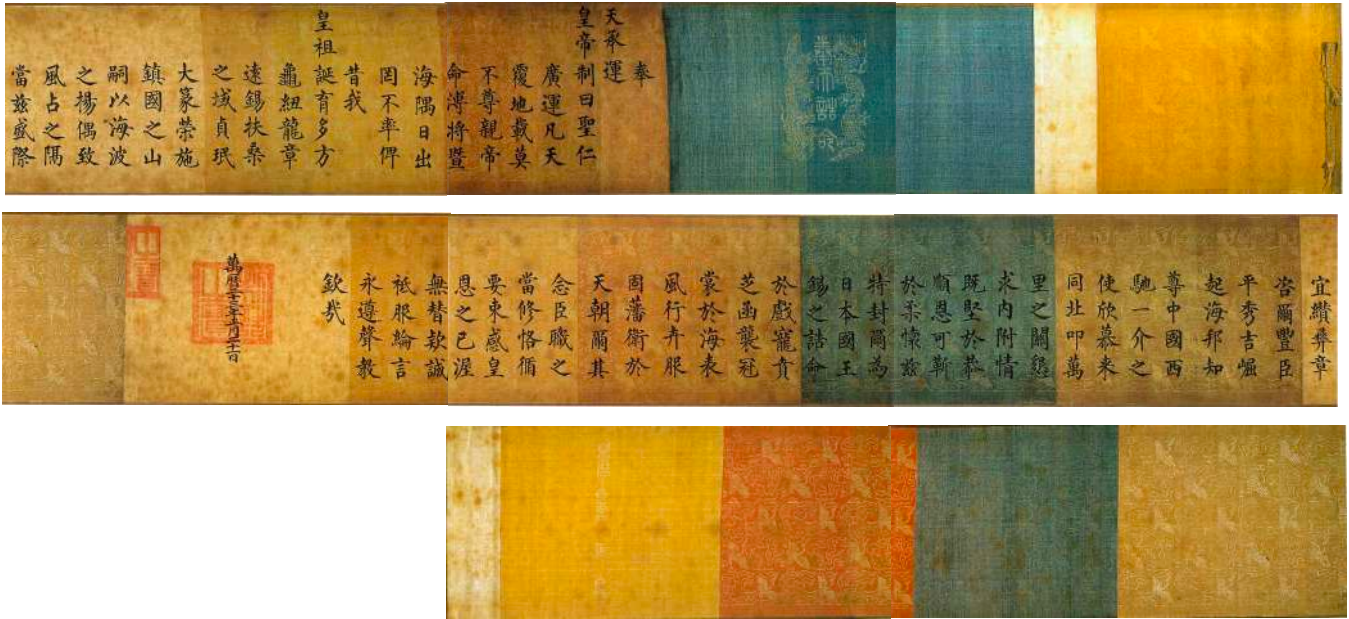
· 下行文書 ① 皇帝文書: 詔·誥·制·勅·冊·諭·符·令·檄·旨

② 官文書: 劄文·劄付·牌文·票文·牌檄

· 上行文書: 咨呈·呈文·申文·申呈·詳文·牒呈·廩文

· 平行文書: 咨文·移會·移文·關文·照會

# 明代の誥命



「萬曆二十二年封豊臣秀吉爲日本國王誥命」(大阪歴史博物館 소장)

# 清代의 誥命



「敬義君緯王世子冊封誥命」(藏書閣 소장)



## 문제의 소재

### ◇ 市立函館博物館에 소장된 두 건의 清代 ‘誥命’

- 2020년 나카무라 가즈유키(函館大學) 선생의 敎示
- 코다마 컬렉션(児玉コレクション)에서 재발견  
→ 소장번호 H10-51-45-27 / H10-51-45-28
- 2022년 函館 실물조사를 계획했으나 발표자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취소 → 이미지 파일 입수
- 2023년 8월 중순 函館 방문하여 실물 조사 예정

### ◇ 본 발표의 목적

: 코다마 컬렉션에 소장된 清代 誥命 두 건의 문서양식(起頭語·昇降龍·御寶)와 내용(수신자)의 소개



하코다테(函館)의 위치

## 문제의 소재

### ◇ 市立函館博物館에 소장된 두 건의 清代 ‘誥命’

- 2020년 나카무라 가즈유키(函館大學) 선생의 敎示
- 코다마 컬렉션(児玉コレクション)에서 재발견  
→ 소장번호 H10-51-45-27 / H10-51-45-28
- 2022년 函館 실물조사를 계획했으나 발표자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취소 → 이미지 파일 입수
- 2023년 8월 중순 函館 방문하여 실물 조사 예정

### ◇ 본 발표의 목적

: 코다마 컬렉션에 소장된 清代 誥命 두 건의 문서양식(起頭語·昇降龍·御寶)와 내용(수신자)의 소개



市立函館博物館



市立函館博物館 소장 동전 더미

## 문제의 소재

### ◇ 市立函館博物館에 소장된 두 건의 清代 ‘誥命’

- 2020년 나카무라 가즈유키(函館大學) 선생의 敎示
- 코다마 컬렉션(児玉コレクション)에서 재발견  
→ 소장번호 H10-51-45-27 / H10-51-45-28
- 2022년 函館 실물조사를 계획했으나 발표자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취소 → 이미지 파일 입수
- 2023년 8월 중순 函館 방문하여 실물 조사 예정

### ◇ 본 발표의 목적

: 코다마 컬렉션에 소장된 清代 誥命 두 건의 문서양식(起頭語·昇降龍·御寶)와 내용(수신자)의 소개



H10-51-45-27



H10-51-45-28

## 1. 코다마 컬렉션 H10-51-45-27



漢文右邊



滿文左邊

# 1. 코다마 컬렉션 H10-51-45-27

## ◇ 코다마 컬렉션 H10-51-45-27의 標題

- 두루마리 책자(=卷子本)로 별도의 函에 보관
- 右邊부터 左邊을 향해 말아가는데, 左邊 끝에 標題를 기입
- \* 標題: 誥命의 수급자를 기입해 놓은 곳

正藍旗漢軍二等昭信伯二等侍衛  
兼勳舊佐領加二級崇岳之父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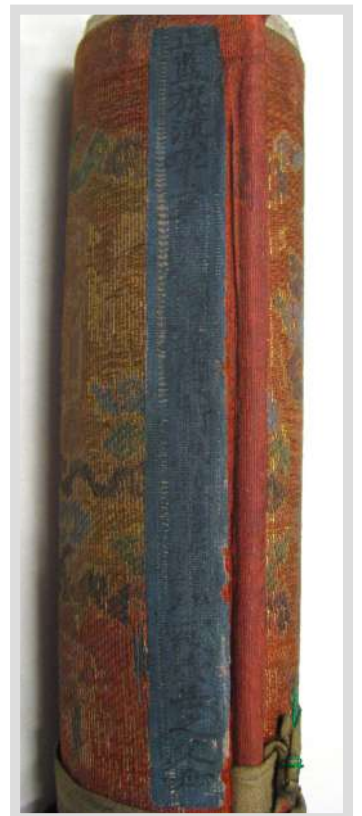


# 1. 코다마 컬렉션 H10-51-45-27

正藍旗漢軍二等昭信伯二等侍衛  
兼勳舊佐領加二級崇岳之父母

## ◇ 標題의 분석

- 正藍旗漢軍: 누르하치의 庶子 아바타이(Abatai)가 分封된 八旗 중 下五旗의 하나
- 二等昭信伯: 爵位 체계인 世職制(hergen)에서 公·侯에 이은 伯
- 二等侍衛: 皇帝의 親衛隊인 侍衛(hiya)를 지칭
- 勳舊佐領: 雍正帝의 佐領三分法에 의해 분류된 니루로 니루의 장 (=佐領)과 소속 旗人의 私屬 관계가 짙은 것이 특징
- 加二級: 포상제도인 加級制의 표현으로 品俸의 2급 상승을 의미
- 崇岳之父母: 旗人 崇岳(Congyo)의 父 李杰과 母 吳氏 = 수급자





# 1. 코다마 컬렉션 H10-51-45-27

## ◇ 起頭語(漢文 부분)

- 昇降龍 사이에 篆書로 “奉天誥命” 기입
- 誥命의 첫머리는 “奉天承運, 皇帝制曰”  
→ 몽골제국의 명령문 서식에서 유래

長生天氣力裏,  
大福蔭護助裏,  
皇帝聖旨

möngke tngri-yin küčün-dür  
yeke suu jali-yin ibegen-dür  
qayan jarliy man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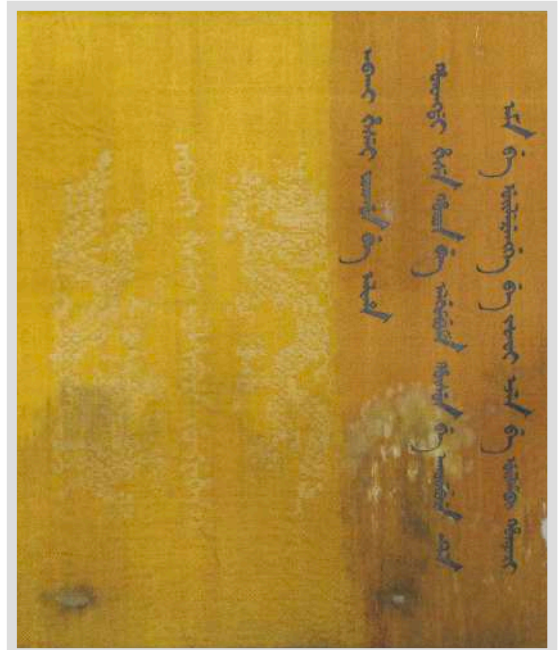
→ 明代에 개정되어 清代로 계승



# 1. 코다마 컬렉션 H10-51-45-27

## ◇ 起頭語(滿文 부분)

- 昇降龍에 滿文 “**abkai hese ulhibure fungnehen**”  
→ abkai hese : 하늘의 명 / ulhibure fungnehen : 誥命
- 일반적으로 王公이나 旗人에게 내리는 誥命의 昇降龍에는 “abkai hesei g’oming”이 기재됨  
ex) 「理藩院左侍郎拖沙喇哈番兼佐領加七級滿丕本身及妻誥命」(日本國會圖書館 소장/1697)
- 5종에 이르는 『大清會典』과 事例는 漢文만을 규정하고 있어 滿文은 어떠한지 알 수 없음
- 管見이기는 하나 父母와 妻의 경우에는 “abkai hese ulhibure fungnehen”의 사용이 빈번
- 「嘉慶十一年奉天誥命」(British Library 소장 / 1807)





# 1. 코다마 컬렉션 H10-51-45-27

## ◇ 起頭語(滿文 부분)

- 昇降龍에 滿文 “abkai hese ulhibure fungnehen”  
→ abkai hese : 하늘의 명 / ulhibure fungnehen : 誥命
- 일반적으로 王公이나 旗人에게 내리는 誥命의 昇降龍에는 “abkai hesei g’oming”이 기재됨  
ex) 「理藩院左侍郎拖沙喇哈番兼佐領加七級滿丕  
本身及妻誥命」(日本國會圖書館 소장/1697)
- 5종에 이르는 『大清會典』과 事例는 漢文만을 규정하고 있어 滿文은 어떠한지 알 수 없음
- 管見이기는 하나 父母와 妻의 경우에는 “abkai hese ulhibure fungnehen”의 사용이 빈번
- 「嘉慶十一年奉天誥命」(British Library 소장 / 1807)



「理藩院左侍郎拖沙喇哈番  
兼佐領加七級滿丕本身及妻誥命」

# 1. 코다마 컬렉션 H10-51-45-27

## ◇ 起頭語(滿文 부분)

- 昇降龍에 滿文 “abkai hese ulhibure fungnehen”  
→ abkai hese : 하늘의 명 / ulhibure fungnehen : 誥命
- 일반적으로 王公이나 旗人에게 내리는 誥命의 昇降龍에는 “abkai hesei g’oming”이 기재됨  
ex) 「理藩院左侍郎拖沙喇哈番兼佐領加七級滿丕  
本身及妻誥命」(日本國會圖書館 소장/1697)
- 5종에 이르는 『大清會典』과 事例는 漢文만을 규정하고 있어 滿文은 어떠한지 알 수 없음
- 管見이기는 하나 父母와 妻의 경우에는 “abkai hese ulhibure fungnehen”의 사용이 빈번
- 「嘉慶十一年奉天誥命」(British Library 소장 / 1807)



「嘉慶十一年奉天誥命」

# 1. 코다마 컬렉션 H10-51-45-27

## ◇ 御寶

: 誥命의 발급일자 위에 御寶가 날인됨

가운데에 발급일자, 좌우에 標題가 기입된 형태

· 일자: “道光參拾年肆月拾參日” → 1850년  
“doro eldengge i gūsici aniya duin biyai juwan i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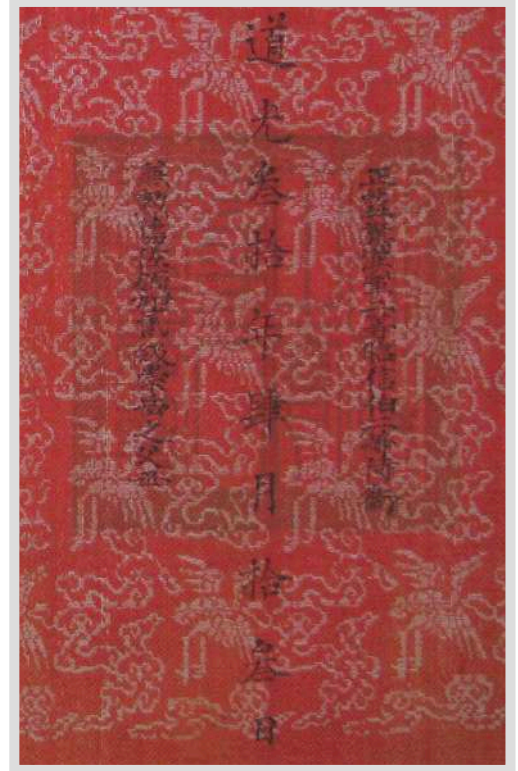
· 御寶: 滿漢合璧 “制誥之寶” → 右邊  
“hese wesinbure boobai” → 左邊

ex) 「同治十一年奉天誥命」(British Library 소장 / 1873)

↔ 「康熙二十三年奉天誥命」(上同 / 1684)

↔ 「敬義君絳王世子冊封誥命」(藏書閣 소장 / 1725)

\* 18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御寶의 滿文이 篆書로 변화



# 1. 코다마 컬렉션 H10-51-45-27

## ◇ 御寶

: 誥命의 발급일자 위에 御寶가 날인됨

가운데에 발급일자, 좌우에 標題가 기입된 형태

· 일자: “道光參拾年肆月拾參日” → 1850년  
“doro eldengge i gūsici aniya duin biyai juwan ilan”

· 御寶: 滿漢合璧 “制誥之寶” → 右邊  
“hese wesinbure boobai” → 左邊

ex) 「同治十一年奉天誥命」(British Library 소장 / 1873)

↔ 「康熙二十三年奉天誥命」(上同 / 1684)

↔ 「敬義君絳王世子冊封誥命」(藏書閣 소장 / 1725)

\* 18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御寶의 滿文이 篆書로 변화



# 1. 코다마 컬렉션 H10-51-45-27

## ◇ 御寶

: 誥命의 발급일자 위에 御寶가 날인됨

가운데에 발급일자, 좌우에 標題가 기입된 형태

· 일자: “道光參拾年肆月拾參日” → 1850년  
 “doro eldengge i gūsici aniya duin biyai juwan ilan”

· 御寶: 滿漢合璧 “制誥之寶” → 右邊  
 “hese wesinbure boobai” → 左邊

ex) 「同治十一年奉天誥命」(British Library 소장 / 1873)

↔ 「康熙二十三年奉天誥命」(上同 / 1684)

↔ 「敬義君絳王世子冊封誥命」(藏書閣 소장 / 1725)

\* 18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御寶의 滿文이 篆書로 변화



「同治十一年奉天誥命」

# 1. 코다마 컬렉션 H10-51-45-27

## ◇ 御寶

: 誥命의 발급일자 위에 御寶가 날인됨

가운데에 발급일자, 좌우에 標題가 기입된 형태

· 일자: “道光參拾年肆月拾參日” → 1850년  
 “doro eldengge i gūsici aniya duin biyai juwan ilan”

· 御寶: 滿漢合璧 “制誥之寶” → 右邊  
 “hese wesinbure boobai” → 左邊

ex) 「同治十一年奉天誥命」(British Library 소장 / 1873)

↔ 「康熙二十三年奉天誥命」(上同 / 1684)

↔ 「敬義君絳王世子冊封誥命」(藏書閣 소장 / 1725)

\* 18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御寶의 滿文이 篆書로 변화



「康熙二十三年奉天誥命」



# 1. 코다마 컬렉션 H10-51-45-27

## ◇ 御寶

: 誥命의 발급일자 위에 御寶가 날인됨

가운데에 발급일자, 좌우에 標題가 기입된 형태

· 일자: “道光參拾年肆月拾參日” → 1850년  
“doro eldengge i gūsici aniya duin biyai juwan ilan”

· 御寶: 滿漢合璧 “制誥之寶” → 右邊  
“hese wesinbure boobai” → 左邊

ex) 「同治十一年奉天誥命」(British Library 소장 / 1873)

↔ 「康熙二十三年奉天誥命」(上同 / 1684)

↔ 「敬義君絳王世子冊封誥命」(藏書閣 소장 / 1725)

\* 18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御寶의 滿文이 篆書로 변화



「敬義君絳王世子冊封誥命」

# 1. 코다마 컬렉션 H10-51-45-27

## ◇ 誥命의 수급자

: 正藍旗 漢軍 소속 旗人 崇岳(Congyo)의 父 李杰과 母 吳氏

【사료1】『清國史』, 「李慶雲傳」: 李慶雲, 漢軍正藍旗人. 乾隆…… 四十六年, 遷治儀正, 尋兼公中領. …… 道光十五年, 卒. 子杰, 候補筆帖式. 孫崇岳, 襲二等昭信伯, 兼勳舊佐領事, 三等侍衛.

【사료2】『欽定八旗通志』卷42, 「旗分志」: 第二參領, 第三佐領, 係崇德年間編設. 初以王應久管理…… 以詩武里額駙 佟養性之族孫佟圖茂管理. 佟圖茂故, 以佟與善管理. …… 佟鏞故, 以明阿善管理. 明阿善故, 以李慶雲管理. 續以趙士鎧管理. 謹案, 此原係勳舊佐領, 明阿善故, 後無嗣, 乾隆五十年奉旨, 作為公中佐領.

· 崇岳(Congyo)의 家系는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 않던 하급 旗人 李慶雲으로 거슬러 올라감.

· 李慶雲은 正藍旗 漢軍 2갈란 3니루 소속이었다가 일시적으로 니루의 장인 佐領에 승임

· 李慶雲 사후 자식 李杰은 서기관으로 근무. 【사료1】에서는 손자 崇岳이 “襲二等昭信伯”이라는 것으로 보아 李杰대에 世職을 받은 것으로 기술.

· 그러나 본 誥命에 따르면 崇岳의 활약을 통해 李杰에게 “二等昭信伯”의 작위가 追贈

## 2. 코다마 컬렉션 H10-51-45-28



漢文右邊



滿文左邊

## 2. 코다마 컬렉션 H10-51-45-28

### ◇ 코다마 컬렉션 H10-51-45-28의 標題

- 두루마리 겉 표면에 標題가 없음
- 두루마리 右邊 끝에 띠지 같은 手記가 달려 있음  
→ 소장자 코다마 사쿠자에몬(児玉作左衛門/1895~1970)의 메모

乾隆十六年(一七五一)  
辛未 十一月 廿五日  
高宗 三代王  
宝厂元年  
奉天辞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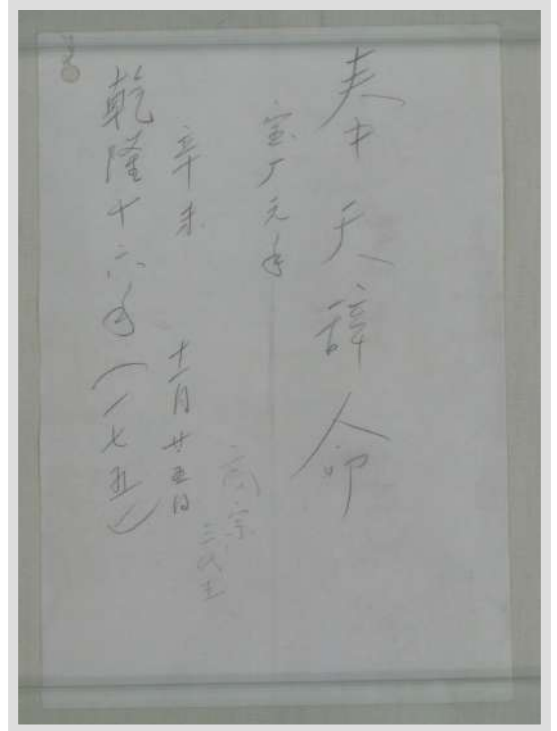


## 2. 코다마 컬렉션 H10-51-45-28

### ◇ 코다마 컬렉션 H10-51-45-28의 標題

- 두루마리 겉 표면에 標題가 없음
- 두루마리 右邊 끝에 띠지 같은 手記가 달려 있음  
→ 소장자 코다마 사쿠자에몬(児玉作左衛門/1895~1970)의 메모

乾隆十六年(一七五一)  
辛未 十一月 廿五日  
高宗 三代王  
宝厂元年  
奉天辞命



## 2. 코다마 컬렉션 H10-51-45-28

### ◇ 起頭語(漢文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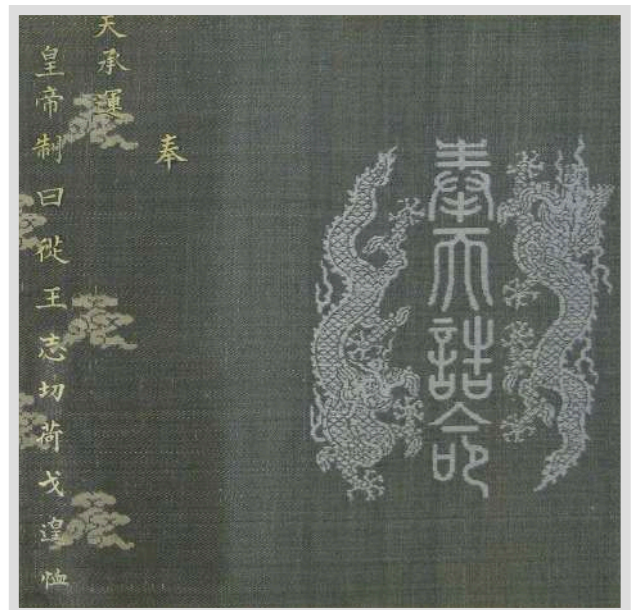
- 昇降龍 사이에 篆書로 “奉天誥命” 기입
- 誥命의 첫머리는 “奉天承運, 皇帝制曰”

### ◇ 起頭語(漢文 부분)

- 昇降龍에 “abkai hese ulhibure fungnehen”

⇒ 昇降龍은 H10-51-45-27과 동일 양식

※ 본 誥命의 경우에도 수급자는 旗人의 母親





## 2. 코다마 컬렉션 H10-51-45-28

### ◇ 起頭語(漢文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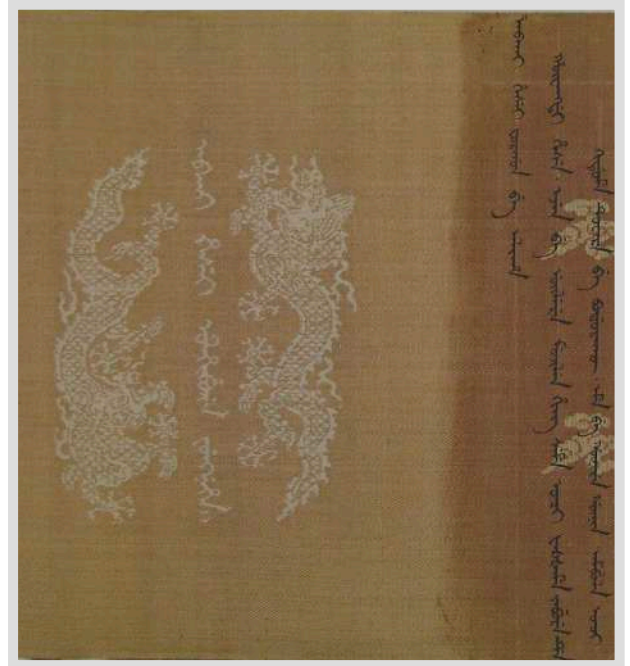
- 昇降龍 사이에 篆書로 “奉天誥命” 기입
- 誥命의 첫머리는 “奉天承運, 皇帝制曰”

### ◇ 起頭語(漢文 부분)

- 昇降龍에 “abkai hese ulhibure fungnehen”

⇒ 昇降龍은 H10-51-45-27과 동일 양식

- ※ 본 誥命의 경우에도 수급자는 旗人의 母親



## 2. 코다마 컬렉션 H10-51-45-28

### ◇ 御寶

: 誥命의 발급일자 위에 御寶가 날인됨

가운데에 발급일자, 좌우에 標題는 생략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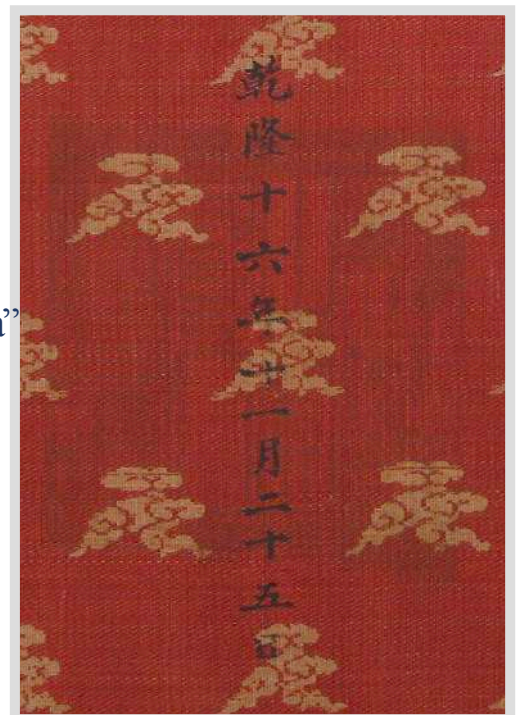
- 일자: “乾隆十六年十一月二十日” → 1751년

“abkai wehiyehe i juwan ninguci aniya omšon biyai sunja”

- 御寶: 滿漢合璧 “制誥之寶” → 右邊

“hese wesinbure boobai” → 左邊

⇒ 御寶 역시 H10-51-45-27과 동일 양식



## 2. 코다마 컬렉션 H10-51-45-28

### ◇ 御寶

: 誥命의 발급일자 위에 御寶가 날인됨

가운데에 발급일자, 좌우에 標題는 생략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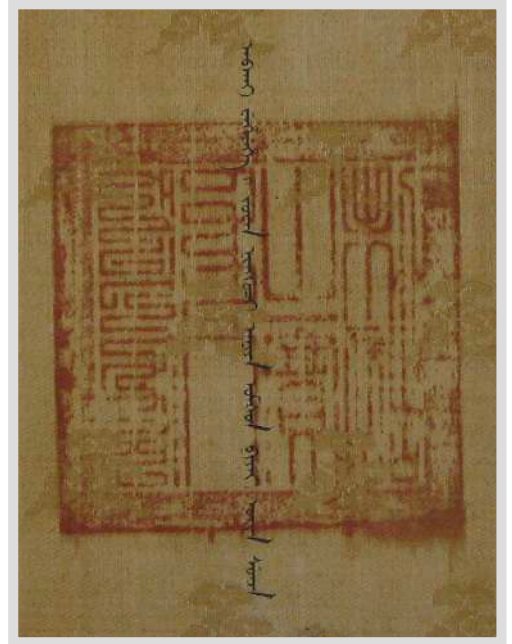
· 일자: “乾隆十六年十一月二十日” → 1751년

“abkai wehiyehe i juwan ninguci aniya omšon biyai sunja”

· 御寶: 滿漢合璧 “制誥之寶” → 右邊

“hese wesinbure boobai” → 左邊

⇒ 御寶 역시 H10-51-45-27과 동일 양식



## 2. 코다마 컬렉션 H10-51-45-28

### ◇ 誥命의 수급자

: 鑲白旗 소속 와르카 지방 우수(usu)씨 穆吉倫(mujilen)의 生母 陳氏

【사료3】『八旗滿洲氏族通譜』卷37, 「吉普喀達」傳: 吉普喀達(Gibkada), 鑲白旗人, 吉思哈(Gisha)之親弟也. 世居瓦爾喀地方, 國初來歸, 證明有功, 授為一等輕車都尉, 從征鳳集堡身亡. 其子瓜爾察(Gūwalca)承襲二等輕車都尉, 卒. 其弟尼滿(Niman)承襲. 圍錦州, 擊敗松山馬兵, 定鼎燕京時, 入山海關, 擊流賊馬步兵二十萬衆, 復追至慶都縣, 大敗之, 授為一等輕車都尉, 兼一雲騎尉, 卒. 其親兄之子穆舒渾(Mušuhun)承襲……又吉普喀達之孫特世渾(Tešihun), 原任頭等護衛, 托晉原任佐領. 曾孫穆森(Musen), 原任都統, 穆祿(Mulu)原任員外郎, 薩爾布(Sarbu)原任二等護衛……元孫福成格(Fucengge), 現任佐領, 穆濟倫(Mujilen)現任郎中, 穆敦(Mudun)原任叅領, 穆爾泰(murtai)原任護軍校, 穆蘭(Mulan)原任筆帖式. …… 由正白旗改隸.

· 穆吉倫(Mujilen)의 家系는 皇帝가 직접 거느리는 上三旗 중 하나인 正白旗 소속이었다가 홍타이지의 장자 호거(Hooge)의 후손이 거느리는 鑲白旗로 옮겨짐

· 入關前 有力 旗人으로 활약했던 吉思哈(Gisha)의 일족으로 八旗官 중에서도 최고위직인 都統 책임자를 다수 배출할 정도의 명문가 → 誥命에서 穆吉倫의 관직은 “御史兼佐領加一級”



## 餘論: 코다마 컬렉션과 清代 誥命

### ◇ 코다마 컬렉션의 창시자

: 코다마 사쿠자에몬(児玉作左衛門 / 1895~1970)

- 해부학자(골격학) + 형질인류학(아이누 민족학)
- 도호쿠 제국대학 의학부 졸업(의학박사)
- 도호쿠 제대· 홋카이도 제대 의학부 교수 역임
- 1930년대 중반부터 아이누 연구에 본격 돌입  
→ ‘코다마 컬렉션’의 형성

### ◇ 코다마 컬렉션과 清代 誥命

- 아이누 민족 관계 자료 2만여점으로 구성
- 코다마의 清代 誥命 입수 경위는 불분명  
⇒ 골동품 취미? 아이누와 만주의 교류에 관심?  
⇒ 향후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 중의 하나



## 참고문헌

- 구범진(2019), 「崇徳年間 清朝의 朝鮮 王室 冊封과 冊封文書」, 『명청사연구』 52, pp.71-106.
- 심영환(2019), 「藏書閣 소장 滿漢合璧文書の 滿洲語 轉寫」, 『태동고전연구』 42, pp.227-256.
- 홍성구(2015), 「국내 소장 滿文 文書 소개」, 『古文書研究』 47, pp.213-233.
- 홍성구(2016a), 「國內 所藏 滿文 文書 譯註」, 『중국사연구』 101, pp.331-381.
- 홍성구(2016b),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清太宗詔諭」에 대하여」, 『대구사학』 123, pp.245-273.
- 大矢京右(2017), 「児玉コレクションの収集経過とその周辺」, 『市立函館博物館研究紀要』 27, pp.1-40.
- 松川 節(1995), 「大元ウルス命令文の書式」, 『待兼山論叢 史学篇』 29, pp.25-52.
- Tatiana A. Pang(2023), “Two Manchu-Chinese Gaoming Diplomas from the Collection of Nikolay Petrovich Likhachev”, *WRITTEN MONUMENTS OF THE ORIENT*, 9-1-17, pp. 3–18.



감사합니다

중국 랴오닝성 환런현 오녀산상

## 【토론문5】

### 「市立函關博物館 所藏 清代 誥命 소개」에 대한 토론문

정병진(강원대)

본 발표문은 市立函關博物館에 소장된 코다마 컬렉션(児玉コレクション)의 清代 誥命 2건을 소개하면서 해당 문서의 양식과 내용 등을 분석한 글이다. 필자는 각 문건의 ‘起頭語’, ‘升降龍’, ‘御寶’ 등의 특징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誥命에 적합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존 사료에서 해당 수급자의 가계에 관한 서술이 다르게 기록되었음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간 주목받지 못한 자료의 소개라는 발표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토론자가 발표문을 읽어나가면서 느낀 궁금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필자가 소개한 2건의 誥命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양식은 유사하다. 다만, 두루마리 표면에 위치한 ‘標題’의 有無, 날인된 御寶의 左右에 적힌 ‘標題語’의 有無는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明會典》 또는 《大清會典》과 같은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또는 생략이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한다.
2. 필자는 <H-10-51-5-27> 誥命에 적합한 내용을 기반으로 崇岳(Congyo)의 활약을 통해 그의 부친 李杰에게 ‘二等昭信伯’ 작위가 추증되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清國史》와 같은 기존 자료에서 해당 가계의 ‘hergen’에 대한 서술이 오해가 발생한 원인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알려주셨으면 한다. 아울러, 기존 관찬 자료의 서술이 이번 사례와 같이 다른 公文書를 통해 서로 어긋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간략히 소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발표문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것처럼 코다마 사쿠자에몬(児玉作左衛門)이 어떤 사유로 2건의 清代 誥命을 입수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필자는 어떤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4. 마지막은 질문이 아닌 일종의 요청으로 필자가 8월 중순 市立函關博物館을 방문해 실물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본 발표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誥命의 외형과 재질 등 서지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추후 논문에서 서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번잡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이미 진행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誥命의 滿·漢文 譯註도 같이 진행해주시면 기존의 다른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제6발표】

16-17세기 필리핀 총독과 명 지방 당국을 왕래한  
스페인어 문서

남민구(동국대)

- 
1. 서론
  2. 스페인인의 중국 교섭과 문서 왕래
  3. 스페인어-한문 번역의 문제
  4. 'Amistad' 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
  5. 1605년 복건당국이 작성한 한문 문서와 스페인어 문서 비교 검토
  6. 결론



# 16-17세기 필리핀 총독과 명 지방 당국을 왕래한 스페인어 문서

남민구(동국대학교)

## 목차

1. 서론
2. 스페인인의 중국 교섭과 문서 왕래
3. 스페인어-한문 번역의 문제
4. 'Amistad' 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
5. 1605년 복건당국이 작성한 한문 문서와 스페인어 문서 비교 검토
6. 결론



# 1. 서론

- 16세기~17세기 초, 유럽인 해상 세력은 동아시아 해안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
- 포르투갈인, 스페인인, 네덜란드인, 영국인 등 유럽인들은 명조(明朝)와의 통상을 요구하는 교섭을 실시
- 이들은 자신이 소속된 국가를 대변하는 관료로서 동아시아 내 거점의 행정장관이었거나, 국가로부터 임무를 위임 받아 교역이나 선교, 개척 등의 임무를 맡았음
- 이외에도 로마 교황청 산하 각종 선교사회 소속(주로 예수회) 수도사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동아시아에 파견되기도 했음, 예) 마테오리치(Mateo Ricci, 利瑪竇)

- 이들은 주로 복건(福建)이나 광동(廣東) 당국과 교섭하였음
- 복건과 광동 두 성(省)은 유럽인들의 거점이 속한 곳이었거나(예 : 마카오澳門), 혹은 거점으로부터 가장 근거리에서 위치한 중국의 변화한 항구가 두 성에 속해 있었음(예 : 광주廣州, 월항月港)
- 때문에 유럽인들은 복건과 광동 행정당국과의 교섭을 통하여, 두 성 인근에 거점을 마련하였거나(예 : 마카오), 마련하고자 하였음(예 : 광동 엘피날 El Pinar)
- 거점 확보가 실패하더라도, 유럽인들은 16세기 말 이후부터 중국 연안에서 교역 등 활동이 점차 활발해짐



- 때문에 유럽인과 중국 행정 당국 사이에는 다양한 문서들이 왕래하였음
- 이 과정에서 유럽인들은 명측 행정당국에 중국식 공문서 양식을 갖춘 문서를 보내야 했음
- 그 과정에서는 중국인 통사(通事)가 개입, 유럽 언어로 작성된 문서들을 한문으로 번역해 주는 역할을 하였음
- 이들 중국인 통사는 생계를 위하여 유럽인과의 교역에 종사하였던 인물들로 보임
- 유럽인들이 작성한 한문 공문서 실물은 남아 있지 않으나, 이들이 통사를 통하여 작성한 한문 공문서 내용은 각종 문헌에 기재되어 있음

## 2. 스페인인의 중국 교섭과 문서 왕래

- 1571년, 필리핀 루손(Luzon)섬에 필리핀 식민당국의 정청 수립, 루손섬 중심으로 일대의 식민화 진행
- 1573년, 필리핀총독(gobernador-general de las Islas Philipinas) 기도 데 라베자레스(Guido de Lavezares), 신부 마르틴 데 라다(Martin de Rada) 사절단을 복건(福建)에 파견
- 이후에 필리핀 마닐라와 복건 및 광동 사이에는 간헐적으로 외교 교섭이 이뤄졌음
- 그 과정에서 여러 문서들이 왕래함

- 이러한 문서들 가운데, 필리핀당국이 필리핀총독 등의 명의로 명측 당국에 보낸 스페인어 문서가 남아 있음
- 또한 복건순무와 순안어사(巡按御史)가 중국의 공문서를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마닐라 측에 보낸 문서도 있음
- 이들 문서는 스페인 현지 문서보관소에 남아 있으며, 최근 디지털화되어 대중에 공개되고 있음
- 이를 통해 16-7세기 명-스페인 관계는 물론, 유럽과 동아시아 각국의 교섭을 파악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문서는 중간에 한번 필사되어 국왕에게 제출된 것도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함

### 3. 스페인어-한문 번역의 문제

- 한편, 필리핀 체류 중국인들이 스페인국왕 펠리페2세(Felipe II)에게 제출한 문서가 최근에 발굴됨
- 이 문서는 한문과 스페인어로 작성된 이른바 ‘중서합벽(中西合璧)’ 형식을 갖춤
- 이를 통해 보면, 당시 중국 당국이든 유럽 당국이든, 중국인과 유럽인이 개입된 사건을 보고하는 공문서에는 ‘중서합벽’체가 이뤄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역의 문제였음
- 번역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 용어였음
- 국가간 관계나 위계 질서 관념을 각자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서로의 시각차가 드러났음
- 예를 들어, 스페인 필리핀총독측이 복건이나 광동에 파견한 사절단과 총독(總督) 혹은 순무(巡撫) 등 ‘독무(督撫)’급 관료들과의 교섭장에 있어, 스페인측이 항상 명측에 주장한 것은 ‘명 황제’와 ‘스페인국왕’ 주도의 양국간 ‘우호(amistad)’의 체결이었음

#### 4. ‘Amistad’ 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

- 문제는 이 ‘amistad’에 대한 양측의 의미가 달랐던 것
- 스페인측이 말하는 ‘amistad’는 자신들의 국왕 펠리페2세와 명 만력제(萬曆帝)와의 동등한 관계를 원하였고, 조공 사절단 파견이 아닌 정주지 주둔과 위임 상인 혹은 마닐라(Manila) 측을 통한 대 중국 무역 전개였음, 거기에 선교 활동 보장도 동반되었음
- 반면, 명측은 스페인국왕의 ‘표문(表文)’과 조공품을 동반하고, 동시에 무릎을 꿇는 의례 등 주변 조공국 사절단의 외교 왕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5. 1605년 복건당국이 작성한 한문 문서와 스페인어 문서 비교 검토

- 또 하나의 예를 들면, 17세기초 복건순무 서학취(徐學聚)와 복건순안어사 방원언(方元彦)이 보낸 서신에 등장하는 ‘amistad’
- 서학취가 보낸 한문 서신은 현재 『황명경세문편(皇明經世文編)』에 남아 있음, 방원언이 보낸 스페인어 번역 서신도 현재 남아 있음
- 필자의 연구 결과, 이 두 사람의 서신은 같은 내용에 해당
- 이 두 사람의 서신에서 서학취는 ‘여송(呂宋, 루손)’ 측에 ‘투관효순(投款效順)’을 요청
- 반면 방원언의 스페인어 서신에는 ‘이 나라와 귀하의 땅 사이에는 amistad가 있을 것(habra amistad entre este Reino y ese)’이라고 함
- 즉 명측은 ‘amistad’를 번역하는 방식이 결국 명측의 질서관에 입각한 ‘投款’ 그 이상의 의미를 보지 못한 것

- 서와 방의 문서에서 또 중요한 것은 당시 ‘조선(朝鮮)’에 대한 명측의 언급
- 서와 방은 임진전쟁 이후, 중국 동남 연안의 치안 유지와 일본의 남방으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가 있었음
- 이로 인해, 일본, 류큐(琉球), 대만도(臺灣島)에 인접한 루손섬의 스페인인들을 자기 편으로 붙잡아 두어야 할 필요성 있었음
- 방원언의 묘비명은 과거 동년(同年)이자 대학사 조지고(趙志臯)의 동문인 복건 천주(泉州) 출신 양도빈(楊道賓)이 작성
- 여기서 양도빈이 방원언의 복건순안어사로서의 공적을 말하면서, 류큐의 영봉(領封) 문제 해결과 함께 루손 ‘불랑(佛郎)’(マラ)과의 위기 해결을 언급함



- 즉 서와 방이 루손 측에 보낸 서신은 당시 17세기초 동아시아 해양에 깔린 긴장이 배후에 있었음
- 때문에, 서와 방은 임진전쟁에서 명에 의해 구원된 조선의 사례를 들며, 루손 역시 명과 우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이 과정에서 서학취는 ‘일본이 우리 속국(조선)을 범하여 조정은 세 차례 장수와 병사를 파견하여 일본군을 사살하여 부산을 붉게 물들였고, 조선을 회복하고 그 국왕을 다시 세워 조선의 종묘를 지켜주었다(如日本諸島、犯我屬國、朝廷三遣吏兵、屠頰釜山、恢復朝鮮、還立其王、以守宗廟)’라고 함
- 방원언의 서신에는 ‘중국의 통치 하에 있는 조선(Corea que es del gobierno de China)’라고 표현, 이는 ‘屬國’이라는 표현에 해당
- 즉 명측은 ‘속국’이라는 표현에 ‘중국의 통치하(del gobierno de China)’라는 함의를 담고 있었던 것

- 또한 서학취는 ‘200년 동안 충순을 보인 貢市 제국들에게 그 부락들이 병력을 이끌고 함께 토벌할 것(或復聽各貢市諸國二百年忠順者, 許其部落驅兵合剿)’이라는 표현이 등장
- 이에 대해 방원언의 스페인어 서신에는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왕국들과 함께, 관용 없이 전쟁을 일으킬 것(parientes de los muertos, y con las demás gentes, y reinos que pagan parias a China, y sin perdonar a nadie, harán guerra)’이라고 표현
- 그러면서 방원언의 서신 여백에는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국가(reinos que pagan parias a China)’라는 이름과 함께, ‘시암(Siang)’(ママ), ‘교지(Cochinchina)’, ‘조선(Corea)’이 기재되어 있음, 이는 서학취 서신에는 없음
- 즉 조선은 명에 있어 ‘屬國’이자 ‘貢市國’이었던 것

## 6. 결론

- 16-7세기 필리핀총독 당국이 중국에 보낸 공문서, 혹은 중국 당국이 필리핀총독에게 보낸 공문서에서 용어 번역의 문제를 살펴봄
- 여기에서 보면 명과 스페인인 간의 국제 질서에 대한 관점, 특히 양국간 위계질서를 둘러싸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17세기 초 복건측이 보내온 서신을 통해, 필리핀당국은 ‘Amistad’의 실체가 ‘중국의 통치 하(del gobierno de China)’에 있으면서도 ‘조공을 바치는(pagan parias a China)’ 것임을 확인
- 즉 양국간 정치적 위계질서의 차이를 인정하는 ‘屬國’과 경제적 외교의례상의 위계질서의 차이를 인정하는 ‘貢市國’, 이것이 바로 명이 요구하는 amistad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됨

- 이베리아반도를 통일하고 신대륙과 세계 도처를 장악한 스페인제국의 위상에서, 명측의 이러한 요청은 상당히 굴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
- 때문에 양측이 모두 합의하는 ‘amistad’는 없었으며, 양측의 교섭은 동상이몽에 불과
- 한가지 지적할 것은, 이러한 문서가 명 황제와 스페인 국왕의 친서 성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두 국가의 지방과 지방 정부 간에 왕래한 것이 한계
- 각 지방이 중앙과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을 거친 후에 이러한 서신을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음

【제6발표】

16-17世紀、フィリピン総督と明の地方当局を往来した  
スペイン諸文書

南玖玖(東国大学)

- 
1. 序論
  2. スペイン人の中国交渉と文書の往来
  3. スペイン語 - 漢文の相互翻訳の問題
  4. 'Amistad'の解釈にめぐって
  5. 1605年、福建当局の漢文文書とスペイン語文書の比較
  6. 結論





# 16-17世紀、フィリピン総督と明の地方 当局を往来したスペイン諸文書

南玖玖(東国大学)

## 目次

1. 序論
2. スペイン人の中国交渉と文書の往来
3. スペイン語－漢文の相互翻訳の問題
4. ‘Amistad’の解釈にめぐって
5. 1605年、福建当局の漢文文書とスペイン語文書の比較
6. 結論

# 1. 序論

- 16世紀から17世紀初期の間、ヨーロッパ人による海上勢力は東アジアの海洋に現れ始めた
- ポルトガル人、スペイン人、オランダ人、イギリス人などのヨーロッパ人は、明朝との通商（商業取引）を求める交渉を行った
- 彼らは、自分の国家を代弁する官僚として、東アジアに設置された拠点の行政長官に務める、あるいは、貿易、宣教、開拓などの任務を国家から任せられた
- この他、ローマ教皇庁に属する各種の宣教師会(主にイエズス会)の修道士たちは、国籍を問わず、東アジアに派遣された場合もある。例：マテオ・リッチ(Mateo Ricci, 利瑪竇)

- 彼らは、主に福建や広東の当局と交渉した
- 福建と広東の2省には、ヨーロッパ人の拠点(例:マカオ/澳門)、あるいは拠点から最も近い場所に中国の賑やかな港がある(例:広州、月港)
- このため、ヨーロッパ人は福建と広東の行政機関との交渉を通じて、両省(の近く)に拠点を設置する、あるいは、設置しようとしていた(例: 廣東 El Pinar)
- 拠点の拡大が失敗したとしても、ヨーロッパは16世紀の末から中国の沿岸にて交易(貿易)などの活動を広げてきた



- このため、ヨーロッパ人と中国の行政機関との間には多様な文書が交換されていた
- 交渉過程においては、ヨーロッパ人は明（朝）側の行政機関に中国様式の公文書を送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 また、中国人の通事（仲介?）が介入し、ヨーロッパ人が作成した英文を漢文に翻訳する役割を担っていた。
- これらの中国人の通事が、生計のためにヨーロッパ人との交易に従事した人物であることが考えられる
- ヨーロッパ人が作成した英文の公文書は残っていないが、通事により翻訳された漢文の公文書は各種文献に記載されている

## 2. スペイン人の中国交渉と文書の往来

- 1571年、フィリピンのルソン島にフィリピン植民地当局の政庁が設立され、ルソン島を中心に植民地化が進行され
- 1573年、フィリピン総督(gobernador-general de las Islas Philipinas)であるギド・デ・ラベサリス(Guido de Lavezares)は、神父マルティン・デ・ラダ(Martin de Rada)の使節団を福建に派遣
- この後、フィリピンの首都マニラと福建省及び広東省の間では、断続的な外交交渉が行われ
- この過程では多様な文書が交換され

- 多様な文書のなか、フィリピン当局がフィリピン総督などの名で明朝側の当局に送ったスペイン語の文書が残されている
- また、福建巡撫と巡按御史が中国の公文書をスペイン語に翻訳しマニラ側に送った文書もある
- これらの文書は、スペイン現地の文書館に残されていたが、最近のデジタル化により一般人にも公開された
- これらの文書によれば、16から17世紀の間、明朝とスペインとの関係はもちろん、ヨーロッパと東アジア各国の交渉をも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
- ただし、これらの文書には、途中で一度書き写されてから王国に提出したものもあるから、注意が必要

### 3. スペイン語－漢文の相互翻訳の問題

- 他方、フィリピンに滞在していた中国人がスペインの国王、フェリペ2世(Felipe II)に提出した文書は最近発見された
- この文書は漢文とスペイン語で作成され、いわゆる‘中西合璧’に基づいたものともいえる
- これを見れば、当時、中国当局であれ、欧州当局であれ、中国人とヨーロッパ人が介入した物事を報告する公文書には、「中西合璧」という形が形成されていたことがうかがえる



- この過程において、最も重要なことは翻訳の問題であった
- 翻訳問題について、最も重要なのは外交用語であった
- 国家間の関係や位階秩序観念を、各国の言語で表現し、互いの見解の違いが現れた
- 例えば、スペイン・フィリピン総督側が福建や広東に派遣した使節団、総督あるいは巡撫などの「督撫」レベルの官僚らと一緒に交渉の場にいる場合、スペイン側が常に明朝側に主張していたのは、「明朝皇帝」と「スペイン国王」の主導に基づく両国間の「友好(amistad)」を締結することであった

## 4. 'Amistad'の解釈にめぐって

- 問題は、この「amistad」に対して両国の理解が異なることであった
- スペイン側が理解した「amistad」は、彼らの国王であるフェリペ2世と明朝の萬曆帝との対等関係が基本で、朝貢使節団ではなく、定住地駐留、委任商人、あるいはマニラ(Manila)側を通じて対中貿易を展開することであった。このなか、宣教活動の保障も含まれていた。
- 他方、明朝側は、スペイン国王の「表文」と朝貢物品をもらって、ひざまづく礼儀(臣従儀礼)などのような、ほかの朝貢使節団との外交往来方式で交渉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ていた。

## 5. 1605年、福建当局の漢文文書とスペイン語文書の比較

- 他の例: 17世紀初期に、福建巡撫-徐學聚と福建巡按御史-方元彦が送った公文書に記載された「amistad」
- 徐學聚が送った漢文の公書は現在『皇明經世文編』に記載され、方元彦が送ったスペイン語の翻訳文も残されている
- 本研究の研究結果、二人が提出した公文書の内容は同じことに関するものである
- 二人の公文書には、徐學聚は、呂宋側への投款效順を要請すると記載した
- これに対して、方元彦のスペイン語の文書には「この国と貴方の領土の間にamistadが存在すると思う(habra amistad entre este Reino y ese)」と
- つまり、「amistad」の翻訳は、結局、明朝の秩序観に基づく「投款」との意味合いが含まれた

- 徐氏と方氏の文書には、明側が当時の「朝鮮」を言及した点も重要
- 徐氏と方氏は、壬辰戦争以降、中国東南沿岸の治安維持と日本の南方からの影響力の拡大に対する警戒を持っていた
- このため、日本、琉球、台湾島と隣接するルソン島のスペイン人を味方しておく必要性があった
- 方元彦の墓碑名は、過去、同級生であった大学士-趙志臯の同期であり福建天州出身の楊道彬が作成した
- 楊道賓は、方元彦が福建巡按御史として活躍する時の功績を讃え、琉球の領封問題を解決するとともに、ルソン「佛郎」との危機を解決することを言及した



- つまり、徐氏と方氏がルソン側に送った文書の裏には、当時17世紀に東アジア海洋を取り巻く緊張が存在した
- このため、徐氏と方氏は、壬辰戦争の時、明朝が朝鮮を救ったことを例に挙げることによって、ルソンが明朝との友好を維持する重要性を言及した
- この過程には、徐學聚は「日本がわれらの属国（朝鮮）を侵略する際、朝廷は将軍と兵士を3回派遣し日本軍を殺し、釜山を赤く染めて朝鮮を回復した。さらに国王を設立して朝鮮の宗廟を守った（如日本諸島、犯我屬國、朝廷三遣吏兵、屠瀕釜山、恢復朝鮮、還立其王、以守宗廟）」と
- 方元彦の文書には、「中国の統治下の朝鮮(Corea que es del gobierno de China)」という表現が「属国」に該当した
- つまり、明朝にとって、「属国」という表現は、「中国に服従する (del gobierno de China)」という意味が含まれている

- また、徐學聚は「あるいは、この200年の間に出現した各貢市諸国の忠順者を任命し、彼らが部落を率いて共に討伐することを許可する」という表現を使った
- これに対して、方元彦のスペイン語の文書には、「中国に朝貢する国の国王らと一緒に、寛容なく戦争を起こす(parientes de los muertos, y con las demás gentes, y reinos que pagan parias a China, y sin perdonar a nadie, harán guerra)」と
- さらに、方元彦の文書の余白には、「中国に朝貢する国(reinos que pagan parias a China)」という言葉とともに、「シアン ( Siang )」( ママ )、「コーチナCochinchina)」、「朝鮮(Corea)」が記載されている。ところが、これらの言葉は徐學聚の文書に書かれていないものである
- つまり、朝鮮は、明朝の「属国」であり、「貢市国」であった



## 6. 結論

- 16~17世紀に、フィリピン総督当局から中国に送った公文書、あるいは中国当局がフィリピン総督に送った公文書における用語翻訳の問題を論じた
- ここでは、明朝とスペインとの間の国際秩序という観点、特に位階秩序（ヒエラルヒー）に対して両国間の認識の差が縮まられなかった事態が明らかである
- 特に、17世紀初期、福建側からの文書を見れば、フィリピン当局が、「Amistad」の本質が「中国の統治」にあっても、「朝貢する」ことを選択したことを確認した
- つまり、両国間における政治的側面の位階秩序の差異を含めた「属国」と、経済側面における外交儀礼上の位階秩序の差異を包摂した「貢市国」、この二点が、明朝が要求する「amistad」の中身である

- しかしながら、イベリア半島を統一し新大陸と世界各地を支配するスペイン帝国の立場からは、明朝側からのこのような要請はかなり屈辱的なものだが、受け入れるしかなかっただろう
- このため、両国が合意した「amistad」は存在していないため、両国間の交渉が同床異夢に過ぎないともいえる
- 指摘したいのは、こうした文書は明朝皇帝とスペイン国王の親書ではなく、あくまでも両国の地方政府間の往来文書であり、ここに限界がある
- 各地方政府は、中央政府との意思疎通をどの程度達成してから、このような文書を交換していたのかを明白するのは難しい

## 【 토론문6】

### 南玖玖氏報告コメント

岡本 真 (東京大)

南玖玖氏のご報告(以下、南氏報告)は、16-17世紀のスペイン領フィリピンと明の地方官がやりとりした文書の用語翻訳にあらわれた、認識の差異を指摘するものである。論旨は明快で、評者も賛同するところである。ただ、それだけでは評者の責任を果たすには十分でないので、ふたつの事柄を取り上げて卑見を述べることにしたい。

ひとつめは、南氏報告において言及されている、フィリピン在留の華人商人がスペイン国王フェリペ2世に提出した中西合璧形式の文書についてである。これに関しては、合璧形式の使用範囲がどこまで演繹できるのかを考える必要がある。本コメントを執筆するにあたり提供された資料にはこの文書の詳細が記されていないため、誤解の可能性もあるが、私が知り得ている限りでは、南氏報告で言及されている文書は、インディアス総合文書館(Archivo General de Indias)が所蔵する、1598年5月付の漢文の陳情書に、フランシスコ会士が翻訳を書き加えたものである可能性がある。もしそうであるならば、あまり類例のない文書なので、これのみを根拠に華人とヨーロッパ人が関与した事件にかかわる文書全般が中西合璧だったとまでは言いがたいように思われる。また、南氏報告全体の趣旨も踏まえるならば、スペイン領フィリピンと明の官府とが授受した文書に合璧文書が用いられたのかどうかという点も、検討が必要であろう。

なお、比較材料として、日本の場合を紹介すると、合璧文書の事例としては、「コーロス徴収文書」(1617年にイエズス会日本管区長マテウス・デ・コーロスがローマへ送った、日本各地のキリスト教徒の指導者による証言文書)が挙げられる。一方、豊臣秀吉がフィリピン総督に宛てて送った文書は和風漢文で、スペイン語訳文はフィリピンで作成されることもあったし、日本で作成されたものがあわせて送られることもあったが、合璧形式ではなかった。

ふたつめは、南氏報告の主題でもある、公文書の翻訳にあらわれる認識の差異についてである。このシンポジウムのテーマ「モノとしての東ユーラシア世界の公文書」に照らすならば、文面だけでなく、字配りにも認識の差異があらわれていることを指摘できる。すなわち漢文文書では、文書の発信者が認識している上下ないし対等関係が、擡頭・平出・空格といった表現をとって視覚的にあらわれるのである。


南氏報告で言及されている福建巡撫徐学聚の文書については、編纂物に収録されているもので、原本ないしそれに近い写本ではないため、そうした表現は失われてしまっている。しかし、日本の事例を見てみると、フィリピン側の意向が反映されたと考えられる、フィリピン総督から豊臣秀吉へ宛てた漢文翻訳文書では、スペイン国王フェリペ2

世と豊臣秀吉がともに1字擡頭となっており、両者が対等であるとの認識をあらわしている。一方、これに対する返信として秀吉が用意した文書では、日本が1字擡頭になっているのに対し、カスティリアは平出さえもなされていない。つまり、フィリピン側はスペインと日本を対等と認識していたのに対し、日本側はスペインが自身より下と認識していたことになる。このように、字配りにも認識の差異があらわれるのである。

以上の卑見が、このシンポジウムでの討論や、南玟玖氏の今後のご研究の発展に、少しでも役立てば幸いである。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도쿄대학교 사료편찬소 공동학술대회  
『물품으로서의 동유라시아 공문서』

- ◎ 일시: 2023년 8월 9일(수) 13:00~18:00
- ◎ 장소: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 ◎ 주최: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도쿄대학교 사료편찬소
- ◎ 후원:  NRF 한국연구재단
- ◎ 이 행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  
됨(NRF-2020S1A6A3A01054082)



